PDF자료집

주체 90(2001)년

6.15남북공동선언



6.15주간 편집부

6.15 공동선언

6.15주간 편집부

민족통일촉진운동

2001년민족통일대축전

반통일세력 단죄 한민전 중앙위 성명

내외 반통일세력 척결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민족통일전선론

남북공동선언

주체 90(2001)년 6월 15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었다.

북남수뇌들은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조국광복회

세기와 더불어 제4권



새 사단의 탄생으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더욱 강화발전된 것으로 하여 우리의 앞길에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 준비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새 사단의 출현은 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며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군사정치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되었으며 카륜회의 이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전개해 온 통일전선운동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남호두회의 이후 시기부터 우리의 통일전선운동은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조직을 위한 활동에로 집중되었다. 하나의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을 내오고 그 산하에 광범한 반일애국역량을 튼튼히 묶어 세우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보나 내외 정세의 요구로 보나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자주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전민항쟁에 있고 민족대단결이 자력독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일찍부터 주장해 온 사상이었다. 통일전선은 주체확립과 더불어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부터 견지해 온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였다.

민족대단결의 통일전선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여러 갈래의 민족주의세력과 반일애국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바쳐왔고 중국 땅에서 투쟁하는 조건에 맞게 중국의 광범한 반일역량, 공산주의들과의 공동투쟁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이 과정에 우리가 쌓아올린 적지 않은 성과와 경험은 통일전선운동의 폭넓은 발전을 위하여 값있는 밑거름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런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통일전선운동을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여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핵심과 주체적 역량을 빨리 키워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였다.

민족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기 위한 시도는 1930년대 이전 시기에도 있었다.

조선의 근대역사에서 주의와 주장을 초월하는 민족의 대동단결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기 이후부터였다. 그 당시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 무대에는 민족주의와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두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일제의 폭정과 수탈이 강화될 수록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던 선각자들은 애국역량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초기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을 모색하였고 민

세기와 더불어

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진영과의 제휴를 시도하였다.

민족해방과 민족자주권의 부활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두진영 지도자들의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1927년 2월에 서울에서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통일전선조직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당대의 애국인사들과 사가들이 신간회를 가리켜 민족단일당이라고도 부를 만큼 이 단체에 대한 민중의 기대와 신뢰는 컸다. 신간회가 창립되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두 세력의 반목대립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대중은 환호를 올렸다.

주의주장의 차이로 하여 사이가 벌어졌던 공산주의운동자들과 민족운동자들이 때늦게나마 통일단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일전선기관을 내온 것은 민중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는 하나의 큰 경사였다.

우리 나라 민족협동전선의 첫 산아라고 할 수 있는 신간회는 그 취지와 목적이 애국적이고 반일적이었다.

민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양대세력의 공동전선이 실현됨으로써 발족한 순간부터 전민족을 대표하는 거족적인 유일조직으로 되었다. 이 단체의 창립취지는 그 발기인들이 ≪고목신간≫이란 뜻에서 신간회하고 한 명칭 자체에 잘 반영되어 있다. ≪고목신간≫이란 오랜 나무에서 새 줄기가 자라난다는 뜻이다. 명칭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신간회는 새로운 기초 위에서의 민족역량의 총집결을 지향하였다.

이상재, 홍명희, 허헌과 같이 민중의 인망이 높은 진보적 애국지사들에 의하여 발기되고 추진되고 운영된 신간회운동은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하며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 강령의 내용도 혁신적이고 혁명적이었으며 회원들의 직업별 구성도 다양하고 광폭적이었다. 신간회에는 노동자, 농민, 여관업자, 사진업자, 기자, 상업가, 의사, 회사원, 교원, 대서업자, 목축업자, 인쇄업자, 어업자, 운수업자, 직공, 재봉공, 학생, 변호사, 저술가, 은행원, 교역자등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3만 7, 0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좌우합작으로 민족의 총력을 하나로 집결시키려고 한 그 훌륭한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1931년 5월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쳤다.

신간회의 해산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공산주의운동자들은 그 해산의 원인을 민족주의자들에게서 찾으려 하였고 민족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였다. 한때 일부 역사가들은 신간회가 해산된 근본 적인 원인을 상층의 분열과 개량주의적 경향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이 조직의 애국적 성격과 민족사적 의의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런 허무주의적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해산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훈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놀음을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신간회 상층에 개량주의자들이 더러 있었다고 하여 이 조직 자체를 부정해서도 안되며 그 민족사적 의의를 영으로 만들어도 안된다.

신간회가 해산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조선민족의 반일항쟁역량이 하나로 단합되는 것을 두려워한 일제가 그 내부에 쐐기를 박아 분열을 꾀하고 개량주의적 상층을 매수한 데 있었다. 적들의 암해책동과 파괴공작을 물리치고 신간회를 능숙하게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 만한 중심적인 지도역량이 없는 것도 하나의 주요한 해산 원인이었다.

신간회의 와해에서 뼈저린 교훈을 찾은 우리는 애국적 민족역량의 통일을 우리가 주도해야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결의 밑에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를 중요한 방침으로 제기하고 민족의 총력을 항일구국위업의 깃발 아래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그 과정에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만한 핵심도 키워내고 유익한 경험도 축적하였다.

남호두회의는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의 창립에 대한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나라 통일전선운동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되었다.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도 제국주의의 침략을 저지시키기 위한 인민전선운동이 대두하여 파시즘과 대결하고 있을 때였다.

독일 나치스의 정권탈취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은 프랑스 노동계급은 자기 나라에서도 파시즘의 위협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반파쑈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대중이 강렬한 통일열망에 따라 사회당은 1934년 7월 공산당의 제기를 받아들여 반전, 반파쑈통일행동협정을 체결하였다. 두 당의 영향 밑에 분리되어 있던 노동조합도 통합되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노동과 자유와 평화의 인민전선≫이 결성되었다. 추세는 이 전선을 중산계급들과의 통일에로까지 확대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1935년 6월말 사회당, 공산당의 연합에 소부르주아정당인 급진사회당이 가담함으로써 이른바 ≪인민집합≫이 이룩되었다. 7월 14일 파리에서는 수십만 명의 참가하에 인민전선의 대시위가 진행되게 되었다. 3당 수뇌자들인 모리스 토레즈와 레온 블룸, 달라지예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시위행진의 선두에 섰다. 1936년 1월에는 3당을 중심으로 반전, 반파쑈 투쟁에 떨쳐나선 진보적 그룹의 통일에 기초한 인민전선강령이 정식으로 발표되었으며 그해 4~5월에 진행된 하원총선거에서 인민전선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결과 사로내각은 총사직하고 레온 블룸을 수반을 하는 인민전선내각이 탄생하였다. 물론 인민전선정부는 대중의 구매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에스파냐인민전선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이른바 불간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은 인민전선도 붕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에서의 노골적인 파쑈정권의 수립을 저지시켰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반파쑈투쟁에서 하나의 유익한 경험으로 되었다.

국제공산당은 프랑스에서의 인민전선운동의 발전을 좋은 시사를 받고 전세계공산주의자들 앞에 인민전선결성을 중요한 투쟁목표로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공산주의운동은 자본주의의 즉시 타도를 목적한 세계혁명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전쟁과 파쑈를 반대하는 운동을 당면한 과제로 내세웠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의 하나의 노선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제2국제당계열의 여러 정당들은 국제당의 통일전선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프랑스, 에스파냐,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인민전선운동은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다.

1936년 2월 에스파냐에서의 아싸니아인민전선정부의 출현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에스파냐인민전선은 프랑코의 반란과 독일, 이탈리아의 군사적 간섭에 직면하여 곤경에 처하였다.

에스파냐인민전선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주도하에 추진된 이른바 불간섭정책이었다. 엄정중립과 무기금수를 결정한 부당한 불간섭정책은 결국 반란군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다. 쏘련도 처음에는 불간섭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그것이 인민전선정부에 결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명백해지자 태도를 바꾸어 인민전선정부에 비행기, 탱크 등을 보냈다. 에스파냐인민전선이 겪고 있던 곤경은 여러 나라의 지식인들과 근로자대중의 동정을 불러일으켰다. 각국에서 숱한 지원병들이 에스파냐로 달려갔다. 이리하여 에스파냐는 파시즘세력과 인민전선을 지지하는 진보적 세력간의 국제적 교전무대로 되었는데 그 교전은 작은 규모의 세계전쟁을 연상시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강에서 조국광복회를 결성하던 때를 전후하여 벌어졌던 국제적인 반파쑈운동 형편이었다. 우리는 이탈리아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궐기한 이디오피아 애국자들의 영웅적 항전에서도 커다란 고무를 받고 있었다

국제당은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재빨리 포착하고 각국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들을 반전, 반파쑈 투쟁에로 묶어 세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을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혁명의 영도기관으로서의 명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반파쑈인민전선운동과 관련한

세기와 더불어

국제당과 역사적 공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파시즘은 새로운 적이 아니었다. 국제파시즘이 대두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의 대상이 달라진 것도 없었고 성격이 변화된 것도 없었다. 우리는 국제당이 반파쑈인민전선운동 노선을 제기하기 전부터 우리 식의 반일민족통일전선 노선을 제기해왔고 그 궤도를 따라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왔다.

범민족적인 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남호두회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전까지는 주로 내가 혼자서 광복회 창립을 두고 사색을 무르익혀왔을 뿐이다. 김산호, 최현, 박영순을 비롯한 몇몇 동무들이 이따금씩 필요한 조언을 주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대체로 그거야 사령관 동지가 좋을대로 하시지요 하는 식의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돈화지방에 있는 옥수천 부근의 한 산간부락에서 어떤 나이 많은 서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훌륭한 조언자가 되고 의논대상이 되어 주었다.

. . .

어느 날 행군의 휴식 참에 나와 ≪대통 영감≫ 사이에는 민족통일전선체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 에스파냐, 중국 등에서는 공산당, 사회당, 국민당 같은 정당들과 노동운동단체들이 있어 정당, 단체들의 연합으로 인민전선 결성이 가능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정당이나 합법단체도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조건에서 통일전선체 조직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는 나에게 눈덩어리 두개를 주면서 그걸 합쳐보라고 이르고 나 자신은 작은 눈덩이를 눈위에 굴려 그 두개의 눈덩이를 합친 것만한 눈덩이를 만들었다.

≪자 보십시오. 선생은 두 정당연합으로 한 덩이를 만들었고 나는 작은 구심력을 굴려 그보다 더 큰 덩이를 빚었습니다. 이래도 꼭 정당이 있어야만 통일전선체 조직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이동백은 요지경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내 손의 눈덩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혼잣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 참 오묘한 이치올시다. 그렇지만 눈덩이는 눈덩이고 정당이야 정당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자연현상 가운데는 사회의 현상과 이치상 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더란 말입니다.≫

나는 길림 시절부터 우리가 시종일관하게 고수해 온 통일전선정책과 각계각층의 반일애국역량을 결속시키는 데서 새 세대의 청년 공산주의자들이 축적해 놓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

≪통일전선이란 반드시 정당단체들의 연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단체설을 절대화하게 되면 그것은 곧 교조가 됩니다. 군중이 있고 영도핵심만 있으면 능히 통일전선체를 내올 수 있습니다. 목적과 지향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여 열 사람이건 백 사람이건 묶어 세워야 한다는 것이 통일전선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통일전선운동을 추진시켜 왔습니다.≫

이동백은 뒷더수기를 툭툭 치며 ≪역시 교조가 문제이군.≫하고는 껄껄 소리를 내어 웃었다.

. . .

100여 명에 달하는 ≪민생단≫ 혐의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사단이 편성되고 마안산 아동단원들의 생활처지가 개선된 다음부터 나는 모든 힘을 조국광복회 창립을 위한 준비사업에 집중시켰다. 비록 간고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오만가지 시름거리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원만하게 풀려서 모든 일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이동백은 김산호와 함께 이 사업에서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성실하고 빈틈없는 방조자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그가 입대하자마자 곧 조국광복회 창립준비위원회 성원으로 망라시켰다. 그 준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위원은 김산호와 이동백이었는데 김산호는 대외조직과 연락 사업을 맡았기 때문에 주로 바깥에 나다니며 일을 보고 대내에서 준비사업을 주관하여 맡아본 것은 이동백이었다.

조국광복회의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작성하는 데서도 그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때 매 조항을 그와 토론도 하고 초고도 그가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동백은 자기의 문투가 고루한데다가 나의 의도를 정확히 쪼아박을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제의를 사절하였다. 그래서 기초작성은 내가 하고 그가 보충하는 식으로 창립문건들을 하나 하나 완성해 나갔다.

그와의 토의에서 가장 크게 의견 상치가 된 것은 강령의 첫 조항이었다. 강령의 첫 조항에 어떤 내용을 앉히는가 하는 것은 조국광복회가 어떠한 이념과 투쟁목적을 가진 어떠한 성격의 정치단체인가를 단마디로 규정짓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논의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대로 2천만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강도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짓부수고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자는 내용을 앉히자고 하자 이동백은 머리를 기웃하고 생각에 잠기더니 도리질을 하였다.

≪무산계급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으니 서운합니다. 강령 첫 조항에 공산주의 냄새가 없으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숱한 주의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 말은 계급적 성격도 모호하고 어쩐지 민족주의 냄새가 납니다.≫

훗날 백두산밀영에서 박달과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도 역시 조국광복회 강령 첫 조항에 대하여 이동백과 꼭 같은 논조의 말을 하였다.

확실히 그 시기는 우리 나라에서 사이비 맑스주의적인 견해가 널리 오염되어 있던 시기였다.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도 공산주의는 민족적 이념과 상치되는 사상인 것처럼 여기면서 공산주의자들은 협소한 민족적 이념에서 벗어나 철저히 계급적 원칙과 국제주의적 입장을 고수해야만 노동계급과 전인류를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주되는 원인의 하나는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한 명제를 매우 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인 데 기인된다.

맑스와 엥겔스는 일국사회주의혁명의 가능성이 채 성숙되지 못했던 역사적 시기에 살았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리라고 예언하였다. 노동계급의 전복대상인 각국 부르주아지가 민족적 이익의 옹호자로 자처하고 있는 조건에서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자국 부르주아계급이 표방하고 있는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간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세계적인 혁명위업은 망쳐질수 있었다. 각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부르주아적 지배하에 있는 모국이 결코 조국으로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수주의와 국제주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 가운데서 반드시 국제주의, 사회주의 편에 서야 했다. 바로 이러한 견지로부터 맑스주의고전가들은 노동계급이 이른바 애국주의적인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였고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양자 속에서 언제나 민족주의적 편견을 버리고 사회주의를 옹호할 것을 가르쳤다. 맑스는 파리코뮨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코뮨 참가자들이 반동의 소굴인 베르사이유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외적인 프러시아군이 파리를 포위하고 있는 때 국내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애국주의에 배치된다고 그릇되게 생각한 데서 온 것이었다고 단언하였으며 레닌은 제2국제당 수정주의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노동계급의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조국방위≫의 구호 밑에 제가끔 자기 나라의 부르주

세기와 더불어

아 편에 붙은 것을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변절로 낙인하였다.

자기 민족 전체를 희생시켜서라도 개인적 치부를 증대시키려는 환장한 부르주아지들의 식민지 쟁탈전쟁에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고 도와나서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된다. 그러므로 제국주의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려면 ≪조국방위≫의 간판을 들것이 아니라 ≪전쟁반대≫의 기치를 들고 전쟁보이코트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과 애국주의의 기치를 드는 것은 곧 종주국의 부르주아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되며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민족혁명과 계급혁명 그리고 국제혁명위업에 다같이 기여하게 된다.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명제를 무조건 절대화하면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공산주의의 원쑤처럼 여기고 배척하였다는 데 바로 사이비 공산주의자들,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의 이론실천적 착오가 있었다.

사회주의혁명이 민족국가 단위로 진행되게 되는 새로운 역사적 조건하에서 식민지나라들에서의 진정한 민족주의와 진정한 공산주의 사이에는 사실상 깊은 심연도 차이도 없다. 한편에서는 민족성에 대하여 좀더 역점을 찍고 다른 편에서는 계급성에 대하여 좀더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념도 지향도 애국애족의 감정도 같다고 보아야 한다.

진정한 공산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이며 또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참다운 애국자라고 보는 것은 나의 변함없는 신조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공산주의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민족적 권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이 결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데 상당한 시간과 정력을 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신의 투철한 조국애와 민족해방을 위한 실천투쟁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온 민족 앞에 과시하였으며 드디어는 민족해방투쟁의 진두를 떳떳이 나서게 되었다.

우리의 이러한 장구한 희생적인 투쟁의 결과로 보람찬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조국광복회 창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광복회≫라는 명칭 자체도 당당하게 내걸고 강령의 첫 조항에 우리 민족 성원 전체의 자력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하고 동만유격근거지에 세웠던 것과 같은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세우려 한다는 데 대해서도 뚜렷이 밝혀야 한다.

나의 이야기를 주의 깊이 듣고 난 이동백은 무릎을 치며 환성을 올렸다.

≪이제는 됐습니다! 눈뜬 소경이 됐던 나는 장군과 논쟁을 한 덕에 불구를 면케 됐습니다. 대찬성입니다.≫

강령의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상치되는 의견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이처럼 주권문제의 해결을 조선민족앞에 나선 일차적 과제로 제시하고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해외교포들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과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강령에서는 또한 혁명적인 군건설과업도 제기하였으며 경제관계분야에서 일제와 매국적 친일지주들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일본 국가, 일본인 소유의 모든 기업소, 철도, 은행, 선박, 농장, 수리기관과 매국적 친일분자의 전체 재산을 몰수하며 빈곤한 인민을 구제하며 민족적 공농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업들도 명시하였다.

민족적 공농상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민족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사상은 민족자본과 매판자본의 차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애국적 민족자본을 장려하며 민족자본가는 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옹호지지하여 반일공동전선에 묶어 세우려는 우리의 시종일관한 방침과 노선에 기초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반일적 민족자본가까지 포함하는 자본가 일반을 한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공산주의자들과 비록 부르주아라는 명칭은 띠고 있으나 그 지향에서 애국적이고 실천에서 반일적인 모든 민족자본가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보는 진정한 공산주의자들과의 차이가 있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은 또한 사회문화적 과업과 대외적 과업도 제시하였다.

종교인이나 민족자본가, 애국적 지주들의 문제에서 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강령 첫 조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이미 우리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게 된 이동백은 놀라울 정도로 나의 견해를 앞질러 알아맞히곤 하였다.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김산호나 오백룡과 같은 사람들이 옹졸한 태도를 취하였다.

내가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을 기초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창립준비위원회의 명의로 된 편지들과 선전물들을 준비하였다. 실로 일분 일초의 허실도 허용하지 않고 다 잡아 쓰던 분망한 봄이었다.

강령과 규약, 창립선언문을 준비위원회의 최종 토의에 붙인 곳은 만강부락의 허락 여촌장네 집이다.

≪대통 영감≫은 지난날 이른바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던 파쟁군들은 변변한 강령조차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는 주제에 눈이 시뻘개서 헤게모니 쟁탈전만 일삼아왔다고 통탄하면서 이제는 캄캄했던 조선혁명의 진로를 더 밝게 비쳐줄 새로운 등대불이 나타났다고 퍽 좋아했다.

4월말에 모든 준비를 끝마친 우리는 창립대회 장소를 동강수림으로 내정하고 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초청장을 받은 대표들이 그럭저럭 거의다 모여왔으나 꼭 참석하겠다고 답장까지 보내왔던 남만의 이동광과 전광(오성륜)이 대회가 끝나도록 무슨 사정이 있었던지 오지 못하였다. 국내 대표로는 강제하의 조직선을 타고 벽동에서 천도교 대표와 농민 대표가 왔고 온성지구의 당조직선을 타고 교원대표와 노동자 대표들이 각각 한 사람씩 왔다.

역사적인 조국광복회 창립대회는 5월 초하룻날부터 시작되었다. 꽃은 만발하지 못하였지만 만산에는 봄빛이 짙었다.

회합을 앞두고 대표들은 모두다 격정과 흥분으로 설레였다.

통칭하여 동강회의라고 부르는 그 회의는 15일 간이나 진행되었다.

나는 보고에서 조국광복의 기치 밑에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결속할 데 대한 과업과 국경지대와 국내에 진출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항일무장투쟁을 가일층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경 연안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할 새로운 근거지를 창설할 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이 보고가 후에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 올리자≫라는 제명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나는 또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창립선언을 대회 심의에 붙였다.

우리는 10대강령에서 1930년대의 혁명정세와 우리 나라의 사회경제적 조건, 계급상호관계 등을 정확히 분석한 데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전략전술적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과 각계층 애국적 인민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하여 조선혁명의 전도를 명백히 밝혀 주었다.

회의참가자들은 강령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면서 뚜렷한 투쟁목표를 가지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확신성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 데 대한 기쁨을 토로하였고 강령에 제시된 과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대표들의 가슴을 이만 못지않게 격동시킨 것은 조국광복회의 창립선언에 대한 토론이었다.

창립선언의 구절구절들은 처음부터 참가자들의 심장을 거머잡았

세기와 더불어

다. 특히 온민족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한데 뭉쳐 행동으로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참가한다면 조선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모두다 조국광복회에 망라되어 싸울 것을 호소한 부분은 회의참가자들을 상당히 격동시켰다.

조국광복회 창립선언이 채택된 다음 이 선언을 누구의 이름으로 발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나의 이름으로 발표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조국광복회를 창립할 데 대한 첫 발기도 내가 하였고 창립준비위원회 사업도 내가 주관해 왔으며 또 강령과 창립선언도 내가 작성한 것만큼 토론할 여지도 없이 응당 나의 이름으로 발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조국광복회는 전체 조선인민의 반일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것만큼 민족적 형식을 띠어야 했다. 그러므로 발기인으로서는 과거 의병운동이나 3·1운동 시기부터 조선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한 명망이 높고 나이가 지숙한 애국지사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그 당시까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주로 만주지방을 투쟁무대로 삼아 싸워 왔기 때문에 국내의 광범한 인민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의 이름이 국내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백두산에 새로운 비밀근거지들이 설치되고 무장투쟁이 국내 깊이까지 확대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우리 주력부대의 움직임과 투쟁에 대하여 국내 신문이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 아마 1936년 3월 어느날 ≪매일신보≫였다고 기억된다. 그때≪매일신보≫는 장백현에 150~16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진출하였는데 ≪부대의 수령은 **김일성**이라고 한다.≫라고 슬쩍 언급하였다. 이것을 시발로 국내의 출판물들은 우리의 활동을 자주 보고 하였다.

나는 대회 대표들에게 솔직히 말해 주었다. 누가 첫 발기자였고 누가 준비위원회를 책임져 왔고 또 누가 강령과 규약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아무개의 이름으로 내야 한다고 모두다 우기는데 그런 사실이나 따져가며 나 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 2천만 동포가 다 아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조국광복회에 결집해 나설 것을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있다, 나를 동포 민중의 한 아들로 여기고 민중을 위해 남모르는 수고를 했다고 치면 그만이 아닌가, 대의를 위하여 소의를 버리고 나이도 지숙하고 명망도 높은 애국지사들로 공동발기인을 삼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이동백과 여운형을 공동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선언문을 발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나의 제안에 먼저 반기를 들고나선 것은 이동백이었다. 그는 연세나 지난날의 명망 같은 것은 별로 고려할 바가 못된다고 하면서 실천적으로 전민족을 대표하여 조국광복의 대업을 맡아 나서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는 국내외를 통틀어도 김 장군밖에 없는데 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같은 사람을 발기인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국광복회 회장도 마땅히 김 장군이 돼야 하고 발기인도 김 장군이 돼야 하다고 다시금 고집해 나섰다. 그는 나의 제안을 참작하여 나와 함께 여운형을 공동발기인으로 하자고 하였다.

신중한 토의 끝에 결국 김동명이라는 가명을 쓰는 조건에서 내가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되는 데 동의하였다. 나의 양보를 받자 이동백이도 발기인으로 나서는 데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5월 5일에 발표된 조국광복회 창립선언에는 김동명, 이동백, 여운형 세사람의 이름이 공동발기인으로 기재되었다.

나에게 김동명이라는 가명을 붙여 준 것은 이동백이었다. 내가 가명을 쓰는 조건에서만 동의하겠다고 하자 그는 더 우기지 못하고 생각을 더듬다가 가명의 성을 그대로 김씨로 하고 이름은 동녘 ≪동≫자 밝을 ≪명≫자를 붙여 ≪동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김동명≫이라고 달게 되면 민족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여러 모로 뜻깊은 이름으로 될 것 같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열렬한 박수로 찬성의 뜻을 표시하였다. ≪**김일성**≫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김동명≫이라는 가명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다.

우리가 발표한 조국광복회선언은 그 후 국내의 여러 곳에 발송되었는 데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자기대로 복제하여 발표하면서 각기 자기 지방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저명인사의 이름을 발기인으로 바꾸어 써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조국광복회 명칭 자체도 동만에서는 동만 조선인 조국광복회라고 달았다면 남만에서는 재만 한인 조국광복회라고 달았다. 당역사연구소에서 발굴한 조국광복회 선언문들에 더러 오성륜, 엄수명, 이상준(이동광), 안광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것은 그런 사정에 기인한 것이다. 나는 참가자들의 총의에 따라 조국광복회 창립대회에서 이 조직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날 반일민족해방투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가 탄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체로서의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혁명의 군중적 지반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 범위에서 보다 조직성 있고 체계성 있게 빨리 발전하게 되었으며 모든 반일역량을 나라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족의 총력을 광복전선에 결집시키는 문제는 우리가 투쟁 시초부터 내세운 지상의 과제였으며 우리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해 전부터 인내성 있는 준비를 해왔다.

조국광복회 창립은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꾸준히 키워온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의 위력한 산물이었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민족 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의지를 다시금 엄숙하게 선포한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는 전반적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떠밀어가는 전환점으로 되었다.

조국광복회의 창립은 조선혁명 자체 발전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국내외 각지에서 그것을 찬동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 나왔다. 선차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독립군 부대들이었다.

조국광복회 창립이 선포된 직후 조선혁명군 정부참모장으로 있던 윤일파는 우리에게 서한을 보내어 조국광복회 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반일전선에서 긴밀한 연계를 지을 것을 희망해 왔다. 또한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민족주의운동자 박 모는 불원천리하고 만주까지 찾아와서 조국광복회 남만 대표들을 만났다. 상해, 베이징, 천진 등 중국 관내에서 다년간 독립운동에 종사한 애국지사로서 민족주의운동자들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앞으로 국내와 국외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서 조국광복회 사업을 널리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앞으로 전민족적이 무장역량으로서 ≪독립혁명군≫을 결성하기 위한 방도문제를 놓고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3·1월간≫창간호에 이동백이 ≪천도교 상급 영수 모씨! 우리 광복회대표를 친히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쓴 것처럼 천도교 도정이었던 박인진도 조국광복회가 창립됐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우리를 찾아 백두산밀영을 방문해 왔었다. 천도교 청년당에 속한 100만 당원을 조국광복회 회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때의 일이다.

이창신, 이제순, 박달 기타 많은 사람들이 연속 우리를 찾아왔고 조국광복회의 조직확대에 적극적으로 공헌하였다.

단시일 안에 수십만 회원을 가진 범민족적 조직으로 확대발전한 조국광복회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아마 큰 책 몇 권에도 다 담기 어려울 것이다.

1936년 5월 백두산 북쪽 기슭에서의 조국광복회의 탄생은 조선혁명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조국광복의 밝은 서광을 안아온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 조선혁명의 보다 창창한 새날은 이렇게 백두산 기슭에서부터 밝아오기 시작했다.



남북공동성명

주체 71(1972)년 7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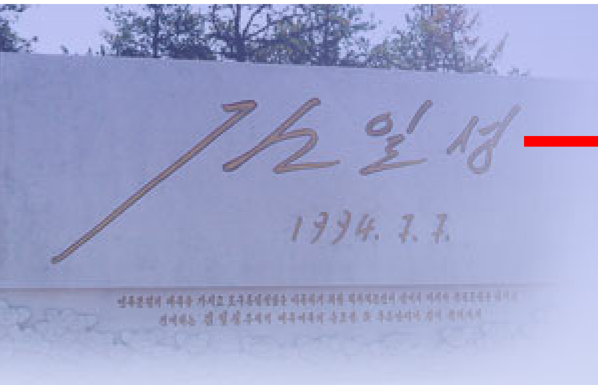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조선노동당 6차 대회

주체 79(1980)년 10월 10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주체 82(1993)년 4월 6일



남북공동성명

주체 71(1972)년 7월 4일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리후락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부장을 대신한 박성철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리후락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념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리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래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부장과 리후락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리행할 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리후락
1972년 7월 4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일성주석님 / 조선노동당 6차 대회

주체 79(1980)년 10월 10일

우리는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사이의 무력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리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 있는 조국통일 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 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여 분렬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민족이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련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상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념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 조직들, 각당, 각파, 각계 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은 련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민족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뻘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련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 령토와 전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근본 리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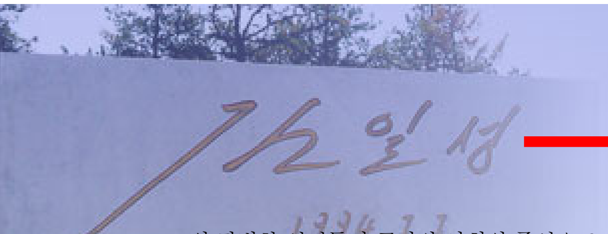
첫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뻘럭불가담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리념이며 각계 각층



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가며 임의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우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리익에 맞게 모든 생산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자원을 비롯한 자연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리용하며 호상협력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무역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회사, 공동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련결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교환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예술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관리하며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예술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련방정부는 인민적인 교육 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기술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련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량단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련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을 련결하는 철길과 자동차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자유로운 래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의 전 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통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련방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수단과 체신시설을 공동으로 리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정부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민족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련방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로동능력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로동조건과 휴식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

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제도와 가격정책, 공정한 세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령세 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 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 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련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련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조선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민족적 리익과 두 지역의 리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련방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립장에서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련방정부가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관계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리권을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련방 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정부가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중립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린접한 나라들과의 선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련방국가는 우리 나라 령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방침은 전체 조선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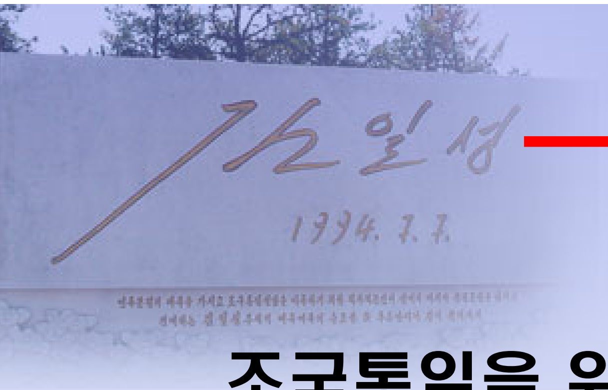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통일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정강은 전체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방안을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통일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하나의 민족대통일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 나갈 것이며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의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삼천리 강토 우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김일성주석님 / 주체 82(1993)년 4월 6일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열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 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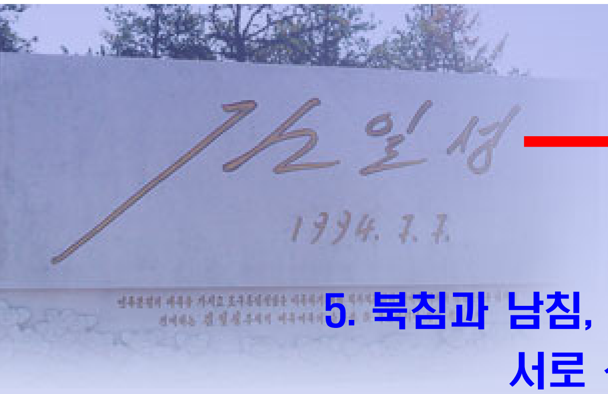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나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이익에 앞서 전민족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 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 소유, 협동적 소유,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개 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이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은 사회적 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 있은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내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내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 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열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주체87(1998)년 4월 18일

우리는 얼마 전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발표 5돐을 뜻깊게 기념한데 이어 이제 곧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5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연석회의를 소집하시어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었습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 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이게 된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노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으며 통일애국역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4월남북연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이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 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시고 지도하신 남북연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을 과시한 애국적 회합으로 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며 연석회의 50돐을 맞는 오늘 그 경험과 업적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민족적 단결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지향과 열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새롭게 밝히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었으며 그것을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 건설,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역사적 로정에 훌륭히 구현하시어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민족발전의 합법칙성과 민족적 단결의 기초를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입니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것만큼 민족성원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수없이 결합되어 있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어느 계급, 계층도 자기 운명을 바로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성을 가지며 계급,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성과 민족의 공통된 이해관계는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을 광범히 묶어세우는 민족적 단결의 기초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입니다.

민족의 단결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 나라 역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과 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망국의 비운을 겪었으며 그후에도 파벌과 사대주의로 인하여 민족주의운동도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실패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키며 민족수난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준 탁월한 사상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압박받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인민들이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지향해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반영하여 민족문제와 함께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세계인민들에게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올바른 지침과 투쟁의 기치를 마련하여준 위대한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족문제와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의 민족이론과 전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신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이론적 업적의 하나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에 기여하신 특출한 공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각계각층의 애국역량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었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양심적인 종교인과 자본가들까지 광범한 애국역량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으며 이 조직은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밑에 반일애국역량을 총동원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민족적 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온 민족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었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는 국토양단과 민

족의 분열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시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어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었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 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입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이념적 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적 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하여 온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팎의 정세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이익과 시대의 추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 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입니다. 분열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더해지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면 민족적 참화를 빚어낼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부세력들은 북과 남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의 간판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복잡하고 험악한 정세에서 우리 나라가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치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또다시 외세의 농락물로 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굴러떨어질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외면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은 분열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하루속히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어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습니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이익과 공통된 민족적 심리와 감정으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 수 없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있는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 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 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가장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지만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렸으며 마침내는 일제를 격멸시키고 잃었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일제가 패망한후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영영 갈라놓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여왔지만 남조선인민들속에 민족의 넋은 의연히 살아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외세의 지배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끊임없이 용감하게 투쟁하는 것은 압제와 치욕에 항거하는 남녘형제들의 민족적 의분의 발현이며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의한 기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낙관을 가지고 온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 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습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이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전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바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조국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애국애족과 매국배족, 통일노선과 분열노선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자주요, 북과 남의 화해요, 단합이요 하는 것은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이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민족적 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결이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민족의 단결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 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 역량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사상감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 기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적 기초로 됩니다. 더욱이 민족분열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을대로 다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 요구로 나서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치는 민족공동의 투쟁의 기치, 전민족대단결의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대업을 위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공통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 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 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개별적 계급, 계층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 것없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펴나가는 광폭정치는 만사람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이며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광폭정치를 실시하여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의 한 대오에서 손잡고 나갈 것입니다. 한때 길을 잘 못 들었던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 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 뿐아니라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을 합쳐 나갈 것이며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역대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반북대결정책으로 북과 남의 화합을 가로막고 각방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저해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의 반북대결정책은 북과 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적 단결의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과 남사이에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 것이며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의 역대통치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선행통치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의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반북대결의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정책전환을 하여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애국애족의 입장에서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법률과 기구를 철폐하고 온갖 정치적 장벽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남조선의 역대통치자들을 반대한 것은 그들이 집권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한 것은 남조선 역대통치자들의 외세의존정책과 반통일정책, 매국배족행위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입장, 연북단합의 입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은 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분열하여 통치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미국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을 동족과의 대결에로 부추기며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외세의 부추김과 조종 밑에 역대 남조선통치배들은 분단의 장벽을 쌓고 북과 남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켰으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을 분열, 와해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이와함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위하여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애국적인 통일민주역량은 분열주의자들의 교활한 이간, 와해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나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층인사들과 인민들은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지상의 요구로 내세우고 단결을 강화하며 통일애국의 대오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사이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널리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내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해나가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이념을 안고 내왕과 접촉, 대화와 조직적인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는데 대화의 마당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대화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모든 것을 조국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북남대화는 소수 당국자들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독점물로 되어서는 안되며 그것은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전민족적인 대화로 되어야 합니다. 대화에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광범히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연대연합하여 공동행동을 벌이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공동행동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오늘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으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조국도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반드시 대단결을 이룩할 것입니다. 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우리 대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이 영접하시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오는 남측대표단 평양 도착



≪**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3일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여 평양을 방문하는 김대중대통령을 따뜻이 영접하시였다.

이날 평양비행장과 수도의 거리들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 특기할 4.8북남합의서에 따라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상봉과 회담은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 나가는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는 력사적인 계기로, 민족 주체적 노력으로 통일성업을 기어이 이룩해 나갈 겨레의 확고한 의지를 과시하는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람홍색 공화국기가 세차게 펄럭이고 있는 비행장에는 동포애의 정과 통일의 열기를 안고 달려 나온 각계층 수도시민들이 운집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비행장에서는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위대한 민족대단결의 경륜으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성스러운 위업을 앞당겨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몸 가까이 뵙게 된 군중들의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드넓은 비행장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윤혁서기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기타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남측대표단을 태운 비행기가 비행장에 내리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군중들은 꽃다발을 흔들면서 남측대표단을 환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악수하시고 인사를 나누시였다.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동원을 비롯한 남측대표단 수원들과 기자들이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함께 김대중대통령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어린이들이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비행장에서 김대중대통령은 서면으로 도착성명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타신 자동차는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시내로 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숙소까지 동행하시고 숙소에서 담화를 나누시였으며 대통령과 그 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평양시내 60여만의 각계층 시민들 수십리 연도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일행을 동포애의 정으로 환영



≪**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혁명의 수도 평양의 60여만 각계층 시민들은 13일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오는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을 동포애의 정으로 뜨겁게 환영하였다.

이날 련못동으로부터 룡흥네거리, 비파거리, 영웅거리, 만수대거리, 칠성문거리, 개선문거리를 지나 금성거리에 이르는 수십리 연도는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50여년 분렬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평양상봉과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떨쳐나온 시민들로 설레이고 있었다.

연도의 국기게양대들과 가로등 전주들에는 공화국기발이 나붓기고 있었으며 고층건물들에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 만세≫, ≪조선은 하나다≫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타신 자동차가 모터찌클의 호위를 받으며 련못동입구에 나타나자 연도에서는 환영곡이 울리고 ≪만세≫의 환호가 터져 올랐다.

녀성근로자들이 차에서 내린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에게 꽃다발을 드리였다.

녀성취주악대의 취주악연주소리가 높이 울리는 련못동을 떠난 자동차행렬은 장산거리를 지나 룡흥네거리에 들어 섰다.

환영군중은 남측대표단의 이번 상봉과 회담길이 7천만 겨레와 인류량심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민족자주로 통일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강성부흥의 새 조국을 일떠세우는데 참답게 기여하는 정의로운 길이 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며 열렬히 환영하였다.

뗄 수 없는 혈육의 정인양 환영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 진 비파거리,영웅거리의 연도를 따라 전진한 자동차행렬은 어느덧 보통문을 가까이 하였다.

보통문을 중심으로 연도에 겹겹이 줄 지어 늘어 선 군중의 환호소리는 모처럼 마련된 이번의 평양방문길이 통일애국의 길로 참답게 이어 지기를 바라는 겨레의 한결같은 기대와 절절한 호소마냥 끝없이 울려 퍼졌다.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비롯하여 공화국의 조국통일 로선과 정책들이 엄숙히 채택되던 만수대의사당과 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인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평양학생소년궁전이 한눈에 바라 보이는 만수대거리에 이어 자동차행렬은 창전네거리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나어린 학생소년들이 연주하는 ≪조선은 하나다≫의 취주악소리가 우리 세대의 무거운 사명감을 다시금 새겨 주며 뜨겁게 울려 퍼지였다.

락랑구역안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동대원구역, 선교구역을 비롯한 시내 각지의 근로자들도 승리거리, 칠성문거리, 개선문거리로 이어진연도에 나와 겨레를 위한 통일성업에서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을 바라는 기대와 열망을 담아 자동차행렬을 향하여 꽃다발과 손을 흔들며 환호하였다.

자동차행렬이 개선문을 가까이 하자 군중의 환호는 더욱 고조되였다.

한평생 우리 인민을 위해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도 분렬된 조국의 아픔을 두고 잠 못 이루시던 우리 수령님, 광복후 어느 해에는 우리가 건설에 지장을 받더라도 남조선인민들을 위해 전기를 보내 주어야 한다시며 몸소 그 대책도 세워 주시고 80년대의 어느 해에는 큰물피해를 입은 남녘인민들에게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수많은 구호물자들을 보내주도록 하신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삼으시고 그 길우에 우리 장군님께서 바치신 심혈은 또 얼마였던가.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시여 통일실현의 억센 기둥을 세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통일의 새날은 머지 않아 밝아 오리라는 우리 인민의 굳은 신념과 의지는 연도의 곳곳에서 끝없이 분출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환호하는 군중에게 손을 흔드시여 뜨겁게 답례하시였다.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은 평양시민들의 열정적이고 뜨거운 환영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참으로 이날 수도의 수십리 연도에 펼쳐진 남측대표단에 대한 60여만 평양시민들의 환영모습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겹쌓인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물리치며 전진해 온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그 누구도 갈라 놓을수 없는 뜨거운 혈육의 정을 다시금 보여 주었으며 민족의 대단결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앞당기려는 우리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 평양에서 진행



≪**평양**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이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북과 남은 지난 4월 8일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과 함께 북남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려원구의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안경호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동원, 기타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김영남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지금 우리의 전체 인민이 일심단결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 있는 투쟁을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는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필생의 위업이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분렬로 하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정립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에는 뜨거운 애국열의와 통일의지, 가장 정당한 통일경륜이 집약되여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힘 써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립장과 방침들, 그 실현을 위해 나서는 몇가지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립장에 서서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북남최고위급회담의 성사는 자기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밝힌것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통일문제해결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북과 남이 대결하지 않고 하나의 민족으로 단합하는것이라고 지적하고 북과 남이 리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전망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도를 확정짓고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풀어 나갈데 대한 우리측의 제안에는 어떻게 하나 하루빨리 통일에 대한 민족의 소원을 실현시키려는 숭고한 뜻이 새겨 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김대중대통령이 발언하였다.

그는 자기들을 뜨겁게 맞이해 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와 김영남위원장 그리고 전체 평양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직접 비행장에 나오시리라는데 대하여 상상하지 못하였으며 평양시민들이 그처럼 뜨겁게 환영해 줄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이것은 남북통일의 열의가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말해 줄뿐아니라 우리가 역시 하나의 민족임을 똑똑히 알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새 세기에 남북이 힘을 합치면 세계일류국가로 되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다른 민족에게 뒤떨어 질것이라고 하면서 남북사이에 이미 합의한 원칙들을 함께 준수하고 실천에 옮기는 문제가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담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북남사이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였다.

회담은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14일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림동옥제1부부장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동원을 비롯한 수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축배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북남공동선언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성업을 이룩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이번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낳은 빛나는 결실로 된다.

김정일령도자와 김대중대통령 사이의 단독회담 진행



≪**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와 김대중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14일 평양에서 있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후 처음으로 마련된 평양상봉은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겨레의 대단합과 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 놓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김대중대통령이 연회를 차렸다



≪**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김대중대통령은 방문일정이 끝나는것과 관련하여 14일 목란관에서 연회를 차렸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김용순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과 김윤혁서기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는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동원을 비롯한 수원들과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이 연설하였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기와 일행을 따뜻이 영접해 주시고 환대하여주신데 대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번의 만남은 민족모두가 함께 기뻐하여야 할 큰 경사이며 분단 55년만의 력사적쾌거의 하나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김일성**주석의 서거이래 우리 민족 전래의 륜리에 따라 3년상을 치른 그 지극한 효성에 감동되였다고 하면서 정치적안정을 이룩하고 대외관계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은 력사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우리 민족이 흘린 눈물을 거둘 때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얼마전 중국을 방문하시였을 때 조선반도문제는 조선민족끼리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깊이 공감하였다고 하면서 자기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민족스스로 열어 나갈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김영남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55년만에 처음으로 만나 보낸 2일간은 너무도 오래 헤여 져 살아 온 세월과 너무도 짧은 상봉과 회담의 순간이 동포애속에 교차되는 뜻 깊은 날과 날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번에 김대중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장군님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이번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북과 남은 서로 갈라 져 살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수 없는 동족임을 거듭 확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과 남의 최고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아 민족문제를 동족끼리 해결할 방도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서로 마음을 소통한것은 민족단합의 좋은 모습을 겨레앞에 보여 주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정치인들은 통일을 미래형으로 볼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대중대통령의 이번 평양방문길이 온 겨레의 숙원인 통일의길로 이어 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는 동포애의 정이 넘쳐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대통령을 위하여 15일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여기에는 김대중대통령과 부인과 함께 대통령특별보좌역 림동원, 통일부 장관 박재규, 재정경제부 장관 리헌재,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그밖의 수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명록 제1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 김용순 비서들, 장성택, 림동옥, 최춘황 제1부부장들, 외무성 강석주제1부상이 참가하였다.

오찬회는 동포애의 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뜨겁게 환송하시였다



≪**평양**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5일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여 평양방문을 성과적으로 끝 마치고 돌아가는 김대중대통령을 뜨겁게 환송하시였다.

이날 평양비행장과 수도의 거리들은 북과 남의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고 민족주체적노력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돌아 가는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을 바래우는 뜨거운 환송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세기가 교차되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진행하고 7천만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북남공동선언을 채택한것은 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숙원인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비행장에는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을 환송하기 위하여 나온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줄 지어 서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 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온 수원들, 기자들이 출발하기 위하여 비행장에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명록 제1부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연형묵위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국태비서, 김용순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최태복의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윤혁서기장,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김정일령도자와 함께 김대중대통령은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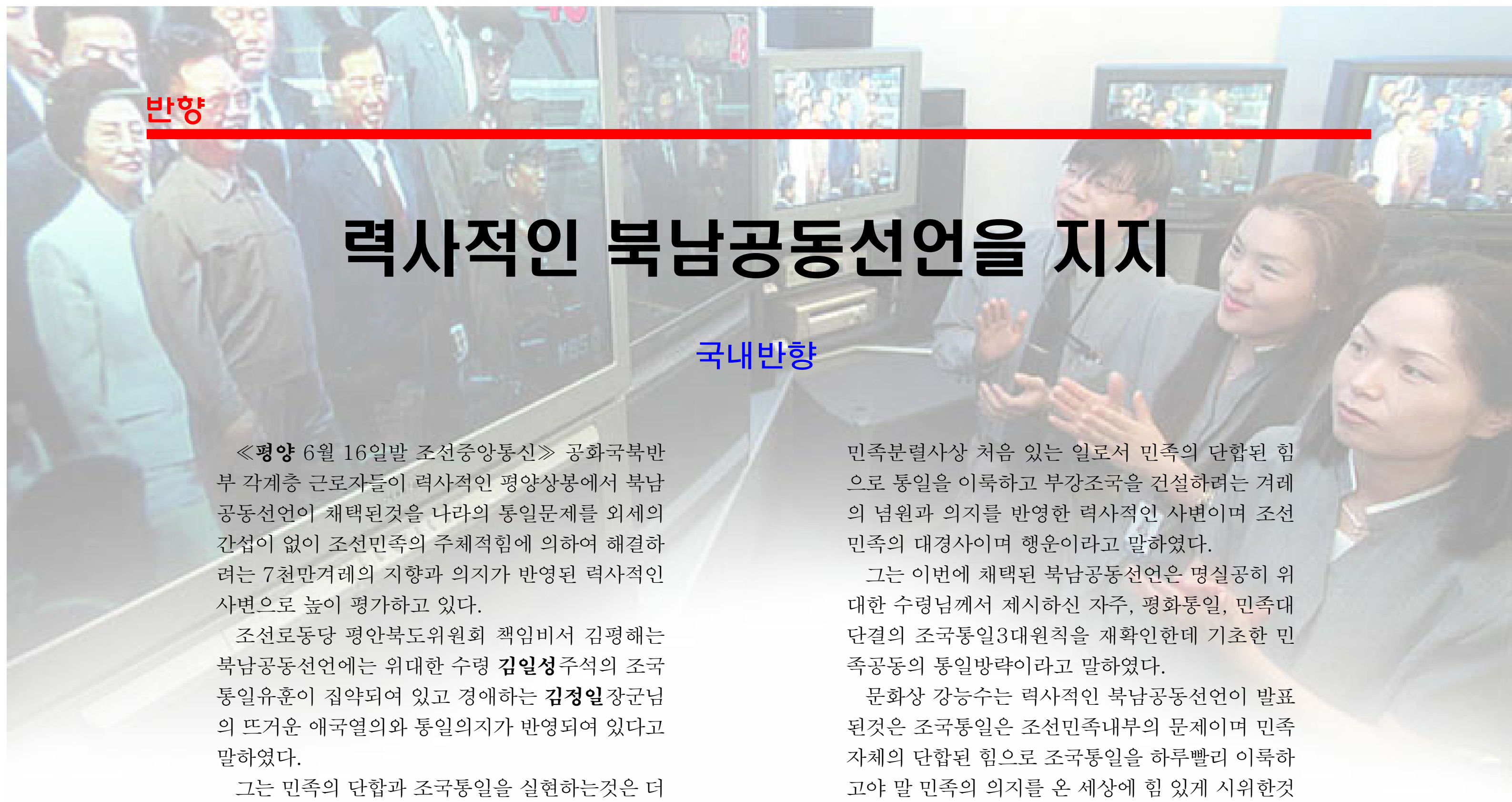
김대중대통령과 부인에게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작별의 악수를 나누시였다.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환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환호성을 올리는 군중들에게 답례를 보내며 비행기에 올랐다.

이날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은 숙소로부터 비행장으로 나가는 거리에서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았다.

룡남동으로부터 룡흥네거리를 거쳐 련못동에 이르는 연도와 순안구역 거리에 떨쳐 나온 각계층 시민들은 민족대단합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에 밝은 전망이 열려 진 력사적인 사변에 접하여 흥분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김대중대통령과 일행을 뜨겁게 바래웠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지지

국내반향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공화국북반부 각계층 근로자들이 력사적인 평양상봉에서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을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민족의 주체적힘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7천만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반영된 력사적인 사변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는 북남공동선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이 집약되여 있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애국열의와 통일의지가 반영되여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이라고 말하였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조국통일상≫ **수상자** 최태규는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민족분렬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 겨레의 념원과 의지를 반영한 력사적인 사변이며 조선민족의 대경사이며 행운이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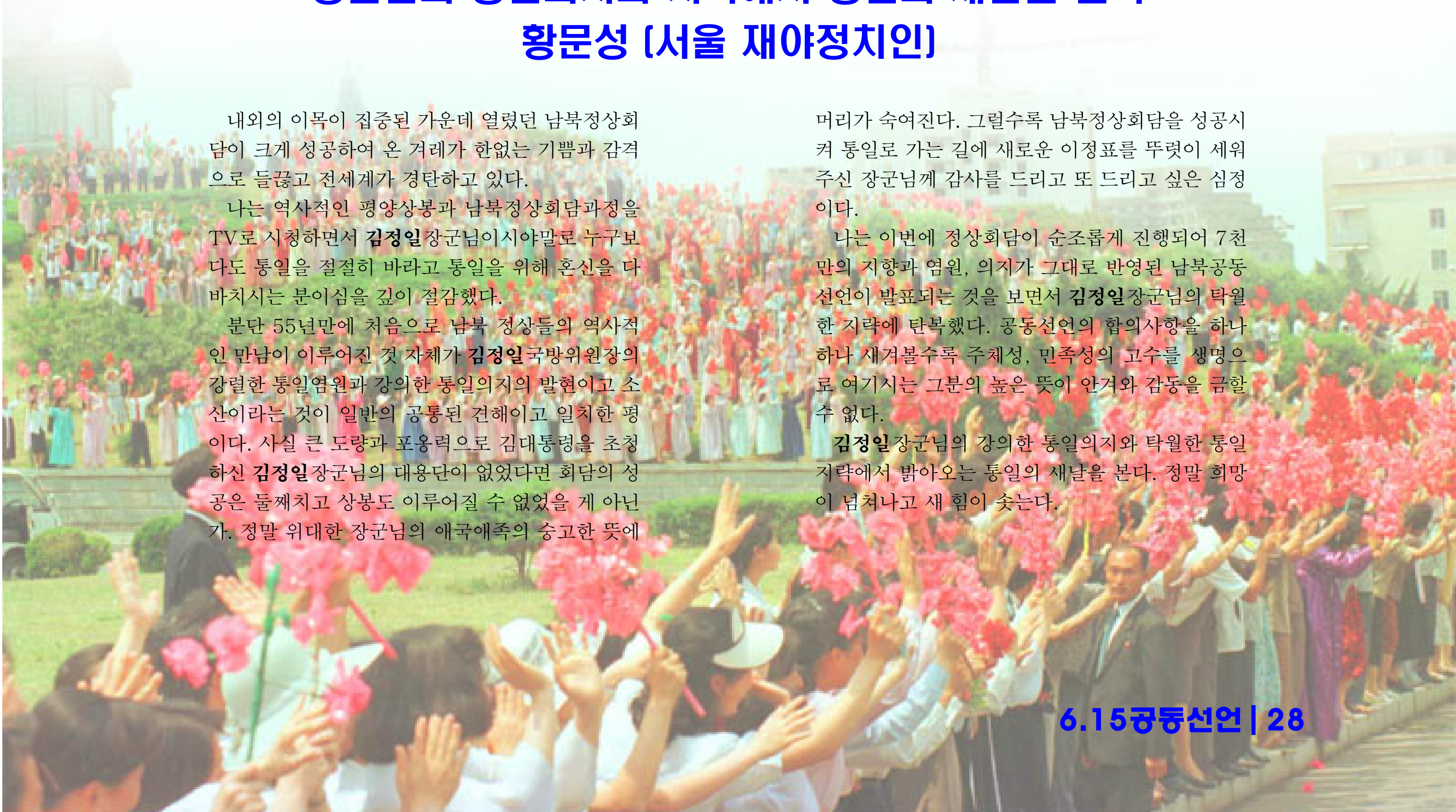
그는 이번에 채택된 북남공동선언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한데 기초한 민족공동의 통일방략이라고 말하였다.

문화상 강능수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은 조선민족내부의 문제이며 민족자체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고야 말 민족의 의지를 온 세상에 힘 있게 시위한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 문학예술인들은 북남공동선언에 천명된대로 남의 문학예술인들과 민족의 문화를 함께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각계의 목소리

구국전선 주체 89년 6월 21일



장군님의 통일의지와 지략에서 통일의 새날을 본다
황문성 (서울 재야정치인)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이 크게 성공하여 온 겨레가 한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들끓고 전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나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과정을 TV로 시청하면서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누구보다도 통일을 절절히 바라고 통일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치시는 분이심을 깊이 절감했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강렬한 통일염원과 강의한 통일의지의 발현이고 소산이라는 것이 일반의 공통된 견해이고 일치한 평이다. 사실 큰 도량과 포용력으로 김대통령을 초청하신 **김정일**장군님의 대용단이 없었다면 회담의 성공은 둘째치고 상봉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게 아닌가. 정말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에 머리가 숙여진다. 그럴수록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통일로 가는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뚜렷이 세워주신 장군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이번에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7천만의 지향과 염원,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지략에 탄복했다.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새겨볼수록 주체성, 민족성의 고수를 생명으로 여기시는 그분의 높은 뜻이 안겨와 감동을 금할 수 없다.

김정일장군님의 강의한 통일의지와 탁월한 통일지략에서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을 본다. 정말 희망이 넘쳐나고 새 힘이 솟는다.

자주노선의 고귀한 결실
하종환(부산 교수)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이 역사의 대경륜은 전적으로 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투철한 통일의지와 현명한 영도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그분께서 시종일관 견지해오신 자주적인 민족단합노선, 조국통일노선의 빛나는 결실이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민족애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는 길에서 민족사적 대전기를 마련하셨다. 정말 우리 민족앞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평화통일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오늘의 대사변을 위해 헌신해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지향을 만방에 과시했다. 이제 우리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통일하여 융성번영하는 자주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세계가 반해버렸다
김진호(서울 노동자)

김정일장군님을 TV화면으로 뵈옵는 그 순간은 우렁찬 박수와 환희, 눈물로 범벅이 된 격정의 순간이었다.

어쩌면 저리도 유연하면서도 당당하고 겸허하면서도 인자하고 소박하실까.

세인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평양공항에서의 그분의 뜨거운 악수와 수십만 평양시민들의 열광적 환호앞에 세계가 놀라고 온 겨레가 눈굽을 적셨다.

14일 오후 그분께서 고령의 김대중대통령을 예우하여 친히 숙소까지 찾아가시고 그와 단독회담을 하시는 모습에서 나는 가장 훌륭한 그분의 인간상을 보았다.

그날 밤 목란관 만찬회석상에서 그분께서 대통령 부부와 뜻깊은 한담을 하시고 가끔 유쾌한 농담도 섞어가며 여유있게 대화를 이끌어가시는 모습에서 ≪야! 통일은 이렇게 되는구나≫하는 감탄과 함께 무아경에 잠기기도 했다.

시종 씩씩하고 자신만만하신 그분의 몸가짐과 걸음걸이, 우렁우렁한 육성, 활달하면서도 통이 크고 구체적이시며 비범하면서도 겸손, 검박, 소탈하신 그분의 기품앞에 나뿐 아니라 온 세계가 반해버렸다.

참으로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을 뵈옵는 순간만은 어둡던 이 서울천지도 대낮처럼 환해보인다.

그렇듯 위대한 민족의 영수를 모시고 사는 오늘의 이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가는 길에 미력하나마 나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련다.

각계 반영

구국전선 주체 89년 7월 1일

김정일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김제 농민 이철훈

6.15남북공동선언에 접한 순간부터 마음을 진정할 길이 없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는 이 공동선언의 채택은 그야말로 민족적 쾌거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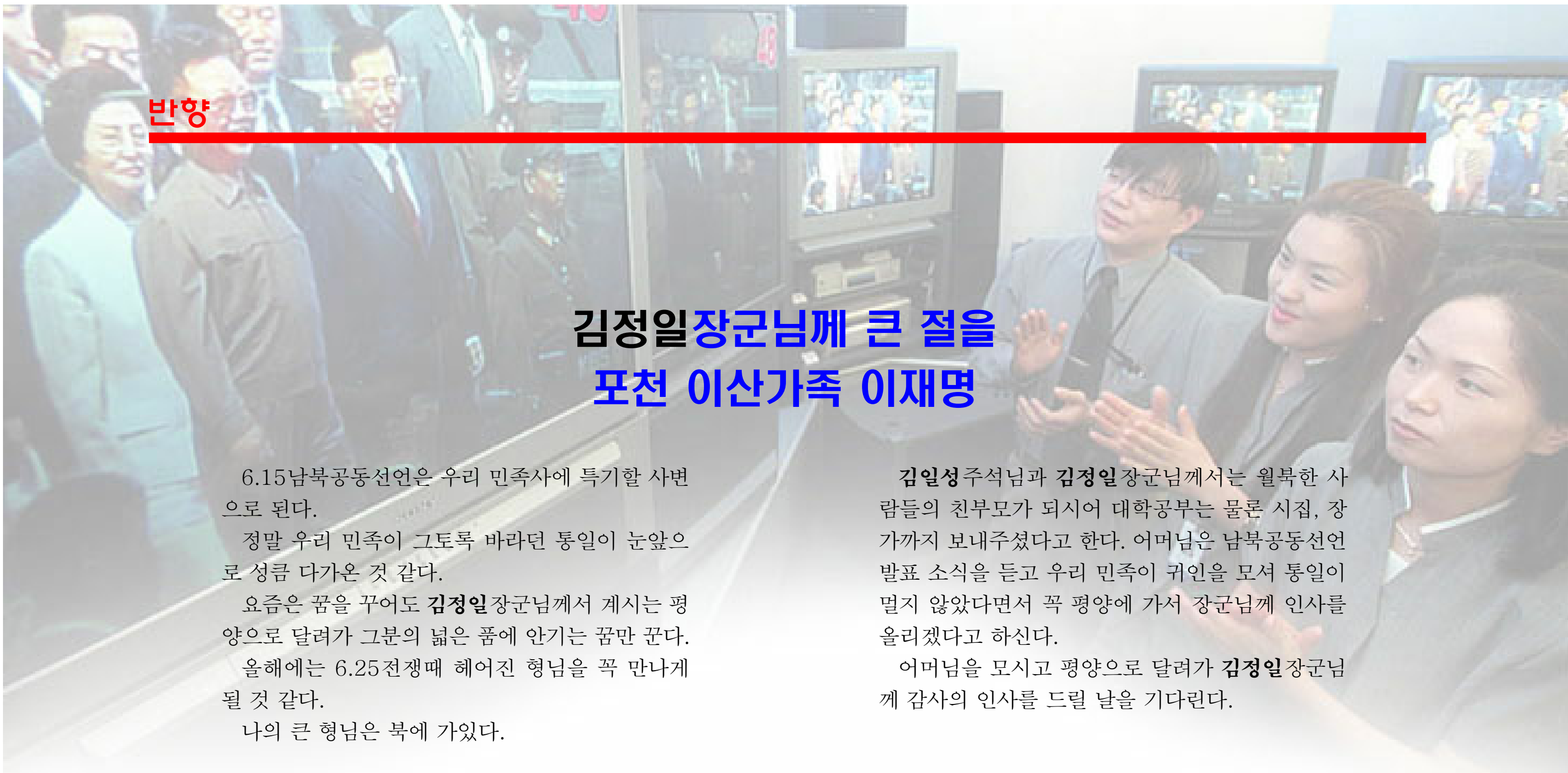
북받쳐오르는 감격 속에서도 갈마드는 것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생각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통일성업을 위해 노고에 노고를 거듭하신 우리 주석님,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미 28년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민족이 지켜야 할 통일원칙을 천명해주시지 않으셨는가. 바로 이러한 불변의 진리에 기초했기에 온 겨레를 기쁨의 눈물 속에 잠기게 한 오늘의 남북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실현해가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통일의 길이다.

이 민족의 정로를 따라 더욱 힘있게 걸어갈 결심 새삼스럽게 다지고 또 다져본다.



김정일장군님께 큰 절을
포천 이산가족 이재명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정말 우리 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통일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다.

요즘은 꿈을 꾸어도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으로 달려가 그분의 넓은 품에 안기는 꿈만 꾼다.

올해에는 6.25전쟁때 헤어진 형님을 꼭 만나게 될 것 같다.

나의 큰 형님은 북에 가있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월북한 사람들의 친부모가 되시어 대학공부는 물론 시집, 장가까지 보내주셨다고 한다. 어머님은 남북공동선언 발표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이 귀인을 모셔 통일이 멀지 않았다면서 꼭 평양에 가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겠다고 하신다.

어머님을 모시고 평양으로 달려가 **김정일**장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날을 기다린다.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것
통일운동가 김인수

조국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이같은 통일문제가 지금껏 해결을 못보고 난항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민족분단을 강요해 온 외세와 그에 추종해 온 사대매국세력 때문이다.

지난 55년 분단세월은 우리 민중에게 자주만이 민족의 살길이요, 외세의존은 민족공멸의 길임을 웅변해 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냉전시대의 유물인 이 땅의 분단구조를 그대로 안고 새 세기로 갈 수는 없다.

세계가 새 세기를 향해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이 때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명확히 지적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우리 민족이 세계를 향해 자주로, 통일로 광명의 21세기를 개척하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된다.

겨레와 후손들을 위해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제 우리 민중에게는 앉아 고민할 것도, 주저할 것도 없게 되었다.

6.15공동선언에 명시된 자주의 정신으로 나가기만 하면 통일은 분명 밝아오는 아침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기다립니다
서울 김진성

6.15공동선언을 통해 **김정일**장군님께서 적절한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야! 하고 환성을 터쳤다.

얼마나 그립고 그리운 **김정일**장군님이신가.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그 위상을 만방에 선양하신 장군님이시다.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오시고 우리 이남민중의 고달픈 심정도 제일 잘 알아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못잊어 하신 장군님이시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도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광폭정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통일의 태양이시고 우리 민중의 어버이이시다.

나는 요즘 **김정일**장군님을 매일 같이 기다린다.

50년전 **김일성**주석님께서 서울에 오시어 이남땅에 새 세상을 열어주셨던 때를 추억하며 장군님께서 이곳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세계 여론이 긍정적으로 평가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은 세계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계는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대하면서 지지환영하였으며 세계 수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은 그에 대하여 중대보도로 특집을 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를 비롯한 중앙급 신문들과 신화통신, 중앙인민방송, 국제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과 엔떼웨, 오에르떼, 에르떼에르를 비롯한 모든 텔레비죤방송들, 주요신문들, 일본의 교도통신,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과 라지오방송, ≪아사히신붕≫, ≪요미우리신붕≫, ≪마이니찌신붕≫, ≪도꾜신붕≫, 미국의 에이피통신과 소리방송 등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은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크게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비행장에서 김대중대통령을 마중하시고 그와 악수를 하시였다고 하면서 이번 상봉은 조선반도 북남최고지도자들사이에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상봉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에이피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북남조선지도자들이 6월 13일 평양교외의 비행장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박수를 치며 손을 저으면서 붉은 주단우로 함께 걸어 갔다. 이것은 분렬된 조선반도에서 랭전을 끝장내기 위한 첫 걸음으로 된다.

로씨야의 모든 텔레비죤방송들은 매 보도시간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 진 소식을 첫 순서로 보도하였다.

텔레비죤방송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비행장에서 김대중대통령을 맞이하시고 사열하시는 장면, 담화하시는 장면, 연도환영장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 미국대통령 카터를 접견하시는 장면, 금수산기념궁전 등을 방영하였다.

텔레비죤방송들은 조선이 분렬된후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되는 이번 평양상봉은 력사적인 상봉으로 되며 **김정일**령도자께서 비행장에까지 나가시여 김대중을 따뜻이 맞이하고 악수를 나누신것은 조선반도에서 랭전을 종식시키고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될수 있는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고 평하였다.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미래를 열어 나갈 의사를 나타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총비서께서와 김대중대통령이 13일 남북으로 분렬된지 55년만에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눈 사실은 조선반도 정세와 미래의 전망을 앞으로는 북남 쌍방이 직접 개척할 의사를 세계에 보여 준것이라고 할수 있다고 썼다.

신문은 또한 ≪**김정일**총비서의 비행장마중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사변이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니홍게이자이신붕≫**은** ≪북남수뇌자들이 력사적인 악수, 김대통령 평양 도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일**총비서께서 김대통령과 력사적인 악수를 나누시였다고 하면서 북남수뇌자들의 악수도, 김대통령의 북조선방문도 분렬된지 55년만에 처음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조선민족의 력사적인 악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반도의 북남 쌍방 지도자들이 나눈 력사적인 악수는 민족의 강렬한 념원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반도가 20세기의 력사적과정에 장장 50여년동안 분렬되여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북남인민들의 념원은 오히려 날로 강렬해 졌다.

사람들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로 하나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및 혈연적련계를 비유하고 있다.

오늘 사람들은 조선의 북남인민들의 웃음 어린 얼굴에서 또다시 이러한 강렬한 민족적감정과 단결력을 보았다.

조선반도의 북남 쌍방 지도자들은 북과 남은 ≪한 민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손 잡고 단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쌍방은 북남동포들이 다같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의견상이가 있는 문제들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조선반도의 북남 쌍방 지도자들이 나눈 력사적인 악수는 조선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굳은 얼음을 깨버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을뿐아니라 조선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놓았다.

세계여론은 보편적으로 북남지도자들이 나눈 이 력사적인 악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물론 악수를 한후에 해야 할 일들은 매우 많다.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신 소식과 북남공동선언을 각국에서 보도



≪**평양**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신 소식과 북남공동선언을 15일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 ≪인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 국방위원회 **김정일**위원장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평양에서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

쌍방수뇌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5개 조항으로 된 공동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는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고 선언문을 교환하시였다고 하면서 공동선언의 5개조항을 전하였다.

중국 중앙인민방송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교도통신과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 영국 비비씨텔레비죤방송과 라지오방송, 도이췰란드 쩨트데에프텔레비죤방송, 미국의 소리방송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서 명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남북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 이정표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1월 30일, 2월 1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신소현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일 이북에서는요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해서 발표한 공동사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에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규정을 하구요,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참여할 것을 온 겨레에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남북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 이정표≫ 이런 문제를 갖고 애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현 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신소현 : 네, 그렇죠. 그건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조국통일 실현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사회적 운동을 막론하고 그것을 승리하자면은 그 운동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올바르게 규정돼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되어 있는 조국통일운동에서도 더욱 그러하다고 보겠는데요. 남과 북의 우리 겨레는요 한민족이면서도 갈라져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제도 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올바른 원칙과 방도가 없다면은 조국통일운동의 승리적 전진을 기대할 수 없구요, 나아가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없는 거죠.

사회자 : 그렇죠. 남과 북은 이미 1970년대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확정하고 7.4공동성명을 통해서 그것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온 세상에 선포했는데요 6.15남북공동선언에는 바로 조국통일 3대원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죠.

신소현 : 그렇죠. 조국통일 3대원칙은요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정신이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데요. 조국통일 3대원칙에 반영돼 있는 자주의 원칙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자 민족통일운동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평화통일원칙은요 온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민중의 한결같은 염원에 걸맞게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방도고, 그리고 민족대단결원칙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온 겨레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행동지침이죠. 그래서 남북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요, 민족대단결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이룩해 나가기로 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훌륭히 구현한 것으로 되죠.

사회자 : 네, 남북공동선언의 핵은요,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공약한 건데요. 그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통일의 직접적 담당자인 남과 북의 우리 겨레가 주인이 돼서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걸맞게 자체의 힘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간다 걸 의미하는 거죠.

신소현 : 그렇죠.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가 둘로 갈

라진 것은 순전히 외세 때문인데요, 침략적인 외세는 자기들의 전략적 이익으로부터 우리 강토와 민족을 갈라놓았어요. 외세의 요구를 따른다면 우리 민족은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열의 역사는 자주가 없으면 평화통일도, 민족대단결도 실현할 수 없는 걸 실증해 주고 있는데요. 남북공동선언이 자주통일을 명백히 선언함으로서 통일문제에 끼어들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있고요, 통일의 기틀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상태와 전쟁의 위험을 가실 수 있는 평화적 방도를 마련한 겁니다. 이처럼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바로 여기에 남북공동선언이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죠. 남북공동선언이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되는 건 또한 이 선언에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신소현 : 그렇습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요구이고 염원이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야 우리 민족은 자자손손 행복하게 부강번영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건 민족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통일방도가 확정돼야 하잖아요? 남북공동선언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쪽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에 기초한 연방제통일의 길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의 설계도를 가지고 통일에로 확신성있게 나갈 수 있다는 담보로 되는 거죠.

사회자 : 네, 그렇죠. 연방제통일방안은요, 민족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조국통일문제를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죠.

신소현 : 그렇죠, 이 방안에는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들이 제시돼 있는데요. 이 방안대로만 하면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외세가 끼어들 수도 없고요 따라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힘으로 해결되는 거죠. 또한 이 방안에는 남과 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과 북 사이에 무력이나 충돌이 없이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연방제 방안대로 통일을 실현하면 민족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되게 되리라는 건 의심할 바 없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남북공동선언대로만 한다면은 민족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리게 되죠.

신소현 : 그렇죠. 우리 민족은 예부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왔는데요, 우리민족의 투쟁역사는 단결의 역사이고, **도 단결의 **입니다. 우리 민족은 영세**을 헤치려드는 외세침략자들을 건결히 ****투쟁해서 언제나 힘을 합쳐 싸워 왔구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왔던 겁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요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다른 민족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갈라진 하나의 민족을 본래대로 하나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통일문제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던 겁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야 말로 *거대한 활력을 나타내고 있는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보겠죠?

신소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공동선언이 발표 후 지난해에 남과 북이 민족단합에 대해서 지난 수십년동안에 실현할 수 없었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됐잖아요? 남과 북이 모든 것에서 *** ***고 수십년간 옥고를 치르면서도 변함 없이 신념을 지켜온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은 정말 민족사에서 큰 사변이었던 거죠. 남북관계사이의 이러한 변화는 공동선언에 따라 남과 북이 대결로부터 평화에로 또 분열부터 단합과 통일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거죠.

사회자 : 참으로 남북공동선언은요, 50여년의 민족분단사에 일찍이 없었던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펼쳐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으로서 새세기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신소현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공동선언을 튼튼히 거머쥐고 그걸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면은 조국통일에서는 보다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해서 그것이 곧 조국통일에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은요 남북공동선언에 천명된대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요, 민족사이의 공조를 실현하며,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절대 배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야 하구요, 서로의 차이점을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겁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국은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는데요.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합류해 나섬으로서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소현 : 감사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3월 11일 ~ 13일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후 남북사이에는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못했었던 그런 경이적인 사변들이 연속 일어나서 겨레를 기쁘게 하고 있죠. 요즘은 누구나 내일은 또 무슨 희소식이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갖게되는데요. 참으로 통일이 가까워 옴을 피부로 느끼게되는 오늘이라 할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통일을 성취하는 길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분발해야 하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향민중은 지난 1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채택된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접하고 전례없는 통일열망에 넘쳐 새 세기 첫해인 올해에 반드시 자주적평화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는데요.

올해를 조국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뜻깊은 해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시기 남북관계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적인 사변들을 가져왔는데요.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남과 북 사이에 정치군사적 대결상황은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번의 장관급 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진행되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의 통일에로의 대장정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온 세계의 경탄을 자아낸 63명 비전향장기수들의 이북에로의 송환, 남북사이에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교환방문, 연예단 및 체육선수단의 교환방문, 언론사대표단의 평양방문 등 남북관계에서는 실로 괄목할만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개월간 조국통일운동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은 6.15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민족의 통일지향과 세계평화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민족공동의 투쟁방향으로써 민족의 통일운동에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 줍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민족자주선언입니다.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자주위업입니다. 현실은 조국통일위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신이 주인이 돼서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핵이고 그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사상인데요.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조국통일문제와 우리 나라 내정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의 책임있는 남북당국과 온 민족이 통일위업수행해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풀어 나갈 것을 선언함으로써 서로 갈라져 적대시하던 남과 북을 통일의 당사자로 만들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통일의 관계로 전환시켰으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관계와 통일운동전반을 일변시켰고 동족사이의 대결과 전쟁위험이 항시 감돌던 한반도에서 자주와 평화통일의 물결이 ***** 통일기운이 완전히 ***전환된 현실은 **** *****높이 치켜들고 민족자주의 길에서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논의하면 막혔던 물목이 터져 나가듯 모든 일을 다 순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동족사이의 신뢰를 도모하고 화합을 이룩해 나아가게 하는 민족단합선언입니다. 분열이래 처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평양상봉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상징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해결하고 다면적인 대화와 협력, 교류를 통해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관심사로 되는 통일문제들을 진지하게 풀어 나가노라면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민족의 단합은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과제를 앞에 놓고 하나의 민족이 민족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그런만큼 통일행정에서 상호접촉하고 협력해 나갈 때 화해와 단합을 순조롭게 도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여러갈래로 이루어진 동포애적 만남은 공동선언의 비상한 견인력과 활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그것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촉진제로 된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운동을 목적지향성 있게 벌여나가게 하는 통일지향선언입니다. 조국통일은 어렵고 복잡한 일인만큼 공동의 투쟁목표와 방도를 확정하고 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이북의 낮은단계 연방제안과 이남의 연합제안이 상호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온 겨레는 공동의 투쟁목표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확신성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새 세기 첫해인 올해 남과 북이 합의하고 7천만 겨레 앞에 확언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 하는데 따라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관점과 태도, 입장문제는 조국통일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하나로 굳게 뭉쳐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새 세기 첫해인 올해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뜻깊은 해로 장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 이철씨 말씀 들으셨는데요. 남북공동선언이 저절로 이행될거라고 생각해선 안되지 않습니까? 반통일세력과의 투쟁 속에서 이행되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통일을 하자면 수십년이 걸려야 한다면서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통일의 걸림돌인데 제때에 뽑아버려야 할겁니다.

6.15공동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선언

구국전선 주체 90년 6월 11일 / 노선일



지금 온 겨레는 통일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을 가지고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고 있다.

뜻깊은 이 역사의 날을 맞으며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는 조국통일운동이 더욱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다.

민족분단 55년만에 마련된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겨레가 안아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선언이다.

그것은 이 선언이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길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불변의 원칙이다.

그 정당성과 활력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여 이룩된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4월 8일 남북합의서에 평양상봉과 남북정상회담이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한 재확인에 기초하여 열린다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담겨진 내용과 관통되어 있는 정신은 철두철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다.

자주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열쇠이고 조국통일의 본질을 이룬다.

민족자주를 견지해야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걸맞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이룩하려는 통일은 민족자주권이 실현된 통일이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이것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을 세계 앞에 선언한 것으로서 공동선언의 여러 조항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고 공동선언전반을 관통하는 기본 핵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면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이 민족의 대단결이다.

남북공동선언에 있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라는 구절은 민족의 대단결을 뜻한다.

이것은 공동선언에 천명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이 민족의 대단결을 전제로 한 것이며 자주와 대단결이 서로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공동선언의 다른 조항들에 언급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문제들도 남북의 신뢰와 화합을 도모하고 민족의 단합을 추동하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북공동선언은 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인 동시에 평화통일선언이기도 하다.

평화는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소원이다.

전쟁의 참혹한 재난을 겪은 우리 민족은 누구나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 조건에서 평화적 통일의 유일한 길은 연방제통일밖에 없다.

현존하는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방식이야 말로 현실에 걸맞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최선의 통일방도이다.

하기에 남과 북은 공동선언의 두번째 조항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갈 것을 명기했던 것이다.

이것은 남북공동선언이 민족끼리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명시한 평화통일선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밝힌 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내외가 일치하게 지지찬동하고 있는 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이다.

겨레가 꿈에도 소원하는 통일은 결국 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이 길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대단결도 있으며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여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

구국전선 주체 90년 6월 11일 / 신대진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주년이 된다.

돌이켜 보면 7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남북수뇌분들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감격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은 그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내외에 커다란 감동과 지지환영을 받았다.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 큰 자국을 남긴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으며 내외분열주의자들의 간교한 방해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루겠다는 남북 7천만 겨레의 약속이고 다짐이기도 했다.

이 뜻깊은 날을 맞는 우리 민중은 나라가 분열되어 55년동안 이루지 못한 역사적 위업을 단 2박3일간에 이루어내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면서 6.15공동선언의 민족사적 의미를 재음미해 본다.

6.15공동선언은 한마디로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이며 민족단합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대헌장이다.

6.15공동선언의 제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정책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한편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의 비극을 가시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다. 따라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국통일은 전민족의 대단합에 의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기본핵은 바로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한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의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강제적으로 흡수병합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양측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기초위에서 연방제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으려는 제도통일발상은 곧 새로운 전쟁을 초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연방제에 의한 통일만이 전민족적 이익에 걸맞는 통일방안이고 실제로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조국통일방안이다.

6.15공동선언의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명백히 밝혀주듯이 6.15공동선언은 전민족적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충분히 구현하고 조국통일을 실제적으로 앞당겨 나갈 수 있게 하는 선언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는 또한 우리 민족이 이를 계기로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할 통일지도자의 출현을 직접 맞이한 것이다.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고 대헌장인 6.15공동선언은 통일을 위해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펼칠 것을 바라는 전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리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대용단을 내리시었기 때문에 마련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 앞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7천만 겨레는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그후 남북교류협상 등 사태발전을 통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이시야 말로 7천만 민족을 대표하고 민족의 추앙을 받고 계시는 통일의 최고지도자이심을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평양상봉과 방북언론사대표단접견 등 여러 기회를 통하여 통일전략과 강인한 통일의지, 위대한 풍모와 덕망을 내외에 보여주시었을 뿐아니라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성업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시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은 내외분열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는 데도 그 의미가 크다.

평양상봉은 미국 패권주의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7천만 겨레와 세계민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힘과 지혜를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을 비롯한 세계의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미국과 그 추구 반통일분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은 통일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다는 데도 의미가 크다.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민중의 통일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조국통일운동은 민족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었다.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평화통일을 지지했고 반미자주의식도 급격히 높아졌다. 지금 민심은 반미자주화운동과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참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갖는 민족사적 의미는 지대하다.

내외분열주의자, 반통일세력들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에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지만 자주통일세력의 종국적 승리는 확정적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통일운동가들, 각계 애국민중은 부동의 신념을 간직하고 필승을 낙관하며 6.15공동선언의 실현에로 과감히 나아가자.

현정세와 민족민주세력의 대응

구국전선 주체 89년 11월 21일 / 최철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불신과 대결이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흐름은 온 겨레를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고 있다.

특히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벌여온 민족민주세력으로 하여금 크나큰 자긍심으로 가슴부풀게 한다.

이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국면인가. 성큼 다가선 전환적 국면은 우리들이 전개해온 불굴의 투쟁이 지극히 의로운 애국애족투쟁이며 그 승리가 필연적임을 웅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유리한 정세발전에 심취돼 그저 관망이나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 엄청난 한반도 정세발전의 깊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적극 대응해 나서는 것이 본연의 사명이고 중임이라고 본다.

변천된 현정세는 민족민주세력이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지를 더욱 가다듬고 용기백배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행보를 배가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정세흐름과 국민각계의 정서에 걸맞게 투쟁과제와 전술을 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행동에 능동자재하게 구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빼앗긴 민족자주권을 되찾고 사회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자주없이 민주없고 통일없다는 것은 피어린 투쟁 속에서 찾은 교훈이고 진리이다.

무려 반세기이상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분열의 비극적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도,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 민주민권을 무참히 유린, 말살하는 식민지파쇼통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비롯된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미국강경보수세력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통일후에도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휴전선부근에 1백만개이상의 대인지뢰매설을 새롭게 계획하는 등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지≫와 ≪독수리≫합동군사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연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 오늘날까지도 식민지지배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스스로 물러가려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북압살과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앞에 나서는 선차적 과제는 의연히 반미자주화투쟁인 것이다.

더욱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진수가 민족자주화의 실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미자주화투쟁은 당면한 급선무로 제기된다고 하겠다. 그것은 민족자주를 떠나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족민주세력은 이 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은 이제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은 현실적으로 6.25전쟁시기 미군의 양민학살만행과 주한미군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는 투쟁과 주한미군기지철폐, ≪한미행정협정≫파기투쟁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벌여 이 투쟁들을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확대발전시키며 나아가서 빼앗긴 땅,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는 범국민적 자주화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이 땅에서 극우익보수세력, 반통일세력을 쓸어버리는 것은 우리 앞에 나서고 있는 절박한 과제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줌도 안되는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 반통일세력은 나라와 민족, 민중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에 빌붙어 일신일족의 기득권과 부귀영달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사대매국집단,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그들은 민족의 분열과 한국사회의 식민지파쇼통치체제를 생존방식으로 체질화하였기에 국민대중의 일치한 자주, 민주, 통일지향과 요구를 한사코 반대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들이 우리 겨레는 물론 세계가 지지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성과를 깎아내리면서 ≪주한미군철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느니 ≪≪국가보안법≫을 절대로 손대서는 안된다≫느니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것과 같은 쓸개빠진 망발을 서슴지 않는 것도 여기에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한낱 보잘 것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극우익보수세력, 반통일세력의 반역적 망언, 망동과 불순한 음모, 흉계를 제때에 분쇄, 저지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극우반동언론의 대변지로서 이미 민족과 역사의 심판을 받은 ≪조선일보≫에 대한 인터뷰, 기고 거부와 불매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강력히 전개해 그를 준엄히 징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악질적인 극우익보수세력, 반통일세력청산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힘차게 별여나가야 한다. 친일파청산운동과 4월 1일자 3낙천, 낙선운동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고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 반통일분자들을 조사, 장악해 그들을 철저히 적발, 숙청하고 매장해 버려야 한다.

민족민주세력은 또한 오늘의 유리한 정세국면에 걸맞게 조국통일운동의 행보를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때가 되면 스스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나온 우리의 투쟁경험이다.

우리는 변화된 정세발전의 요구에 걸맞게 통일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국민대중이 적극 동참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통일의 주체로서의 자각과 무궁무진한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통일운동에 나서도록 의식화작업을 활발히 벌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북민중과의 연대연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이북민중과의 접촉과 대화를 차단하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철폐, 해체하는 문제가 급선무이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성을 폭로단죄하고 그것들의 전면 철폐, 해체를 촉구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2백3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활동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북민중과의 정치대화와 사회문화교류 등 다방면적인 접촉과 교류를 실현함으로써 남북사이의 신뢰와 단합, 협력을 이룩하고 통일분위기를 고양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그 승리는 필연적이고 확정적이다. 역사는 시대의 담당자들인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

민족민주세력은 민족자주, 애국의 기치아래 똘똘 뭉쳐 거족적인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외세가 없고 통일된 새 세상을 안아오고야 말 것이다.

현 시국과 민족민주운동의 당면과제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1월 31일 ~ 2월 1일

우리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은 오랜 세월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에서 민족민주운동은 불퇴전의 의지와 기개를 과시하며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의 현 시국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선봉대인 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물줄기는 냉전과 대결에서 화해와 단합, 협력에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족자주문제가 더 절박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세로 우리 민족민주운동 앞에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자기 주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냉전대결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당국의 가혹한 탄압 대상으로 되어왔고, 자기 민중적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숭미반북의식 때문에 소수의 투쟁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에 묶이어 자기의 활동공간을 넓혀 나갈 수 없었고 보수세력과의 힘겨운 대결을 해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 땅에서는 국민의 의식구조가 반미연북에로 더욱더 바뀌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정세의 변화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기 운동의 당당한 명분과 확고한 대중적 지반, 그리고 유리한 활동공간과 우세한 세력입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 시대와 민족사의 외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피어린 파쇼탄압과 공안정국도 용감하게 이겨내고,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심각한 이념논쟁과 노선대결도 슬기롭게 극복하며 하나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온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지금 민족사의 중대한 시점에서 분파적 행동과 정국변화에 따른 전략전술적 혼선, 일부간부들과 활동가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편협한 사업방법과 작풍 때문에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대중의 달아오르는 투쟁열기를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60년의 4.19항쟁과 80년의 광주항쟁, 87년의 6월 항쟁과 그 이후 확산된 노농대중의 대중적 진출로 민족적 기개와 민중적 위력을 널리 과시하면서 투쟁 속에서 크게 성장하고, 시련 속에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며 대중운동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민족민주운동이 이것을 디딤돌로 삼고 새롭게 도약하여 명실공히 현 대세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한국민중의 참다운 선봉대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자기입지를 확고히 차지하고 시대와 역사 앞에 주어지는 책무를 다해나가자면 자기 운동의 좌표를 바로 정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의 단합된 역량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선 절박한 과제는 6.15공동선언을 관철하는 데로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 자신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7천만 겨레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한국의 금후 정국은 6.15공동선언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대결로 집약되고 그 결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민족민주운동 앞에는 6.15공동선언 이후 고조된 남북화해와 통일분위기를 이 땅에 정착시켜 자주통일로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과제는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에 당국이 서명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당국에만 강요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6.15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대세의 흐름을 냉전에로 되돌려 세우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현실 앞에서 1971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 유신정국으로, 1992년의 남북관계기본합의서가 대결정국으로, 1994년의 남북정상회담합의가 신공안정국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오늘의 유리한 남북화해 정국을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 역사의 곡절이 다시금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민중에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밑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민중이 통일열기를 6.15공동선언관철에로 모아 나가면서 그의 실천투쟁을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역전 기도를 분쇄하고 대세의 흐름을 민족자주통일에로 종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전개해온 자주민주통일운동을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로 총집결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민족자주를 실현해 나가려면 이 땅에서 미제식민지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민족적자주권을 획득하며, 외세와의 공조체제를 허물어 버리고 민족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사대매국적 근성의 발현인 공미론을 척결하고 반미론

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남북 간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 나가려면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에 궁극적 목표인 민족적 대단결에 기초한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면 내외 분열주의자들의 불순한 기도를 저지파탄시키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이 같은 과제를 실현해 가려면 그의 장애물인 외세와 우익보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며,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민족의 **인 6.15공동선언을 세계화 전략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꾀하면서 통일 후에도 미군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며 신자유주의 정책과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정책강요로 한국에 대한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전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으로 남북화해분위기를 파탄내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철수투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군의 침략적 술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민족화해분위기 속에서 반미기운이 더욱 고양되고 있으며, 노동대중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세찬 반미분출 속에서 반미투쟁의 튼튼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이 같은 유리한 국면에 걸맞게 미군철수 구호를 전면에 제기 하고 반미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지배기반의 커다란 위기를 놓고 우익보수세력들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걸음마다 제동을 걸며 반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우익보수반통일세력의 이 같은 기도를 제때에 분쇄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대 공세전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서는 사활적인 과제는 분파주의를 척결하고 운동대오의 단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운동대오의 통일단결 여하에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사활이 걸려있고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승패가 집약돼 있습니다. 운동대오의 불패의 위력도 필승의 담보도 바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단결에 있습니다. 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해서는 분파주의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분파주의는 조직을 분열시키고 동지들 간에 신뢰를 지울 수 있는 암입니다. 오늘 크거나 작거나 운동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파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민족민주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동**의 좌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통일운동대오에서는 통일운동 지도부가 하나로 단합되어 통일적으로 통일운동을 지도해 나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은 새 세기에 들어선 정세의 요구와 환경에 걸맞게 그리고 운동단체들의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파주의 경향을 대담하게 없애버려야 하며 모든 것을 단결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운동대오의 단합을 무조건 이룩해야 합니다.

서로가 합심하고 협력하려면 상대방을 질시하고 시기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주장과 고집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과 통일단결을 절대시하는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며 실천투쟁 속에서 손잡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광범위한 각계층 민중이 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의 전환기적 국면은 단결의 폭을 확대하고 사상의지적 단결과 순결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현재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서로 단합하는 대승적 안목에서 솟구쳐 오르는 각계민중의 통일열망을 뜨거운 품과 큰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거족적인 통일단결의 운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선 절실한 과제는 대중투쟁 형식과 방법을 대담하게 개선하고 지도간부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 시기는 기층민중이 반미자주화와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조성된 정국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으로 하여금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운동으로, 광범위한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조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방식과 대중과 유리된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투쟁구호와 투쟁방식을 구사, 창출해내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민족민주운동대오에서 나타나고 있는 백해무익하고 유해로운 일부 편협하고 졸속한 사업방법과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시급히 시정극복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운동가들은 현실 속에 들어가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는 벗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는 **이 되며 그들의 투쟁열기를 대중운동에로 견인해내는 불씨가 되어 민중의 자주성 실현에 일신을 산화해 가는 충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제와 수구세력은 대세의 흐름에 거역해 나서고 있으나 전반적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폭압으로 이어지는 시련의 언덕마다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꿋꿋이 싸워 자주민주통일의 중심에 우뚝서게 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의 전환적 국면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여 필승의 신념을 안고 6.15공동선언실천 투쟁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승리는 대세의 흐름을 따라 전진하는 민족민주운동의 편에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오늘의 과제

구국전선 주체 90년 6월 1일 / 김윤식

오늘 우리들은 온 겨레의 통일열망이 뜨겁게 분출되는 시점에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을 맞이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정치실력과 천리안의 선견지명,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냉전과 대결의 한파가 몰아치던 한반도에 화해와 단합의 열풍을 안아 온 새 역사의 장엄한 포성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의 신념과 통일의지를 만방에 선양한 엄숙한 민족자주선언이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 7천만 겨레는 수난에 찬 분단사와 결별하고 희망과 용기, 신념과 투지에 넘쳐 조국통일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이남민중은 북과 해외의 겨레와 함께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리며 장군님을 끝없이 우러러 숭앙했다.

천지를 진감 시킨 지난해 6월의 대 환호와 폭풍같은 충격과 파문은 지금도 온 겨레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지, 통일의지의 결실인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은 위대한 활력을 과시했다.

지난 1년은 민족자주의 기운이 전례 없이 고양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친 긍지로운 나날이었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민족의 지향이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조국통일운동이 거족적으로 줄기차게 전개된 자랑찬 투쟁의 행로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된 지난 1년간의 제반 사실들은 우리 민족은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뜻과 힘을 합치면 못 해낼 일이 없고 어떠한 기적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6.15남북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우리 민족은 6.15선언의 정신대로 조국통일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오늘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움직임을 달가와 하지 않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은 내외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거세말살하고 그 이행을 가로막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이미 그 부당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을 다시 떠올려 놓고** 강경대응 **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 이북을 반대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추종 세력들은 공조 와 안보 의 미명하에 외세와의** 정치군사적 결탁을 강화하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냉전과 대결의 광풍이 엄습해오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 없으며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7천만 겨레가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으로부터 6.15공동선언을 견결히 고수하고 그 기치 따라 힘차게 전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오늘날 이남 민중 앞에 부과된 긴절한 과제는 투철한 민족자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반미투쟁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6.15공동선언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반대, 미군의 양민학살을 비롯한 각종 학살만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보상, 미군철수 등의 구호를 기본으로 도처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의 투쟁을 완강히 벌여 양키침략자들이 이남에서 배겨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에 역행하여 동족을 적대시하고 외세와 손을 잡으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매국 반역 세력들의 사대매국행위를 준열히 폭로규탄하며 그것을 걸음마다 저지 파탄 시켜야 한다.

또한 범국민적 차원의 민족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

민족민주운동 조직들은 광범위한 대중으로 하여금 6.15공동선언이 통일의 이정표임을 자각하게 하고 그 이행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도록 하여 지역별, 계층별 통일운동이 거족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민족민주운동 조직들은 최근 이북의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제안한 남북 공동선언 발표 1돌을 성대히 기념하여 6.15 – 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에 여러 가지 행사와 통일운동을 적극화하자는 호소에 적극 호응해 나섬으로써 21세기 첫해인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여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앞당기려는 우리 민족의 강렬한 의지와 지향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남민중은 필승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조국통일진군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해야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9월 9~10일

조국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해 갈라진 우리 민족과 국토를 하나로 통일하는 문제로써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통일문제해결의 담당자, 주인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통일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하려면 조국통일의 담당자, 주체적역량을 강화해야 하는거죠. 그럼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문제해결 임기수씨 모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일을 갈구하는 온 겨레앞에는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왜 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해야하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필요성과 과제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의 주체역량을 강화해야할 이유는 우리 나라 통일문제의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문제는 외세를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재천명하는 우리 민족 내부문제입니다. 때문에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고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면 우리 민족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해야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오늘 안팎의 분열주의세력들의 반통일 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노골화되는 것과 관련해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가 환영하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 이행을 백방으로 방해하면서 한반도에 또다시 냉전기류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용무기축감, 미사일문제, 강경정책에 대하여 운운하며 이북을 압살하려는 책동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이전시대로 되돌려세우려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이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며 그로 인해 미국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궤변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간섭책동으로 하여 오늘 남북사이에 진행되던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한반도에는 또다시 전쟁의 검은 구름이 감돌고 있습니다.

반통일세력은 민족내부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남의 보수우익세력들은 미국의 이러한 침략책동에 추종하여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고 안보니, 공조니 하면서 외세의존과 남북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남에서는 지금도 동족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이적으로 몰아 철창으로 끌어가고 있는데요. 광복절을 기하여 얼마전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온 남측 대표단성원 여러명을 연행, 사법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례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현 정세는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며 그에 기초해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해도 우리 민족의 공통성보다 더 클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민족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조국통일을 지향해 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성원들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이념적기초로 하여 각이한 계급적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고 하나의 사상의지로 단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 겨레가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사대주의를 반대배격해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전개돼야 합니다. 공존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살아나가며 공영은 남과 북이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며 공리는 남과 북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은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해 나가는데서 견지해야할 단결의 기본원칙입니다. 말하자면 단결의 자 막대기라 할수 있습니다. 민족대단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이 자 막대기로 재보고 그에 맞으면 장려하고 맞지 않으면 부정하여 대단결을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전민족이 연대연합을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애국세력이 공동보조, 공동협조를 강화하여 주장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연합하여 거족적인 공동투쟁을 벌여나감으로써만이 온갖 장애요소들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제거하고 통일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조직적인 연합은 단결의 위력을 현실화하고 배가하는 기본방도입니다. 단결은 조직화를 통하여 현실화되며 조직화는 단결의 위력을 확고히 담보합니다. 지금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남과 북, 해외의 연대연합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하는데서 고무적인 형태라 말할수 있습니다.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연대연합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 민족이 조직적으로 연합하자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민족대통일전선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통일전선체는 나라의 통일성취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다같이 다원적으로 망라될수 있고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해서 통일을 앞당길데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강화해야한다≫ 임기수씨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힘을 믿으면 백번 패하고 자기 힘을 믿으면 필승하게 된다는 건 명백한 이치라 하겠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주체적역량을 튼튼히 키울때 통일은 성취되게 될겁니다. 조국통일은 첫째도 둘째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운동연대 준비위 결성 선언문

통일연대

반만년 유구한 민족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민족의 혈맥이 잘리운 채 살아온 지난 분단 반세기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였다.

그러나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염원과 의지는 한순간도 식은 적이 없으며, 지난 반세기 민족사의 걸음걸음에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 생을 바친 수많은 애국통일인사들의 숭고한 피와 땀이 배어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7천만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염원의 결정체이며, 가까운 몇해 안에 기필코 조국을 통일하고 말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이루어 낸 민족사의 쾌거이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은 대결과 반목으로 점철된 분단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젖혔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융성 번영하는 통일조국의 새시대로 맞이하기 위한 민족사의 장엄한 대행진을 시작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주인은 우리민족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한 통일의 헌장이며,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앞 걸음을 뚜렷이 밝힌 통일의 이정표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조국통일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 하기에 7천만 겨레의 가슴에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관철하여 2000년대 가까운 몇 해 안에 조국통일을 완수하리라는 벅찬 희망과 결의가 차 넘치고 있다.

그러나 화해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앞길에는 아직도 수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지난 분단반세기동안 분단을 먹고 살쪄온 분단수구 세력은 기회만 있으면 민족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외세의 방해 또한 만만치 않다.

오늘 조국과 민족은 7천만 겨레에게 준엄한 역사적 사명을 안겨주고 있다. 분단반세기만에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절대절명의 기회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로 이어 나가느냐, 아니면 분단수구세력의 방해에 부딪혀 민족분열의 역사를 연장하느냐 하는 준엄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발걸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7천만 겨레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도도히 흐르기 시작한 민족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온갖 장애와 난관 쓸어버리고 마침내 통일의 큰 바다에 이르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 남녘의 애국적 제정당, 단체, 통일인사들은 6.15남북(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애국통일세력의 단결을 통해 남녘 애국민중들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온 겨레의 단합에 기여하고자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연대(약칭;통일연대)준비위원회≫ 결성을 칠천만 겨레 앞에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

1. 우리는 외세공조에 의한 민족대결에 반대하며,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 등 외세의 정치군사적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고 통일을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자유로운 통일논의를 통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나라로의 통일방안 합의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평화협정체결과 평화군축, 군사훈련의 중단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국가보안법등 통일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폐지하고 분단수구세력을 반대함으로써 냉전분단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민간차원의 다방면적인 자주교류와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간의 교류와 연대를 실현하여 남북당국자간의 대화를 전민족적인 대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더 이상 갈라져 살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을 확고히 실현하여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기필코 맞이하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안고 ≪통일연대준비위원회≫결성을 선언하면서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남녘의 모든 애국적 정당, 단체, 통일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한다.

조국통일은 7천만 온 겨레가 힘을 합쳐야만 이룰 수 있는 민족적 성업이다.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 넘어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단결하는 데 조국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다면 모두다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일치단결하자.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만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만세!
조국통일 만세!

2000년 12월 4일
(가칭)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운동연대 준비위원회

통일연대, 성황리에 결성식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경 종로구 한국 기독교회관 신관 중강당에서 노래패 우리 나라의 축하무대로 시작된 이 날 결성식은 민주노동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연합, 경실련 통일협회, 통일맞이,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등 29개 단체 대표 및 회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2000년 12월 4일 이후 10여 차례의 집행위원회와 4차례의 조직위원회, 2차례의 대표자회의를 통해 출범을 맞게 된 통일연대는 사업계획을 통해 * **김정일**국방위원장 방남 환영 및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사업 / * 6.15- 8.15 민족통일 촉진운동 기간 활동으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공동으로 6월 15일 경 민족대토론회 개최, 남북 자주교류 사업으로 남북 노동자 토론회, 농민 중심의 민속대동제 등 개최 / * 8.15 통일대축전 / * NMD, TMD 추진 저지 투쟁, 평화협정 체결, 남북평화통일선언 촉구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상임고문으로는 강만길 상지대총장을 비롯, 문정현 불평등한소파개정 상임대표, 리영희교수, 고은시인, 변정수 변호사, 백기완씨 등이 맡았으며 지도위원으로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대표,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상임집행위원장 등이 맡고 있다.

참가단체 대표로는 권영길대표,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 문규현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대표, 박정기유가족협의회대표, 이남순한국노총위원장, 홍근수향린교회목사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공동집행위원장은 고영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집행위원장, 김영제민주노총통일국장, 최규엽민주노동장자주통일위원장 등이 맡고 있다.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해리슨 보고에 의하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부시대통령이 김대중대통령의 뺨 때리는 장치≫였다고 말하면서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NMD, TMD는 소리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반도를 냉전으로 되돌리려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6.15공동선언이 30년 전 7, 4 공동성명처럼 사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 앞에서 노동자, 농민의 삶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자주민주통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통일연대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게 보내는 특별제안문을 통해 ≪(가칭)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대토론회≫를 제안하고 토론회를 위한 실무회담을 3월말이나 4월초 금강산이나 기타 다른 장소에서 열 것을 제안했다.

천영세민주노동당사무총장의 결성선언문 낭독, 신창균통일연대명예고문의 만세 삼창을 마지막으로 끝난 이 날 결성식 축하를 위해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범민련북측본부, 일본 도쿄조국평화통일협회에서 축사와 연대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통일연대는 그 간 활동으로 지난 3월 5일 프레스센타에서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북녘 못자리용** 비닐보내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통일연대는 결성식을 계기로 이 후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과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범국민적인 환영행사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통일운동이 힘을 갖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민족민주인터넷 방송국
3/15/2001

통일연대, 대규모 미국반대 국민대회개최

≪광주항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19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6·15 공동선언 방해, MD구축, 광주학살 진짜주범 미국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홍순석(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국민대회에서 이천재(서울연합)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광주항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는 김대중 정부에게는 NMD/TMD를 반대한다는 말을 미국에 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천재 의장은 또한 민족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12명의 일본인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연대사를 통해 미군기지가 일본과 한국에 똑같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연대사에서 이들은 미국 부시행정부가 등장한 후에 NMD/TMD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도 미국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의 NMD/TMD 추진과 이 정책에 응한 일본정부의 정책에도 반대한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이 투쟁에 한국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의 말도 연대사에 덧붙였다.

용산기지, 매향리, 평택오산기지를 방문하고 이날 국민대회에 참가한 일본인들은 국민대회 이후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서총련 율동패≫와 ≪우리나라≫가 출연해 보는 이들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한편, 김주훈(서총련) 의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30일간의 반미구국단식단의 단식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는 18일 반미구국단식단이 단식을 마무리하면서 미 대사관측에 촉구서한 전달과 면담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보고하고 오늘 미대사관 진격투쟁을 서총련이 앞장서서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끝으로 정치수배자로 1년째 명동성당에서 투쟁중인 진재영씨의 결의문 낭독으로 국민대회를 마무리했다.

국민대회에 이어 통일연대소속 학생 및 단체회원 천여명은 명동에서 종각까지 깃발을 앞세우고 거리행진을 했다.

행진 대열 곳곳에서는 다양한 홍보물들과 피켓들이 등장해 한때 명동에서 종각까지 물결을 이루기도 했다.

행진 대열은 종각에서 경찰과 일시적인 마찰을 빚다가 오후 5시쯤 정리집회를 가졌다.

정리집회는 미국의 성조기와 NMD/TMD 미사일 모형의 화형식으로 끝맺었다.

한편, 이날 서총련이 예고한 대로 미대사관 진격투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국민대회 참가자들은 20일 광주에서 개최될 범청학련 3자 연대집회의 참가 할 계획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 com)
통일뉴스 2001-05-19



통일연대,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구성하기로 결정

통일연대가 민화협, 7개 종단과 함께 공동으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추진 본부(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통일연대는 22일 오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7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과 7개 종단이 제안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의 참여여부를 놓고 17일 대표자들간의 열띤 논의를 벌였으나 결정을 짓지 못한 통일연대는, 오늘 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낸 새로운 안으로 결정을 내렸다.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7개 종단, 민화협과 공동으로 구성하여 남북해외에 제안한다.

– 이 기구는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고 북, 해외와 협의하여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사업과 8.15행사를 진행한다.

– 통일연대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사업과는 별도로 국가보안법 철폐, MD반대 투쟁 등 정세가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이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주요한 쟁점은 ≪민화협과 공동사업을 할 것인가≫였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화협이 관변단체나 다름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며 만약 함께 사업을 한다면 관은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는 축소될 것이다≫며 ≪민간통일운동의 중심을 세우자는 취지로 탄생된 통일연대는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대하고 넓히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올 3월 15일 통일연대 가입 당시 민화협과의 공동사업이 추진될 경우 통일연대 사업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린 바 있다.

이에 김헌덕 민자통 의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은 민족대단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화협과는 실천과정에서 판단을 해야지 예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실천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공동기구를 꾸려 덩치만 키우는 것보다는 사안별 공동행사를 치루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며 민족공동행사본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통일연대 내에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필요시 민화협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는 원안과 같다는 이유로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토의를 거쳐 서로의 의사교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결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단병호 위원장은 ≪통일운동진영이 분열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민주노총은 이 결정에 책임질 수 없으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을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이천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에 대해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사고이다≫며 ≪불가피하지만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천영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공동의장은 ≪민화협과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연대 구성조직의 관계 유지보다 더 깊은 역사적 결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의장은 통일연대 내의 통일보다는 민족대단결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영대 자통협 집행위원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훼손하지 않고 민화협과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자신이 있을 경우 표결하라, 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에 박순경 명예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천영세 자통협 공동의장 등도 표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회의장은 다소 침통한 표정이었으나 표결처리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거수로 결정을 했다. 정족수 31명에 찬성 27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통일연대는 민화협, 7개 종단과 함께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결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사회를 진행하던 한상렬 통일연대 공동대표는 ≪통일연대가 대중단체로 위상을 높여야 하며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민화협과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였고, 또한 북한의 견해와 지역 통일연대의 화합을 위해 공동사업을 하자는 것으로 나도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서로 존중하는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오늘의 결정을 1주일간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모두 찬성을 하고 앞으로 1주일 동안 민화협과의 사업을 반대하는 조직들을 만나 설득과 이해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범민련 남측본부 민경우 사무처장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로부터 지난 17일 ≪통일연대가 민화협, 7개 종단과 공동행사 기구를 빠른 시일안에 결성하고 북측에 남북공동행사를 제안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통을 끝낸 통일연대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의 사업에 대해 민화협, 7개 종단과 논의를 거쳐 다음주부터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됐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조직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자통협은 통일연대 내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그 향방이 주목된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 com)
통일뉴스 2001-05-22

통일연대 대규모 범국민대회 열어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3일 오후 대학로에서 1만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6.15남북공동선언 실현, 미군의 양민학살 사죄 배상, MD추진 저지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통일연대 관련자는 물론 전날 한양대에서 출범식을 마치고 나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대하게 치뤄졌다.

문정현(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공동상임대표는 ≪우리 민족을 50년 동안 갈라놓고 청년학생조직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6.15공동선언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는 미국의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우리땅을 한치도 미국에게 내 줄 수 없다. 이를 위해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또한 문정현 상임대표는≪민중들의 반미의식이 고조에 달한 현시기에 빨리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한총련이 통일운동의 주체로 나서길 당부했다.

이에 한총련 최승환 의장은 ≪때로 실수나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부단히 쇄신하고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온 청년학생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올 한해를 시작했다≫며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의 패권전략인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저지하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한총련이 앞장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최승환 의장은 시민통일운동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들과 언제든지 호흡할 수 있는 한총련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규철 전민특위 공동의장은 정치발언을 통해 6월 23일 미국에서 열리는 양민학살 국제전범재판에서 미국의 양민학살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통일연대는 집회를 마치고 종묘공원까지 행진을 벌였으나 미대사관으로 진격하려는 한총련소속 학생들과 경찰의 대치로 한때 시간을 끌었으나 곧 해산했다.

이러한 한총련의 모습에 대해 집회를 구경하던 한 시민은≪한총련이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아 다행이다≫며≪보다 대중적인 조직으로 거듭나 시민들과 가깝다는 인상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자, 한총련 소속 학생 최군(서울대)은 ≪대중과 함께 하는 자세는 어느 조직이든 필요한 것이며 현재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 통일운동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은 한총련의 몫≫이라고 대답했다.

지난 1일부터 한양대에서 치뤄진 9기 출범식에 대해 최군은≪북한이 망한다는 것과 한총련이 회생 불가능하다는 것이 비유됐던 적이 있었지만 북한도 살았고 우리도 살아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통일연대는 현재 민화협, 7개종단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구성해 민족통일촉진운동 기간내 공동의 사업을 진행중이며 추진본부 산하조직으로 청년·학생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있어 청년, 학생들의 활발한 통일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통일뉴스 2001-06-04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담화

오늘 우리는 7천만 온 겨레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새 세기의 첫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을 맞이한다.

감회도 뜨거운 지난해 6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분단사상 처음으로 뜻깊은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6.15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20세기에 시작된 민족분단의 비극이 21세기로 이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특기할 사변이다.

7천만 겨레는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데 관한 6.15공동선언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새 세기의 조국통일 이정표를 가지게 되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채택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화해와 단합의 역사로 전환시켜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며 자주통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엄숙한 민족선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겨레는 수난에 찬 민족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21세기에 통일되고 강성부흥하는 위대한 **김일성**민족으로 빛낼 것임을 온 세계에 선포하게 되었으며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밑에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침략자들의 이북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이 노골화되고 반통일분자들의 영구분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던 지난해,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담아 탄생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특출한 정치실력과 걸출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하기에 우리 남녘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 **김정일**장군만세! **를 목메어 부르며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활화산처럼** 터치었다.

6.15공동선언은 7천만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조국통일이정표인 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날을 따라 높아가는 국제적 지지와 찬동속에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의 애국민중은 조국통일운동사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며 삼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정녕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바쳐 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며 민족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열어주신 통일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설 때, 우리 민족은 21세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민족으로 자랑떨치게 될 것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이행속에 온 겨레의 자주통일기운은 급격히 높아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국통일 진군운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족자주와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서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각계의 애국민중과 함께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감으로써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민족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

주체 90 (2001)년 6월 12일
서울

조선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평양에서는 조선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자주적평화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나갈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 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시내 근로자들 등 3,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양형섭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민족이 지금 민족분렬의 수난에 찬 20세기를 보내고 통일과 번영의 휘황찬란한 21세기의 첫해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지난해에 이룩된 민족통일사에서 특기할 사변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올해는 조선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이라고 지적하고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뜻 깊은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올해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기본열쇠는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치인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지난날의 대결관념을 씻어 버리고 서로 내왕하고 접촉하고 대화하며 이 과정에 신뢰를 쌓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온 민족이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들고 그 이행을 위한 거족적인 대행진에 떨쳐나선다면 우리는 올해안에 반드시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 해외의 동포형제자매들!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안고 희망찬 21세기 첫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 뜻깊은 새 세기의 출발점에서 우리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평양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우리는 대회에서 올해에 조국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중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7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랑찬 전환의 해이다.

온 민족이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여 나가자.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온 민족이 6.15북남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기치로 높이 들고 더욱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은 북남공동선언의 가장 귀중한 정신이다.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투철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해 나가자.

서로 오가고 서로 만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자본가, 종교인 등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소속과 처지의 차이를 뛰어 넘어 서로 연대하고 자주와 대단결, 애국애족의 대오에 합류하자.

북남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의 서로 다른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

연방제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 주며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는 지체시키지 말아야 한다.

송환되지 못한 비전향장기수들을 돌려보내고 흩어 진 가족, 친척들의 생사와 안부도 전해 주며 중단된 적십자회담도 빨리 열자.

공영, 공리의 원칙에서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은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된 협력과 교류의 시간표들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7천만 해내외동포들!

우리가 내딛는 새 세기의 첫 자욱에 민족의 미래가 비껴 있다.

올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비결은 북남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주춤거리지 말아야 하며 그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말아야 한다.

온 겨레가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는 참다운 주인이 되자.

모두다 21세기의 첫해인 올해 2001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거족적 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 나가자.

우리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이 되는 올해 6월 15일부터 8. 15 광복절까지를 ≪6. 15－8. 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켜 나가며 21세기의 첫 광복절을 전 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북남공동선언이 밝힌 이정표를 따라 나아가는 길에 민족자주도 있고 민족대단결도 있으며 조국의 통일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시대와 역사의 부름앞에 애국애족의 열정을 바쳐 나서야 할 때이다.

모두다 6. 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오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주체90(2001)년 1월 10일
평 양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정당, 단체 합동회의

≪평양 5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을 맞으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당면대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가 보고에 이어 정당, 단체대표들의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우리측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인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을 선출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합동회의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 보고

우리는 이제 머지 않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전세계를 격동시킨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 깊은 날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 온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당면대책을 토의하는 공화국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감회도 새로운 지난해 6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라가 갈라 져 55년만에 처음으로 뜻 깊은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천지를 진감시킨 그날의 대환호와 폭풍 같은 충격과 파문은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에 울려 오고 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끊어 진 민족의 피줄을 다시 잇고 랭전과 대결의 찬바람이 불던 이 땅에 화해와 통일의 열풍을 안아 온 새 력사의 장엄한 뢰성이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기상,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새 시대의 엄숙한 민족선언이였습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로 우리 민족은 수난에 찬 과거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21세기는 통일되고 강성부흥하는 위대한 조선민족의 세기로 될것임을 세계앞에 장엄히 선포하였으며 래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성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에 모든것을 다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세기를 맞는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선물을 안겨 주시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몸소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2000년대 민족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였습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기간은 불과 이틀밤 사흘낮밖에 되지 않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짧은 력사의 순간에 나라가 분렬되여 55년간 이루지 못한 거창한 일을 단신으로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대에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의 내용이 그대로 구현된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참으로 민족통일운동사의 중대한 전환입니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영상을 높이 우러르면서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동서고금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 장군님과 같이 그처럼 높은 찬사와 칭송을 받아 본적이 있으며 그처럼 폭풍 같은 인기와 세계적인 이목을 모아 본적이 있었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절세의 위인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1년동안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민족자주기운이 거족적범위에서 전례없이 고조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계에 떨친 긍지 높은 1년이였습니다.

오늘 민족자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간직하고 있는 민족공동의 의지로, 지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자주의 궤도에 들어 서서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위력한 자주의 보검에 의해 굳건히 지켜 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로정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나가면 얼마든지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1년은 또한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로 나가려는 민족의 지향이 그 어느때보다 강렬하게 분출되고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진 자랑찬 1년이였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는 당국과 민간급에서 여러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이루어 지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예술인, 체육인 등 각계층이 오가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 사이에 련대와 단합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조국통일운동은 전례 없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힘 있게 전개되였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조차 없었던 이러한 경이적인 사실들은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이 가져 온 자랑찬 결실로서 우리 민족은 결코 갈라 져 살수 없는 한 혈육이며 뜻을 합치면 못해 낼 일이 없고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힘 있게 울려 나오고 국제적련대성이 일층 강화된 격동의 1년이기도 하였습니다.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민족주체적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려는데 대해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은 물론 제도와 리념을 달리하는 나라와 정부들까지도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지배와 예속, 랭전과 대결정책의 희생물로 되여 우려와 동정의 대상으로 되였던 우리 나라와 민족은 오늘 자주의 상징, 세계가 부러워하는 존엄 있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더욱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발표 이후 오늘까지 조국통일의 길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사태발전과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장군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높은 사명감,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담력, 한없이 넓으신 포옹력과 아량으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 세워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사적 위업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온 겨레의 크나큰 기쁨과 감격속에 북남사이에 이루어 진 어느 하나의 상봉과 래왕, 회담과 협력 사업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운명의 수호자이시고 조국통일력사의 창조자이시며 21세기를 대표하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 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존경과 칭송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높아 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조국통일업적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 나가려는 민족의 통일대행진은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온 겨레의 자주적인 통일대행진은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투쟁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조선반도에서의 화해와 통일의 움직임을 달가와 하지 않는 미국과 일부 반통일세력들은 내외에서 한결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을 거세하고 그 리행에 제동을 걸어 보려고 여러모로 책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치도 않게 ≪핵문제≫**와** ≪미싸일문제≫ 같은 것을 걸고 감히 그 누구에 대해 ≪강경대응≫**을 운운하는가 하면** ≪대북정책검토≫**이니**, ≪**검증**≫**이니** 하는것들을 들고 나오고 ≪공조≫, ≪**안보**≫**를 떠들면서 좋게 발전하기 시작한**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공조≫와 ≪안보≫의 이름밑에 외세와의 정치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련이어 벌어 지고 있으며 동족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해 나선 통일애국운동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랭전과 대결의 역풍이 불어 오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전진할수 없으며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리행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온 겨레의 한결 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을 외세가 주제 넘게 시야비야하고 그 리행에 간섭해 나서는것은 결코 허용될수 없는 일입니다.

북과 남이 화해를 하고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하는데 여기에 외세가 내을 내밀고 ≪강경≫**을** 운운하는것은 전혀 분수에 맞지 않는어리석은 행위입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이며 외세의 간섭에 대한 민족의 엄숙한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는 ≪강경≫**이** 통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경≫**을** 웨치기에 앞서 그로하여 저들에게 빚어 질 후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외세는 오늘 북과 남에서 울려 나오는 각성한 우리 민족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며



변화된 정세와 현실을 바로 보고 대조선정책에서 심사숙고 하여야 합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의지가 담긴 귀중한 민족의 전취물입니다.

북과 남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은 안팎의 도전으로부터 6.15북남공동선언을 지키고 그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립장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확약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간섭책동에 동조해 나서서는 안될것입니다.

또한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응당 ≪공조≫를 해도 동족과 ≪공조≫를 해야 하며 접촉과 대화의 대상인 동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통일애국운동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내외의 도전을 물리치고 21세기 첫해인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결정적으로 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올해초에 있은 민족통일 2001년대회에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이 되는 6월 15일부터 새 세기의 첫 8.15광복절까지를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한결 같은 조국통일의지와 단합된 모습을 내외에 과시할데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과 각계각층이 여야와 사상, 정견을 가림없이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을 민족공동의 행사로 뜻 깊게 기념할것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서 달아 오르고 있는 이러한 통일애국열의를 한데 모아 민족공동의 행사를 의의 깊게 진행함으로써 외세와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야 하며 온 민족이단합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을 힘 있게 떠밀고 나가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즈음한 공동통일행사로서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를 민족의 기상과 존엄이 비껴 있는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서 개최하는것이 좋겠다고 인정합니다.

민족통일대토론회가 개최되여 여기에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발표의 사변적의의를 되새기고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실천의지를 재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힘 있게 추동하는 새로운 활력으로 될것입니다.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을 맞이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는 또한 자체의 실정에 맞게 기념모임을 비롯하여 북남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을 구현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다양하게 조직할수 있을것입니다.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이어 광복절까지 계속되게 될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는 공동선언을 실천적으로 떠밀고 나가기 위한 운동과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벌려 나가며 그것을 거족적범위에서 더욱 힘 있게 고조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과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의 제반 사업을 온 겨레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본 합동회의에서 우리측 준비위원회를 내오는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번영의 새 세기에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다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기어이 열어나가며 통일된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희망찬 새 세기를 우리 민족의 력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전성기로 빛내여 나아갑시다.



북측 정당, 단체 합동회의 제안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난 28일 북측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정당, 단체 합동회의 를 진행하고 남북공동선언 채택 1돌을 맞으며 남측에 몇가지 의미있는 제안을 해 왔다.

북측은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돌을 맞아 남, 북, 해외에서 달아오르는 통일애국열기를 한데 모아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하여 통일로 가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6 ·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에 즈음하여 금강산에서 민족대토론회를 진행하는 한편, 남북해외가 실정에 맞게 의의있는 행사들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의 사업을 보장하기 북측 준비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번 북측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길에 온 겨레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제기로 보면서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북측에서 6 · 15 남북공동선언 1돌을 맞이하여 민족공동의 행사로 대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여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이 함께 실무적 대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우리는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의 활동을 위해 북측이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드높은 의지의 표현으로 기쁘게 받아안고 있다.

작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 · 15남북공동선언으로 조국통일의 활로를 열어놓았던 남과 북은 그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오늘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 외세와 일부 반통일세력들이 많은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다.

온 겨레가 내외의 도전으로부터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그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는 것은 오늘날 가장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 통일연대는 6 · 15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실현하려는 북측 동포들의 의지와 결심에 호응하여 남측 국민들 속에서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1년 5월 29일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민족통일대토론회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사항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와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 준비위원회≫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온겨레와 세계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뜻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다.

1. 6.15 공동선언발표 1주년에 즈음하여 민족공동의 행사로서 2001년 6월 15일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과 북의 광범한 각계 단체 대표들과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서울과 평양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민족통일대토론회 명칭은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로 하며, 토론회 주제는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로 한다.
3. 민족통일대토론회는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 및 개별 인사들이 참가하는 원칙에서 남측대표 200명, 북측대표 200명이 참가하며 토론자는 남과 북에서 각각 6명으로 한다.
   * 남측은 200여 명의 참관단을 두기로 한다.
4. 민족통일대토론회의 토론제목과 내용은 6.15 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하며, 토론문은 사전에 서로 교환한다.
5.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의장단을 구성하며, 토론회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6.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이 토론회 기간에 금강산 산행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7. 민족통일대토론회 준비를 위한 제2차 실무접촉을 6월 13일에서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2001년 6월 5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6.15 -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

6.15공동선언발표 1돐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성대히 진행



≪**고성** 6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온 겨레의 자주통일기운이 날로 높아 가고 있는 가운데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15일 금강산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1돐을 맞이한 뜻 깊은 때에 민족분렬이래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각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진행하는것은 우리 나라 통일운동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중대한 사변으로, 민족주체적노력으로 강성부흥하는 통일조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온 민족의 강렬한 지향과 확고한 의지의 일대 과시로 된다.

민족통일대토론회장인 금강산려관 앞마당은 민족자주의 통일대강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겨레의 뜨거운 통일열기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었다.

토론회장정면에는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2001년 6월 15일.금강산≫**이라는 글발이 나붙어 있었다.**

토론회장상공에는 ≪조국통일≫, ≪**민족자주**≫, ≪**화해협력**≫**이라는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으며 곳곳에**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을 열렬히 환영한다**≫,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하자≫,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고 단결하여** 6.15공동선언 실천하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을 통일하자≫,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 져 있었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학생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카톨릭교협회, 조선불교도련맹, 조선종교인협의회, 조선사회과학자협회를 비롯한 공화국의 각 정당, 단체 대표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남조선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로동당,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북남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련대, 7대종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로동조합총련맹, 민주로동조합총련맹, 농민회총련맹, 교직원로동조합, 기독교총련합회, 민족화합운동련합,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민족종교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문학작가회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녀성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도교중앙총부, 녀성단체련합, 남북문화교류협회, 전대협동우회를 비롯하여 남조선의 각 정당, 단체 대표 200여명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재도이칠란드동포협력회대표단, 범민련 일본지역본부대표단, 범민련 미국지역본부대표, 자주민주통일아메리카련합대표,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 등 20명의 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는 각계 인사 250여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남측대표들이 토론회장에 도착하자 북과 해외대표들이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그들을 맞이하였다.

녀성근로자들이 남측 정당, 단체 책임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었다.

토론회시작을 알리자 ≪아리랑≫의 노래선률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형통일기발이 서서히 게양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회장은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대표들을 따뜻한 동포애의 정으로 열렬히 환영하고 지난해 발표된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한 애국애족의 기치이며 민족자주의 통일대강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의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발기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지금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가 7천만 겨레의 애국의지를 하나로 합치는 거족적인 회합으로,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이룩하고 힘을 백배하는 력사의 마당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 놓는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남조선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리돈명상임본부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여 온 분단의 장벽을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온 겨레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7천만 겨레가 자주와 평화,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남조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손장래상임의장은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남의 련합제안과 북의 련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이 국제사회에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기여하기 위해 하루속히 분단과 랭전의 분위기를 끝장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공화국 사회과학원 김세민부원장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이 땅에 화해와 통일의 열풍을 안아 오는 민족사적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였으며 지난 1년간 공동선언의 거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북남공동선언의 력사적의의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것을 선포한 민족자주선언이며 북남이 처음으로 조국통일방도를 합의한 통일지향선언, 인도주의문제해결의 획기적인 전망을 열어 놓은 동포애의 선언, 민족이 화해협력해 나갈수 있는 현실적방도를 밝혀 준 민족협력선언이라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지난 1년간 북과 남이 공동선언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을 활발히 벌려 온데 언급하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해 힘과 지혜를 바치고 서로 련대련합하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을 과시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남조선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회장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힌 가장 뚜렷한 리정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민족적공통성보다 더 클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리행해 나가는 가장 힘 있는 방도는 민족대단결이며 그것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반대하고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철저하게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박태화위원장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것은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성원들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간직하고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며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새 세기는 민족자주통일의 세기로 될것이라고 언급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간다면 화해와 협력, 단합이 다그쳐 져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나라의 통일을 성취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남조선 민주로동당 천영세사무총장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통성보다 더 클수 없다고 언급하고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운동의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바로 이러한 민족대단결운동이 이루어 낸 위대한 결실이며 민족대단결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은 력사적쾌거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 6.15공동선언으로 조국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외세에 의하여 중대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미일 외세의 군사적긴장조성을 반대하고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최창숙부위원장은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선결문제는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켜 나가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외세에 의하여 조선녀성들이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해 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녀성들은 절대로 남에게 자기의 존엄을 짓밟히며 운명을 롱락 당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온 겨레가 민족의 존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고수해 나가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힘을 합치며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남의 나라의 간섭과 개입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화국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정운업회장은 6.15공동선언에는 북과 남이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해 명시되여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동선언발표후 북과 남사이에 협력사업이 진행된데 언급하고 이것은 북과 남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간다면 민족적리익을 도모하고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며 나라의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협력사업을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사상과 제도, 신앙과 리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진행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조국통일위업에 특색 있게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남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 리천재공동의장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하고 6.15공동선언에서 재확인한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이며 현시기 우리 민족앞에 놓인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자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외세와 공조하지 말아야 하며 일본의 군국주의화 경향에 맞서 남과 북이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경제, 문화적인 측면과 정치, 외교적인 분야에서 남과 북이 협력과 공조를 실현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전민족적인것으로 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범민련 미국지역본부 류태영대표는 공동선언은 민족분렬의 아픔을 안고 살아 온 해외동포들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하면서 모든 동포들이 통일운동에 주인답게 참여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해외동포들이 조선사람의 넋을 지니고 민족성을 꿋꿋이 지켜 나가며 조국통일위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북과 남의 동포들과 련계를 깊이 하고 그들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해외동포들이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애국투쟁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세계적범위에서 조선의 통일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남조선 녀성단체련합 지은희상임대표는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폭을 넓혀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로 되게 하며 그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안법≫을 페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녀성단체들의 교류를 확대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을 위한 유익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봉원익비서는 북과 남, 해외의 련대, 련합은 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합치고 선언리행을 위한 사업을 호상 지지해 주며 통일운동의 앞장에 설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공동행동과 보조를 취하며 각계층의 다무적, 쌍무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남조선 기독교교회협의회 림흥기국장은 민족자주성을 실현하려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민간차원의 만남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보도문과 일본당국의 력사외곡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존엄을 확고히 담보해 주는 자주의 기치이며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새 세기 조국의 미래를 약속해 주는 희망의 리정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세인이 공인하는 통일대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통일조국을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간직하였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는 21세기 첫해에 력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광범위한 정당, 단체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단합의지와 통일의 뜻을 합친 거족적인 대회합으로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거레의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고무추동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보도문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발표 1주년에 즈음하여 2001년 6월 15일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6.15공동선언발표 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본 민족통일대토론회에는 북측에서 여러 정당들과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대표 200여명과 남측에서 여러 정당들과 7대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 대표 200여명, 해외 각 지역동포 대표 20명 그리고 250여명이 방청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의의 깊은 전 민족적인 회합이었다.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의 뜻깊은 의의를 되새기면서 6.15 공동선언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 이행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한결같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남북 정상분들에 의해 채택된 6.15공동선언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새 세기에 우리 민족이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조국통일의 공동강령, 공동이정표로 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자주통일의 근본담보로 되며 조국통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식을 지니고 민족적 존엄과 민족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남과 북,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대, 연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다져 나가기 위하여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며 민족의 염원에 맞게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6.15 - 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6.15 공동선언을 실천적으로 떠밀고 나가기 위한 다양한 운동과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벌려 나감으로써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돌이 되는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굳게 표명하였다.

2001년 6월 15일
금 강 산

금강산에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7월 20일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 나라 제일의 명산인 금강산에서는 남북농민대표들과 관계부문간부들, 그리고 남측의 민화협과 통일연대, 7대종단, 민주노동조합총연맹,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청년, 학생추진위원회 대표들이 초대된 가운데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대성황리에 성공리에 진행되였습니다.

대회에서는 18일 개막식에 이어 6.15공동선언지지관철을 위한 통일연단이 진행되었으며 남북연예인들의 축하공연, 민속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남북이 어우러진 뜨거운 통일열기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남북대표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 정을 나누며 구룡연 등반을 하고 서로 헤어져야하는 아쉬움속에 남북농민통일대회폐막식을 가졌습니다. 폐막식에서는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의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회전과정이 보여줬듯이 이번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는 온 민족의 통일의지와 통일열망을 그대로 보여준 매우 뜻깊은 통일회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남북의 모든 대표들이 통일연단을 통해 한결같이 외세를 배격하고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실현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은 6.15공동선언이행만이 조국통일의 최선의 방도임을 확정한 것으로써 6.15공동선언의 정당성을 다시금 내외에 과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뿐아니라 남북연예인들의 축하공연과 남북대표들이 어우러져 서로 위해주고 정을 나누며 뜨거운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민속체육 및 유희오락경기와 구룡연등반과정 등은 남북이 풍속과 정서, 감정, 생각도 같은 한민족으로서 만나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확증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번에 금강산에서 진행된 남북농민통일대회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반드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준 역사적 계기였다 하겠습니다.

더우이 이번 대회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남북농민들의 통일대회합으로써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입니다.

통일연단의 토론들과 대회공동보도문에서도 밝혔지만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한 자주통일시행결의를 다지고 남북농민들의 통일연대조직을 내오기로 한 것은 농민들도 노동자들과 함께 조국통일의 당당한 주력군임을 내외에 선포한 역사적 쾌거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5.1절 노동자들의 통일대회와 6.15공동선언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그리고 이번에 남북농민통일대회 등 모든 것들이 6.15공동선언에 의해 마련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남북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가장 올바른 통일이정표임을 그대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6.15공동선언이행만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민족공동의 최상의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이행을 위한 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민족통일촉진운동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대표집필자 최성원)≫ 발췌

6. 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지난 1월에 북측은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의 기간을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7천만 민족 앞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북측이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북측에서는 조선반도의 통일을 말할 때 민족통일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언제나 조국통일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러므로 북측이 말하는 ≪민족통일촉진≫은 민족의 통일을 촉진한다는 뜻이 아니라 민족통일전선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며,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라는 개념은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촉진하는 기간이라는 뜻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예전처럼 남과 북(북과 남), 해외가 모여 통일행사만을 진행하자는 뜻이 아니라 폭넓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자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내려면 우선 통일전선전략 전반에 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현 시기 조선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일전선전략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남측에서 구축되는 지역통일전선이다.

첫째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에 관하여 살펴보자.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줄여서 ≪민족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의 통일전선전략이론에서는 이것을 ≪남북(북남) 통일전선≫이라고 불렀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말은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찾아내고 이를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한다는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따르는 사회운동세력이 조직적으로 결합한 전선이지만, 민족통일전선은 그 3대 강령에 따라 결집되는 전선이 아니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에 분산되어 있는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사상, 이념, 정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결집하는 전선이다.

우리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반국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이므로 그 중심은 북측의 정치역량이 된다.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구축은 북측의 정치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남측과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북측의 정치역량은 평양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김대중정권을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이 실현가능한 것임을 입증하였으며, 지금 그러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수립될 ≪민족통일기구≫는 바로 이 민족통일전선이 남북(북남) 정부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 그리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지위와 권능을 가진 정치기구로 조직화된 실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의 목표는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바탕은 무엇인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다. 6.15공동선언을 지지 · 찬동하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들이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결집된 새로운 전선이 민족통일전선이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분열세력의 방해책동을 꺾고 승리한 결과로 6.15공동선언이 성립된 것이다. 6.15공동선언을 제국주의의 조선반도 지배정책이 낳아놓은 산물이라고 보는 착오나 김대중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성립된 것으로 보는 착오는 모두 버려야 한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남북(북남) 정부당국 사이에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일단 돌파구가 열렸다. 그러나 남측의 정부만이 아니라 정당, 사회단체들까지 모두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은 아직 돌파구를 열지 못했다. 그렇게 된 것은 남측 정부당국이 방해 ·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 정부당국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된 것이 마치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으로 가능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정책의 통제범위 밖으로 벗어나서 남북(북남)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을 ≪범죄적 일탈행위≫로 규정하면서 짓누르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는 허용하지만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은 절대로 반대하고 있다. 남측 정부당국은 교류는 자기들의 ≪대북 포용정책≫을 실현하는 방도인 반면, 민족통일전선 구축은 북측의 대남정책을 실현하는 방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평가절하하거나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교류 자체를 금압했던 6.15공동선언 이전의 상황에서는 남북(북남)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 자체가 의의를 가졌지만,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누가 무엇을 위하여 교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 아니면 ≪대북 포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북(북남)교류를 추진하느냐가 선택적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남 교류를 추진하면 그것은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교류가 된다. 북측의 정치역량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북남)교류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유리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로, 남측에서 구축되는 통일전선에 대하여 살펴보자. 남측의 통일전선에는 두 종류가 있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과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 그것이다.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민족민주전선이라고 부르고,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먼저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민족민주전선)에 대하여 알아보자. 높은 단계의 통일전선의 3대 강령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하게 되면 그것이 곧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Democratic Revolution)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이 아니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DR)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개념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서술하겠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은 종국적으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인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생겨나기 이전인 1980년대에 정립된 통일전선전략에서는 남측 지역 통일전선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 당시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 정립되었던 남측 지역에서의 통일전선전략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해명하였다. 이미 1960년대부터 40여 년 동안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투쟁해오고 있는 각양각색의 민족민주전선은 구체적인 실정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전선이다. 그렇지만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불과 10년의 연륜밖에 갖지 못한 청소한 운동력이므로 다른 나라의 민족민주전선들처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 만한 사상적·조직적 준비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 아직 혁명운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3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전선운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물론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자기의 역량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장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남측에서 민족민주전선의 초기 형태의 조직이 생겨난 이후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리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지금 우리는 통일전선전략이론을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해명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통일전선전략을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낮은 단계의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을 말한다. 이것을 지역통일전선이라고 부른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통일전선의 일부분이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이 구축되어야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구축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측 지역의 통일전선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주동적으로 이끌어 가는 지역통일전선이다.

그렇다면 민족민주전선은 지역통일전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항일혁명시기에 조선민족의 통일전선운동사에 이룩된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민족의 항일혁명의 역사적 경험은 통일전선이 승리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역사에서 통일전선의 승리를 가장 빛나게 이룩했던 역사는 조국광복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주석이 항일혁명시기에 결성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조국광복회는 분산되어 있었던 민족의 반일역량을 반일자주화의 기치 아래 결집하고 조직화했던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조국광복회의 투쟁사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역사적 가르침을 받고 있다.

첫째는, 지역통일전선의 핵심을 세우는 문제이다. 조국광복회라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는 핵심역량은 조선인민혁명군으로부터 나왔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조국광복회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이것은 오늘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해준다. 지역통일전선의 구축은 그 전선을 이끌어나가는 핵심역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핵심역량은 민족민주전선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통일전선은 생각할 수 없으며, 민족민주전선이 든든하게 서있지 못하면 지역통일전선도 구축할 수 없게 되며 설령 구축한다고 해도 미약한 운동력이 되고 말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할 핵심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지역통일전선의 역할을 인식하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통일전선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족민주전선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우리는 그러한 그릇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민족민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해서도 안 된다.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변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을 배제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을 따르는 세력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편협한 경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지역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을 그 핵심역량으로 하여 구축되는

폭넓은 전선이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는 세력이라면 과거를 묻지 말고 어떤 세력이라도 손잡고 통일전선의 길로 나서야 한다. 원래 통일전선운동이란 통일전선에 참여하는 상대에게서 견인·포섭해야 할 측면과 통제·봉쇄해야 할 측면을 정확히 가려보면서, 견인·포섭과 통제·봉쇄를 능숙하게 전개하는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전선운동이다. 지역통일전선 안에서 친미예속정권을 퇴진시키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높은 수위의 주장을 한다든지,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은 교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지역통일전선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세력은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대상은 반통일세력이므로 고립·타격하여 소멸하여야 한다. 또한 김대중정권은 북측 정치역량이 구축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의 대상이므로 민족민주전선이 김대중정권을 자기의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족민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남측의 정당, 사회단체들을 지역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는, 통일전선의 강령을 설정하는 문제이다. 지난 날 조국광복회는 반일의 기치 아래 반일역량을 결합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었다. 그런데 오늘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반미의 기치를 든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까?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민족통일전선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를 내걸지 못하였다. 김대중정권이 반미자주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조건에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반미자주화운동을 전면에 배치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건설하기는 힘들다. 반미자주화운동이란 미군 철거투쟁으로 전개되는 운동인데, 남측에서 미군 철거투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결집될 수 있는 역량은 현재 민족민주전선에 포괄되어 있는 역량으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을 자기의 강령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민족대단결의 강령이다.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을 가지고 민족대단결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것은 6.15공동선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연방제 통일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운동력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민족통일전선이나 지역통일전선은 그것을 자기의 전략목표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민족통일전선과 지역통일전선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세력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합된 운동력으로 존재해야 한다.

다섯째는, 지역통일전선을 조직화하는 방도의 문제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조국광복회는 일제의 악랄한 탄압 속에서 반일투쟁을 벌어야 했으므로 비합법조직으로 조직되었으며 또 그렇게 활동했다. 그렇다면 지금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조직을 비합법조직으로 건설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통일전선조직은 어디까지나 합법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8. 제안 –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면하여 민족민주전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7천만 겨레의 가슴에 화해의 감동과 통일의 신심을 안겨주었던 그 장엄한 역사를 되살려내야 한다. 수 백만, 수 천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물결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국주의세력과 남측의 반통일세력은 6.15공동선언 자체를 파탄시켜보려고 별별 교묘한 술책을 동원하며 날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민주전선은 주저하지 말고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시간은 촉박하다.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을 일회성 연례행사쯤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나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사업은 민족통일전선을 촉진하는 운동기간의 첫 사업이 될 것이다. 그 사업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조직·정치사업이다. 그 사업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북남) 정당, 사회단체 사이의 다방면적 교류를 힘있게, 성대하게, 그리고 진공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이다. 그 사업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이 마감되는 2001년 8월 15일, 우리는 올해도 8.15 통일행사를 예견하고 있다. 올해의 8.15 행사는 예년의 통일행사와 달리 이 운동기간 동안 민족통일전선 구축사업을 승리적으로 결속짓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만일 8.15 통일행사를 남북(북남)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공동행사로, 민족화해의 대축전으로 만든다면, 새 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8.15는 조국통일운동사에서 가장 뜻깊은 8.15가 될 것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민족민주전선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임무를 완수하자. 승리를 향한 민족민주전선의 장쾌한 일보전진, 이것이 올해 여름을 구슬땀으로 수놓을 전선일군들의 투쟁목표다.

남측 8.15기념행사 풍성



올 남측의 8.15 광복절 기념행사는 어느 해보다 풍성하다.

우선 남측의 통일운동세력들을 총망라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추진본부)≫에서는 13, 14일 이틀동안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첫날 열리는 국제회의에는 백낙청(서울대) 교수가 ≪분단체제극복운동의 세계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부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시카고 대학) 교수는 ≪The New Danger in Korea≫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둘째 날에는 이미경(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반도 화해와 세계평화≫라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학자로는 이철기(동국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대학원) 원장, 박순성(동국대) 교수, 정일용(연합뉴스) 논설위원 등이, 해외 학자로는 월든 벨로우(Walden Bello, Focus on the Global South)와 팀 사베지(Tim Savage, 노틸러스 연구소) 연구원 등이 각각 주제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본부는 15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강둔치공원에서 기념식을 갖고 광복절 46돌을 기념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기념식에 앞서 10시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한 ≪통일단축마라톤≫을 진행하고 오후 4시부터는 통일노래자랑, 거리행진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13일부터 통일대축전 전야제 행사를 화려하게 펼친다.

13일에는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8시 연세대에서 문화한마당을 진행한다.

14일에는 오전 11시 탑골공원에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 저지, 역사왜곡 규탄대회≫와 오후 3시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통일선봉단≫이 서울로 복귀해 합류할 예정이며 한총련 서울총학생회연합(서총련)의 ≪반미유인물 100만장 배포≫를 결산한다. 또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의 ≪전국 미군기지 순방단≫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합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연세대에서 종교, 청년학생, 노동자 등 각 부분별 결의대회가 있으며 밤 10시부터는 모두가 결합한 ≪2001 통일연대 대축전≫이 연세대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의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

11일에는 ≪서울통일연대≫가 11일 오후 4시부터 인사동 문화의 거리에서, ≪목포통일연대≫는 오후 7시 하당 평화광장 야외무대에서, ≪울산민족통일대축전 추진위원회≫는 오후 7시부터 문수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기념대회와 문화공연, 시민노래자랑 등이 각각 열린다.

12일에는 ≪경기통일연대≫가 오후 6시부터 수원 효원공원에서 통일한마당을 진행하며, ≪인천통일연대≫는 오후 2시 부평역 광장에서, ≪용산.종로.중구지역≫은 오후 4시부터, ≪구로.금천.광명 통일연대≫는 오후 6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연다.

15일에는 ≪부천지역추진본부≫에서 오후 6시부터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부천시민통일음악회≫를 열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을 주제로 열 예정이다.

이번 8.15 행사의 특징에 대해 부천시민센터 이화자 대표는 ≪올해는 지역에서 통일행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큰 특징이며 관변단체와 재야통일운동세력, 시민들이 참여해 하나의 대회를 치르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올 8.15행사는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각계각층과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11

전야제, 2만여명 모여 통일열기 발산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지난 13일 밤 연세대에서 연 문화마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8.15 민족공동행사가 시작되어, 14일 밤 10시30분에 통일연대가 주최하는 ≪2001 민족통일 대축전(대축전)≫ 전야제가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전야제 본행사에 앞서 8월 초 구성되어 전국을 혹은 각 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홍보와 다양한 행사를 가져온 통일대행진단과 통일선봉대들의 환영식이 있었다.

환영식에서 통일대행진단 노수희 단장은 ≪각 지역에 통일의 열망을 전하며 어제 서울에 입성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국놈을 몰아내어 자주 통일을 이룰 것을 만방에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통일선봉대 김명수 대장은 ≪노동자계급은 이제 진심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쥐고 나아가야 한다≫며 ≪그 중심에 노동자계급이 우뚝 서고 청년, 학생, 농민이 그리고 이 땅의 양심이 함께 조국을 통일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종린 통일연대 상임의장은 ≪통일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철조망과 지역도 정견의 차이도 뛰어 넘어 통일의 염원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했다.

또한 이종린 상임의장은 ≪우리 모두는 조성되고 있는 자주와 단결의 기세에 이어 외세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전야제에는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의 정치연설과 이어 연세대학교 장정규 총학생회장이 나와 대축전 전야제를 연세대에서 다시 치르게 된 것에 대한 감회를 얘기했다.

한편 13일에 이어 14일 낮 종대규모 반미집회를 갖고 연세대에 재집결한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등은 전야제 본행사 전에 부문별 결의대회를 가졌다.

때문에 연세대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젖어 전야제로 이어졌다. 전야제 행사에서도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신명난 대동놀이판≫이 되어 2만여명의 참가자들은 폭우 속에서도 한데 어우러져, 대축전 전야제는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마쳤다.

조성현 기자(shcho@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15

광복56돌 통일연대 기념식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광복 56돌 통일연대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념식에는 오전부터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15,0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방규(통일광장)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금 이 순간 서울과 평양에서 ≪2001 민족통일대축전≫이 남북공동행사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광복의 정신, 민족자주의 정신이며 통일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역설하고, ≪56년전 조국해방을 이루었던 그 기세로 2000년대 통일의 길을 열어 갑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승환(9기 한총련) 의장은 ≪이제 우리의 과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심점으로 사상과 정견, 단체의 이익을 떠나 통일운동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맞아 전국각지에서 온 국민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승환 의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라면 누구라도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보법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뉴욕에서 있었던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을 참관하고 돌아온 조현기(양민학살경남대책위) 위원장은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위원회가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또한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50년 맺힌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함께 참가한 전국각지의 6.25양민학살 유족 10여명은 ≪50년 맺힌 한을 통일로 풀어다오≫를 외치며 남북이 사는 것은 조건없이 통일하는 길 뿐이라는 데 공감했다.

기념식은 홍순석(한국청년단체) 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은 오후 3시 ≪2001 민족통일대축전≫ 광복56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둔치 금성무대로 이동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15

56돌 광복절, 축제의 장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추진본부)≫는 올해로 56돌을 맞는 광복절을 기념하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15일 오후 여의도 금성무대에서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각계 각층을 총망라한 사람들이 참석해 ≪하나의 대회≫라는 강한 인상을 주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철(추진본부 상임본부장, 천도교 교령) 본부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은 화해와 평화, 통일을 향한 시작의 종소리≫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정신을 모아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자≫고 대회를 열었다.

대한적십자 서영훈 총재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은 우리 민족 스스로가 풀어 나가야 한다고 전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유곤 부위원장은 노동자가 통일운동의 중심에 서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미국 친우 봉사회(AFSC)≫의 조셉 거슨은 ≪미국의 MD정책은 아시아의 안보와 평화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이러한 부시 정권의 정책으로 인해 한반도는 모처럼 맞은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셉 거슨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공동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학생들과 관변단체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념식이 끝나자 이어 ≪통일노래한마당≫이 열렸다.

이 한마당에서 노래와 음악이 나오자 참가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춤을 추고 서로의 어깨를 걸고 통일열차를 만들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를 부르자 참가자들은 손뼉치기로 응답하고, 가수 송대관씨가 ≪네박자≫라는 노래를 부르자 학생들은 무대로 달려가 환호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한 참가자는 ≪축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전하고 다채로운 행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편 이날 대회를 끝내고 참가자들은 신촌까지 행진을 벌이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15



역사적인 8.15평양공동행사 시작

평양시민들, ≪뜨겁게 환영합니다≫



≪한 동포로서 뜨겁게 환영합니다.≫

오늘(15일)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이 함께 한 역사적인 8.15 56돌 평양공동행사가 시작되었다.

남측 대표단 440명을 태운 아시아나 801호편 등 2대의 비행기는 12시 7분 인천공항을 이륙해 12시 55분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했다.

순안공항에 착륙한 순간 붉은 꽃술을 든 북한 주민들의 대열을 보고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추진본부)≫ 김종수 상임집행위원장과 신창균 옹 등 대표단 주석단이 비행기를 내려 영접나온 북측 조규일 조국통일민족전선 중앙위 서기국장과 김령성 북측 준비위 부위원장 등의 영접을 받았다.

이어 화동들의 꽃다발 증정과 평양취주악단의 연주가 울리는 가운데 남측 대표단은 평양시민 환영단과 인사를 나눴다.

꽃을 든 화동들과 평양취주악단, 꽃술을 든 평양시민 2천3백여명은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남측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했다.

특히 임수경씨가 환영단을 지나갈 때는 열렬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으며 손을 붙잡는 사람들도 많았다.

임수경씨는 ≪1989년에 왔을 때 남북 청년학생들간의 민간교류를 열었다면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12년만에 다시 왔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식장에 나온 북측 김령성 부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동포로서 뜨겁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남북이) 심정은 같은데 겨레의 한마음을 담아서 통일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측 대표단이 예정 일보다 하루 늦게 지체되어 도착한데 대해 ≪11시전부터 (공항에) 나왔는데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환영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축전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축전행사는 조절해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순안구역 오리털가공공장에서 일한다는 최화옥(23세, 여)씨는 오전 11시부터 남측 대표단을 기다렸다면서 ≪반갑습니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수줍게 웃었다.

평양시 각 구역 노동자들로 구성되었다는 평양취주악단의 양경섭(평양화력발전소 근무) 지휘자는 ≪그저 한마디로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오늘을 기다리는 마음은 남조선인민들도 같을 것≫이라며 ≪심정은 같은데 겨레의 한마음을 담아 통일이 돼야하며,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데 하나같이 나서자≫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은 환영 인파의 영접을 받고 13대의 버스편으로 고려호텔에 들어가 늦은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신창균옹은 ≪48년 방북이후 53년만에 처음인데 감개가 무량하다≫며 ≪고려호텔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작았는데 이렇게 커졌고 평양 모습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오후 8시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릴 만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불분명하다.

6박7일간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16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일제 침략 및 역사왜곡 전시회≫와 부문별 대화, 특히 종교별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남측 대표단은 현재 3대헌장탑 앞 공동행사 참가를 둘러싸고 논란중이다.

3대헌장탑에는 북측과 해외동포 대표단 그리고 환영을 나온 평양시민들이 운집해 남측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통일뉴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16

≪2001 민족통일대축전≫, 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려

- 남측 대표단은 통일연대 소속 인사들 위주로 일부만 ≪참관≫하는데 그쳐



≪더 너그럽게 더 폭넓게 연대하고 더 억세게 더 뜨겁게 손잡고 나아갑시다.≫

≪2001 민족통일대축전≫이 평양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에서 남.북.해외동포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7시 20분에 성대히 열렸다.

8.15 광복절 행사를 남.북.해외동포가 함께 치룬 것은 분단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남측 대표단은 통일연대 소속 인사들 위주로 일부만 ≪참관≫하는데 그쳐 온전한 남.북.해외동포의 공동행사로 치뤄지지는 못했다.

≪통일의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기다려왔던 북측 환영단의 열렬한 환영속에 남측 대표단의 일부가 조국통일 3대헌장탑 근처에 도착하여 행진함으로써 행사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남측 대표단과 해외동포 대표단들이 차례로 긴 거리를 행진했고 어린이, 여성, 주부 등 다양한 평양시민들이 연도를 메운 채 ≪조국통일≫ 등을 외치며 열렬히 환영했다.

북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용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위원장,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 오익제, 여원구 등 주요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령성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부위원장의 개막선언에 이어 단일기 게양의식으로 행사의 막이 올렸다.

김영대 민화협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가한 북과 남, 해외동포 여러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며, 자주권은 민족의 생명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스크바 선언은 자주성의 의지를 대외에 선포한 자주선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대 위원장은 ≪민족의 자주권을 억압하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일본의 군국화 야망을 짓부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2001 민족통일대축전이 훌륭한 성과를 거둬 자주통일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해외동포를 대표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총련) 박재록 부위원장이 연설했으며, 이어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경호 부위원장이 연설했다.

안경호 부위원장은 ≪2001 민족통일대축전은 6.15 공동선언의 승리이며 민족의 승리, 애국의 승리≫라고 성격을 규정짓고,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둘이 아닌 하나를 위해 분열이 아닌 통일을 위해 더 너그럽게 더 폭넓게 연대하고 더 억세게 더 뜨겁게 손잡고 나아갑시다≫고 말했다.**

안경호 부위원장 역시 나라의 자주권과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주석단 참석자들은 어린 학생들과 함께 기념식수행사를 가진 뒤 문화공연에 참석했다.

어스름 녘에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시작된 문화공연은 부채춤을 시작으로 양강도춤, 가수 조청미씨의 노래 ≪통일의 문을 함께 열자≫, 농부춤 등으로 이어졌고 가야금병창도 있었다.

문화공연 마지막에는 남북 참가단이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대동놀이를 진행했다.

대회를 마친 후 김영대 북측 준비위 위원장은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북.남.해외가 함께 새 세기 첫 광복절에 대축전을 진행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 통일운동사에 크게 아로새겨질 대경사입니다. 앞으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서로 손을 잡고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개척해 나갑시다. 앞으로 난관도 있고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화합하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지난해 9월 북으로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이 여러 명 참석했으며 남측 인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남측 권낙기씨는 ≪**대화**를 못나누고 말없이 끌어안고 아수라장이 되어 안내원들에게 쫓겨났다≫**며 ≪통일의 길이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고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평소 친아버지처럼 지낸 어르신들인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중국 산동성 재남시에 거주하는 해외동포 재중총연합회 소속 이신자(64세, 여)씨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한 것은 영광이며 북.남.해외 첫 만남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통일이 멀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평양=통일뉴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16

대축전 폐막식, 남북 공동행사 못가져



16일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 해외동포가 함께 준비한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의 폐막식이 남측의 공식적 참가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일부 남측 대표들이 폐막식 이후 경축 야회에 참관하기도 했다.

남측 대표단은 16일 아침부터 전체 모임을 갖고 ≪조국통일 3대 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될 예정인 폐막식 참관 여부에 대한 입장들을 조율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전 일정에 들어갔다.

남측 대표단은 오후 일정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인 고려호텔 2층 영화관에서 전체모임을 갖는 한편 주석단도 별도의 회의를 개최했으나 대축전 폐막식이 끝나고 식후 문예공연과 연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폐막식이 진행되고 있는 3대헌장 기념탑 앞이 아니라 통일거리 입구인 낙랑구로 가서 북측 대표단들과 만나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자≫는 단일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남측의 일부 인사들이 폐막식후 경축 야회에 참석한 뒤였으며 식후 행사도 모두 끝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추진본부는 뒤늦은 결정으로 인해 어렵게 도출한 최선의 방안을 실현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에 따라 추진본부 주석단은 밤늦도록 실무회의를 가졌으며 김종수 상임집행위원장은 ≪오늘까지 이르는 개폐막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며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종수 신부는 ≪추진본부 실무팀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북쪽에 무슨 논리적인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예의를 충분히 갖춰 입장을 전달키로 했고 북쪽과 이제까지 상황을 보고 앞으로의 일정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발전부터 문제가 된 행사개최 장소 문제가 결국 대회 이틀째인 16일까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남측 대표단 내부의 이견과 남북 대표단간의 마찰만을 남기고 결국 대축전에 남측의 참여가 무산된 채 마무리짓게 된 것이다.

평양=통일뉴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17

통일의 열정, 청년학생 통일한마당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참가 이틀째인 남측 대표단은 평양에서의 둘째 날을 맞아 남북 해외 대표단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새 세기 청춘들의 통일연대무대≫를 가졌다.

남측 대표단은 늦은 만찬을 갖고 평양에서의 첫밤을 보낸 뒤 16일 아침식사를 마치고 전체가 모인 가운데 이후의 일정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전원 청년학생 ≪통일연대무대≫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내일(17일) 대동강 유람과 평양 견학 등을 진행하고 18, 19일에는 묘향산과 백두산을 두 개조로 나누어 탐승할 예정이다.

청년중앙회관에서 오전 11시에 시작된 ≪통일연대무대≫는 북측과 남측의 청년대표들의 인사로 시작되어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북측의 최일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비서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장으로 달려온 남과 해외의 청년학생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무엇보다도 21세기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자≫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있고 온 겨레와 우리 청년학생들의 단결이 있는 한 우리 대에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의 전상봉 한청 의장은 ≪애국의 열정에 피끓는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총련 대표로 나선 천승훈 원광대 총학생회장은 ≪**예전에는 대여섯 번씩 비행기를 갈아타고 왔으나 이번에는 한번에 왔다**≫**며**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강조했다.

최명학 김책공대 총학생회장은 북측 청년학생대표의 결의 발언문을 통해 ≪새 세기는 조선의 통일의 세기이며 그 주인은 우리 북과 남, 해외의 청년학생들≫이라고 격정적으로 밝혔다.

≪통일연대무대≫에서는 ≪통일아리랑≫을 시작으로 노래와 무용 등이 이어졌으며 전대협동우회 정청래 부회장이 무대에 나와 임수경씨의 89년의 방북을 회상하며 임수경씨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행사는 낮 12시 15분 주석단의 퇴장으로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은 서로 헤어지기 아쉬워하며 자리를 정리했다.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남북의 장금화(**김일성**대학 지리학부 4학년) 학생과 윤범필(경희대 NGO 대학원) 학생은 서로 손을 꼭잡고 행사장을 나오기도 했다.

장금화 학생은 ≪많은 일도 물론 있었지만 이번 청년학생들의 통일연대무대는 통일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자리였다≫며 ≪서울 친구들을 만나 좋았고, 통일도 빨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과의 만남이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만나는 사람도 준비가 더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오늘 행사장 한켠은 청년영웅도로 집단경쟁 우승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주로 북한의 어려운 시절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에 청년영웅도로를 내기 위해 겪었던 생활상의 어려움과 투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내용들이었다.

평양=통일뉴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17

다양한 행사와 부문별 대화 가져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참가 중인 남과 북 해외 대표단은 인민문화궁전에서 ≪일제의 만행 및 역사왜곡책동 공동사진 전시회≫를 관람하고 부문별 만남을 가졌으며 소속 종단별로 종교 행사를 가졌다.

16일 오전 청년학생 통일 한마당을 가진데 이어 옥류관에서 ≪평양랭면≫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남북, 해외 대표단은 인민문화궁전에서 남측이 준비한 전시회를 관람하고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왜곡을 규탄하는 남, 북, 해외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행사를 실무적으로 준비한 김민철(민족문제 연구소 연구실장)씨는 이 행사는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이 주최했으며, 일제의 만행과 이 만행을 은폐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밝히고 공간이 좁아 준비한 전시물의 3분의 2밖에 전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동결의문에서는 ≪과거 범죄행위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고 철저히 보상하며 역사왜곡 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할 것≫ 등을 결의했다.

바로 부문별 대화에 들어간 남북, 해외 대표들은 ≪경제인≫, ≪여성≫, ≪노동≫, ≪농민≫, ≪민화협≫, ≪통일연대≫, ≪범민련≫, ≪문학≫, ≪민족종교≫ 등으로 나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청년학생들은 오전에 행사를 가진 관계로 부문별 모임은 개최하지 않았다.

경제인들의 대화에서 남측 대표들은 노재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영본부장이 북한 경제정보 센터 창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는가 하면 북에 지원하는 비료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남해화학 손선근 대표는 원활한 비료 공급물량 파악 등을 위해 북측에 조사단 파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운업 북측 민경련 회장은 ≪상호 간에 실리가 있는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들을 위주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북측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 부문별 모임은 아직 구체적인 안건의 성사보다는 상호 관심사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류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민 대표들은 즉석에서 노래와 춤으로 서로 어울리기도 했다.

한편 각 종단별로 해당 북측의 종교 기관에서 남북 공동의 종교 의식이 거행되었다.

불교의 경우 명진스님에 따르면 광법사에서 남측의 불교와 원불교 대표 30명과 해외 불자 50명,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소속 신도 300명 등이 함께 모여 공동법회를 갖고 불교도들이 앞장서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부문별 대화에 이어 5시 40분부터는 봉화예술극장에서 문예공연이 열렸다. 남측의 이정렬 가수가 첫 무대를 ≪내나라 내겨레≫ 등의 노래로 열었으며 이어 북측의 공연들도 이어졌다.

중간에 89년 방북하여 구속되었던 ≪통일의 꽃≫ 임수경씨가 등장하여 고 문익환 목사의 시 ≪꿈을 비는 마음≫을 낭독하여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날 문예공연에서는 독특한 무대장치들이 돋보였는데 피아노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가 하면 눈이 내리는 형상을 비춰주는 등 관람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평양=통일뉴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8-17

통일을 위한 련대, 련합 허심탄회하게 론의

-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등 계층별로



≪반갑습니다.≫, ≪잘 있었어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남측대표와 해외대표 그리고 북측 대표들속에는 처음으로 만난 대표들도 있었는데 서로 낯을 익힌 대표들도 많았다. 반가움을 표시하며 굳은 악수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올해 6월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상봉하여 인연이 있는 대표들이다.

특히 로동자대표들속에서 서로 낯을 익힌 인사가 많았다.

조선직업총동맹과 민주로총, ≪한국로총≫은 금강산에서 작년 12월에 북남로동자통일대토론회를, 올해 5월에는 북남로동자 5.1절통일대회를 가졌다.

북남의 로동자단체들은 올해 3월에 련대기구인 ≪조국통일을 위한 북남로동자회의≫를 결성하는 등 조국통일을 위한 북남로동자들의 공동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축전기간에는 북남로동자회의 대표자회의, 북남농민대표들의 상봉, 새 세기 청춘들의 통일련대무대, 북남종교단체모임 등의 부문별회합들이 진행되였다. 6.15공동선언발표후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등 이미 련대, 련합의 큰 걸음을 뗀 단체들은 물론 그 이외의 단체들도 자기 실정과 조직의 특성에 맞게 련대, 련합의 길우에 올랐다.

북과 남, 해외동포녀성단체들은 한자리에 모여 통일연단을 펼쳤다. 이는 분단사상 처음되는 일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과 ≪한국녀성단체련합≫, 반미녀성회, 전국녀성농민회련합 등의 남조선 녀성단체들, 해외의 녀성단체들이 참가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녀성단체들은 작년 12월 도꾜에서 진행된 ≪일본군성노예녀성국제전범법정≫에서 공동으로 기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련대활동을 벌린바 있다. 녀성운동은 주제별로 공동행동을 계획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아직은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폭 넓은 운동으로 발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때의 회합을 계기로 하여 이번에 련대강화를 위한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북남녀성통일연단에서는 ≪민족자주와 녀성들의 과업에 대하여≫, ≪민족자주와 녀성≫, ≪북과 남, 해외녀성들간의 련대문제에 대하여≫, ≪민족대단결과 녀성≫이라는 제목들로 토론이 진행, 녀성들의 과업을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6.15공동선언관철에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바로 인식하고 시대앞에 지닌 자기 사명을 다할데 대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였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최창숙부위원장은 ≪이번 북남녀성통일연단은 자주통일성업의 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녀성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겨레앞에, 민족앞에 힘있게 과시하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였다.

조선신보

아쉬움을 남긴 평양의 마지막 밤



8월 20일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단은 평양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냈다.

오전 10시 참가단이 찾은 곳은 주체사상탑. 북이 자랑하는 대형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평양시내 어디에서 보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주체탑은 모두 70층으로 이루어졌다. 탄생 70돌을 기념하는 숫자다. 높이는 170미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탑은 모두 북에서 생산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건설에 사용된 대리석은 모두 2만 5천 5백 67개로 해설원의 설명에 의하면 ≪70돌을 맞은 김주석의 산 날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한다.

참가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평양시내는 사회주의 계획도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했다. 주체탑과 일직선 상에 놓인 인민대학습당이 눈앞에 펼쳐졌고, 대동강 줄기와 멀리 능라도 경기장, 유경호텔 등이 손에 잡힐 듯 들어왔다.

1990년 고위급회담 때 평양을 방문한 적 있는 민화협 이병웅 상임의장은 ≪11년 새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외향적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북이 자랑하는 건물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점식식사는 통일거리에 위치한 평양 단고기집에서 이루어졌다. 유명한 평양 단고기를 시식하기 위해 늘어선 남측 참가단은 사뭇 가슴 설레는 눈치였다. 개갈비찜과 허벅다리찜, 그리고 남자들에게만 제공된 황구신, 마지막의 탕에 이르기까지 평양 단고기는 비린내 하나없이 입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었다. 북의 단고기는 당국 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요리. 탕과 수육 중심의 남측과 달리 요리방법도 다양했다. 참가단은 모처럼 여유로움을 즐기며 평양에서 맞은 마지막 더위를 달랬다.

대표단은 오후에 만경대소년학생궁전을 향했다. 어린이를 하늘처럼 여기는 ≪어린이의 천국≫ 북이 자랑스레 내세우는 시설이다. 소년학생궁전은 일종의 학생들의 과외활동 장소다.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이곳에서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학습을 연마한다. 학생궁전 덕택에 북 청소년들의 1인 1기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측 대표단이 소년학생궁전을 도착하자 소년단원 학생들이 소년단 특유의 경례를 붙인 뒤 대표단을 안내했다. 대표단은 가야금, 무용, 한국화, 태권도, 수영 등 다채롭게 진행되는 학습광경을 관람했다. 이윽고 대강당에서는 남측 대표단을 위한 소년학생궁전 단원들의 공연이 올려졌다. 독창, 중창, 독주, 합주, 무용 등 공연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다. 연신 박수갈채를 보내는 남측 대표단에게 북의 안내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이 왕입니다**. 모든 정책에서 우선 고려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문제입니다. 그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소년학생궁전 학생들에게는 간식과 음료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통일된 조국을 번창시킬 미래의 주역 아니겠습니까?"

북측 사회를 이해하는 코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라나는 새세대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에 둔다는 것이다. 그것에서 우리는 북측 사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의 밤은 양각도호텔에서 진행된 만찬으로 장식됐다. 오후 8시에 시작한 이날 만찬은 첫날 북이 주최한 연회에 답하는 의미에서 남측이 주최한 것이다.

만찬에서 남측을 대표해 김동완 목사가 인사말을 했다.

≪6.15 선언 실천을 위해 민간이 손잡고 나서야 합니다. 남과 북 어느 반쪽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6.15 선언 실천을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깁시다.≪

북의 답사는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했다.

≪**이번에 평양에** 340여 명이 방문해 호상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고 평양의 곳곳을 참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사상, 제도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단합을 실현합시다.≪

테이블마다 남과 북의 참가단들이 섞여 앉았다. 그들은 대표들의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술잔을 들었다. ≪**조국통일을 위하여**!≪ 40도짜리 백두산들쭉술과 50도짜리 찹쌀술이 순식간에 동이 났다. 잔뜩 취기가 오른 참가단은 곳곳에서 어깨를 걸고 노래를 부르며, ≪**조국통일만세**!≪**를 외쳤다**.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었다.

만찬은 밤 11시가 다 돼 끝이 났지만 술자리는 숙소인 고려호텔로 돌아와서도 이어졌다. 호텔 맥주집마다 가득 들어찬 남북의 손님들은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눈치였다. 첫날부터 숱한 논란과 진통이 이어졌지만 헤어지길 아쉬워하는 그들은 새벽까지 술잔을 부딪혔다.

한편 남북공동보도문을 준비해온 남북측 실무팀은 내년 8.15 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고 북측 대표단을 서울로 보낸다는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정을 모두 마친 남측 대표단은 21일 오전 11시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12시에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평양=안영민 기자(민족21)
통일뉴스 2001-08-21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북, 남, 해외 공동보도문

새 세기의 첫 광복절을 맞으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였다.

남측과 해외측대표들이 8월 21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측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종교인, 경제인, 문화인 등 각계층과 상봉 및 련대모임을 가지고 여러 곳을 참관하였으며 공동행사들도 진행하였다.

민족의 깊은 관심과 기대속에 나라가 분렬된 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해 나가려는 겨레의 절절한 념원과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거족적인 통일행사였으며 민족통일운동사에 커다란 자욱을 남긴 자랑찬 민족대단합의 마당이였다.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이번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통해 계속 철저히 리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1.북과 남, 해외 대표들은 온 겨레의 성원과 지지속에 채택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새 세기 조국통일의 유일한 리정표로, 애국애족의 통일강령으로 재확인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6.15북남공동선언실천에 적극 떨쳐 나서기로 하였다.

2.북과 남, 해외 대표들은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외세의 간섭과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며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민간단체들이 적극 련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3.북과 남, 해외 대표들은 평양에서 진행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8.15광복절 57돐에는 평양과 서울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며 서울행사에 북측대표단이 참가하기로 하였다.

4.북과 남, 해외 대표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대단결을 실현하며 각계층의 련대, 련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급에서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함께 필요한 교류사업도 적극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이번 축전기간에 단체별, 계층별 상봉과 회합에서 토의하고 협의한 문제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5.북과 남, 해외 대표들은 이번 민족통일대축전기간에 민족공동행사로 진행된 일제의 만행 및 력사외곡책동을 폭로하는 북남공동사진전시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끼친 만고대죄를 폭로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형식의 공동행사들을 계속하며 당면하여 독도령유권을 확고히 지켜 나가기 위한 민간급단체들의 공동행동을 강화하며 이와 관련한 학계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주체90(2001)년 8월 21일
평양



2001민족통일대축전 남북여성 공동결의문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이 6.15 공동선언의 가치 높이 민족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들은 새 세기 첫 해 광복절인 8.15에 평양에서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민족자주선언, 통일선언, 대단결선언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실천을 다시 논증하고 그 실현을 위한 남과 북, 해외 여성들의 과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이정표인 6.15공동선언 실현에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을 바로 인식하고 시대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 여성들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확고히 지지고수하며 그 실현을 위한 범민족적인 여성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세기가 교체되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갈 것을 내외에 선포한 역사적인 문건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을 더 철저히 실현하는 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남과 북, 해외 여성들의 단합된 힘으로 안팎의 도전으로부터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옹호하며 21세기 첫해인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힘차게 노력할 것이다.

2. 우리 여성들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운동을 광범하게 벌려 나갈 것이다.

민족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지키는 길에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전제조건이 있다. 민족의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의 권리와 이익,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고 외세에 의존하려는 세력들과 투쟁해야 한다. 우리들은 6.15 이후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외세의 간섭과 전쟁위험을 종식시키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외세의 범죄를 철저히 결산할 것이다.

우리들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기도도 반대한다. 또한 우리들은 일본 제국주의 부활음모에 대한 강한 분노와 반대를 표하며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

3. 우리 여성들은 공동선언을 지지해 나서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여성들과 서로 힘을 합치고 단합하며 함께 통일의 길로 나갈 것이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애국애족하며 통일을 바라는 여성들이라면 단체 소속을 가르기에 앞서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을 공동의 이념적 기초로 하여 뜻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며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속에서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전체 우리 여성들은 6.15 공동선언을 높이 들고 민족 주체적 힘으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 서로 단합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조국통일 만세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8월 16일
평양



남북 청년학생 공동 합의문

새세기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평양에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하게 성사시켰다.

남측 대표단은 8월 21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면서 여러곳을 참관하였으며 북측의 노동자, 농민, 종교인, 청년학생, 여성, 경제인, 문화인 등 각 계층과의 연대모임을 가졌다.

청년학생들은 <새세기 청춘들의 통일연대무대>를 남,북,해외 전체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난 6월 15일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이후 또 한번의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어 냈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교류를 성사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뜻깊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마치며 남과북의 청년학생들은 이번 대축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615공동선언 실천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의 청년학생 대표들은 온 겨레의 지지와 성원 속에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서 확인된 민간교류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10월 20일경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단 정부의 승인여부, 금강산 배편 사용여부 등 명확한 성사여부를 최소한 개최 한달 전에 북측에 전달한다.

2. 성사가 확정되면 대회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10월 초,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는다.

3. 규모는 남북 각각 500명의 대표단과 100여명의 참관단, 문예단, 기자단으로 구성한다.

4. 대회의 내용은 1차와 2차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금강산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한다.

2001년 8월 20일 평양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년 민족공동행사 청년학생추진위원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학생위원회, 범청학련북측본부, 민화협



2001민족통일대축전 결과보고



2001민족통일대축전은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6.15 선언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시키고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교류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통일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고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민간차원에서 합의하여 당국간 회담을 지원하는 민간의 역할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 공동보도문 합의 내용
-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재확인
-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민간단체들이 적극 연대≫하기로 하여 6.15 선언에서 다루지 않은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민간차원에서 합의.
- 2002년 서울행사에 북측 대표단의 서울 방문 약속
- 다방면적인 교류협력 활성화 약속
- 일제 만행에 대한 공동조사와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학술토론회 개최 등 일본문제 공동대응

2. 남북의 종교간 대화와 교류
- 장충성당에서는 사상처음으로 우리의 성직자, 수도자, 신자가 북측의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드려 남북 종교교류를 한층 진전시킴.
- 개신교도 봉수교회에서 8.15연합예배와 주일예배(8월 19일)를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함께 드렸으며, 금년 9월 캐나다에서 북미주, 남, 북여성회의, 내년봄에 글리온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금년 10 월 중에 금강산에서 6.15정상회담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협의함.
- 불교계는 사상 처음으로 남북해외의 불교계와 원불교의 공식 대표단이 합동법회를 열었고, 남북 문화재 공동관리를 위한 사찰 복원의 차원에서 북측의 사찰에 단청원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유교도 향교보존을 지원하기로 함.
- 민족종교는 10월 3일 개천절을 맞아 단군릉에서 민족공동행사 개최합의
- 천도교는 분단 56년 이후 최초로 남북천도교 합동시일식을 평양교 당에서 공동봉행하여 남북천도교의 신앙친화적인 교류를 강화하였 고 포덕 142년 개천절 행사에 남북천도교인이 적극 참가하기로 하 였음.

3. 언론, 문화예술 교류
- 작가들은 남북문학작품 낭송회를 추진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
- 예총은 내년 10월 예총회관 준공식 때 북측 예술인들 방문과 각 장르별 예술인 교류 활성화에 합의
- 한국기자협회와 조선기자동맹은 최초로 남북 기자단체 접촉과 언론교류 합의

4.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평화촌(Peace Camp) 개최
- ≪평화촌(Peace Camp) 개최 추진위원회(가칭)≫는 10월초에 경의선 철도의 연결지점인 비무장지대 도라역에서 규모와 일정에 상관없이 북의 작가 예술인들을 반드시 참가하는 평화촌 행사 개최에 대해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장철 위원장과 합의

5. 사회 각분야의 교류
- 경제계는 북측에서 남북경협을 책임지고 있는 민경련의 정운업 회장과 만나서 남북경협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
- 여성들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열렸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이후 처음으로 8월 1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남북여성토론회 개최, 남북여성통일대회를 갖기로 합의.
- 청년학생들은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 개최 합의
- 남북의 노동자들이 만든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도 1차 대표자 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과 산업별 지역별로 노동자 교류를 확대할 것을 합의
- 농민들은 분유, 옥수수, 겨 등을 상호교환하고 남측의 농민단체서 북측의 농민단체를 초청하는 문제를 추진하기로 약속.
- 어민들은 남북어민 대동제와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실무접촉 갖기로 약속

6. 구두 합의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
- 서울과 백두산 삼지연 직항로 개설을 관계 당국에 건의
- 추석 때 생사확인된 이산가족 선물교환을 관계기관에 건의
- **김정일** 위원장 답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노력

통일뉴스 2001-08-27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지금 전국민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정면 반대하면서 반통일적이며 반민중적책동에 미쳐 날뛰는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우리 민중은 칠천만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성과 열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은 민심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6.15공동선언과 그 이행을 결사반대하면서 남북간에 냉전기류를 몰아 오며 반북대결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애당초 자주적 평화통일을 원치않는 이회창은 지난해 4월 남북최고위급회담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가 발표되자 이를 <총선용 신북풍사건>으로 매도하면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에 제동을 건 악질반통일분자이다.

이회창은 온 민족과 전 인류가 쌍수로 지지환영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의 매 조항에 대해 생트집을 걸면서 <국민이 환상에 젖어 있다>는 심히 쓸개빠진 악담까지 늘어놓았다.

심지어 그는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상호주의>를 운운하다 못해 <퍼주기만 하는 대북협력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삐뚤어진 소리까지 하며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돌려세우기 위해 각방으로 악랄하게 책동해 오고 있다.

더욱이 이회창은 이북이 <주적>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고있는 반면 휴전선일대를 돌아치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극악한 호전분자이다.

특히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국민의 의지에 대해 <한미관계 손상>이라고 심히 모독하면서 <민족공조보다 한미공조가 우선>이라고 떠들며 친미사대매국적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놓은 이회창은 미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계>구축책동을 극구 찬양하며 미국의 현지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다.

60년대부터 악질 대법관으로 군사파쇼독재를 뒷받침해 온 이회창은 역사상 최대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로 조용수사장을 사형했으며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화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무차별적유혈탄압을 정당화해온 극악무도한 파쇼분자이다.

오늘 이회창은 국민 각계는 물론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반통일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결사반대해 나서고 있다.

제반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극악한 반통일분자, 불을 즐기는 호전광,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 극렬한 파쇼분자라는 것을 여지없이 실증해 주고 있다.

민족과 민중도 모르고 통일도 안중에 없이 공동선언과 그 이행을 한사코 가로 막아 나서는 이회창의 이러한 책동은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정면 도전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행위이며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편승해 동족과 국민을 죽이려는 잔인한 파쇼광의 친미사대매국행위이다.

오늘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동족의 피도 없는 이회창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실현도 기대할수 없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도 바랄수 없으며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로 격화되어 전쟁으로 치달아 우리 민족이 그 참혹한 희생물로 될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회창의 체질화되어 있는 반북대결기질과 그를 비호하고 부추겨주고 있는 상전의 대북강경전쟁정책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전국민의 일치한 분노와 의지를 담아 이회창을 우리 민족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흉악한 민족반역자, 극악한 민중의 표적으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원래 친일주구의 후손인 대통령병자 이회창은 사대매국과 영구분열의 일등공신으로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역적중의 역적으로써 이미전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매장됐어야 할 인간추물이고 악한이다.

대세의 흐름과 민심을 등지고 사대매국과 분열책동에 광분하면서 역대 군사파쇼독재자들을 극구 찬양하며 사회의 파쇼화를 몰아오기 위한 대권쟁탈에 환장이 되어 있는 이회창역적의 죄악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는 현시기 반북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매국역적, 통일의 걸림돌은 제때에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

겨레와 민중의 재앙인 이회창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한국민의 수치이며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된다.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한사코 반대하며 피비린 민중탄압에 적극 가담하여 악명을 떨쳐온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세우는 것만이 민주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는 지름길이며 자주화되고 통일된 새조국을 건설하는 바른길이다.

전국민은 민족사의 부름과 요청에 화답하여 반이회창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총분기해야 한다.

각계각층 민중은 이회창의 흉악한 정체를 꿰뚫어보고 그 더러운 집권 기도를 분쇄하며 민족의 치욕을 더 쌓기전에 그를 민족의 명부에서 제거해 버리고 국민심판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이회창은 이땅의 민심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각계애국민중과 어깨 겯고 발걸음을 맞추며 하나의 목소리로 반이회창투쟁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그를 역사의 시궁창속에 매장하고 겨레의 간절한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의 영광된 그날을 앞당겨 올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8월 7일
서울

통일운동조직들에 드리는 서한

각계 통일운동조직들과 통일인사들!

우리 민족의 광복절인 8.15가 눈앞에 다가왔다.

바야흐로 ≪6.15~8.15통일촉진운동기간≫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단합을 내외에 과시하는 역사의 장으로 빛나게 결속해야 할 때이다.

이제 우리의 통일운동조직들과 각계각층민중은 하나가 되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8.15통일대행진에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통일운동세력들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을 위해 이 공개서한을 발표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것을 확약한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자주통일을 위한 새 시대 개막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 민족은 수난에 찬 과거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21세기를 통일의 세기로 마중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받아안게 되었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지난 1년동안 이 땅에서는 사대와 분열의 암운이 자주와 통일의 서광으로, 친미반북의식이 반미연북의식으로, 냉전과 대결의 기류가 화해와 협력의 조류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개척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겁을 먹고 불안을 느낀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또다시 우리 민족의 통일행진을 가로막아 나서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과 6.15공동선언자체를 무산시켜 버리려고 발악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에 다시금 신냉전기류를 퍼뜨리며 남북관계를 대결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와 한짝이 된 이 땅의 냉전수구세력들은 ≪주적불변론≫**과 ≪외세와의 공조론≫을 외쳐대며** 6.15공동선언이행을 걸음마다 방해해 나서고 있다.

내외반통일세력들의 훼방책동으로 남북사이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던 대화들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됐다.

현시국은 지금 우리 민족, 민중의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이 땅에 평화와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미제와 냉전수구세력들의 6.15공동선언파괴책동으로 한반도가 다시금 대결과 영구분단의 길로 줄달음쳐 가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있다.

이 시각, 우리에게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준동으로부터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그 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전국민적 공동투쟁에 나서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활적 과제는 없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고 평화와 통일의 전도가 집약되어 있다. 그 성공여부는 통일운동세력들의 단합과 공동행동에 달려있다.

오늘날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에서 공동행동의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정견과 신앙의 차이도, 당국과 민간인간의 계선도, 당파와 소속의 소재도 따로 있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사상과 이념, 신앙을 초월하여 다같이 손잡고 통일운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

시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통일운동세력의 폭넓은 단합과 통이 큰 연대, 대범한 공동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과거를 가지고 따질래기를 하면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나서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 누구는 배척하고 따돌리며 또한 계급, 계층과 소속이 다르다고 하여 외면한다면 언제가도 통일운동세력들의 단합과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조국통일이 전민족이 함께 가는 길이고 7천만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면 6.15공동선언은 이 길에서 우리 민족이 편차없이 곧바로 나아가게 하는 자주통일선언이자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우리의 통일운동진영은 이같은 조국통일문제의 성격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걸맞게 그 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의 거족적단합과 공동행동을 실현할 때만이 반

통일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달아오른 국민의 통일열기와 화해와 협력에로 큰 걸음을 내디딘 남북관계를 자주통일에로 줄기차게 이어나갈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애국애족이 있고 통일이 있다.

오늘 통일운동세력들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앞장서야 할 주력군은 우리 민중의 믿음직한 선봉대인 노동자계급이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민족문제해결에서도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계급으로서 가장 선진적이고 조직적인 부대일 뿐아니라 그 어느 계급보다도 넓은 포옹력과 아량을 지닌 계급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횡포무도한 미제침략세력과 가장 반동적인 냉전수구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주적인 민족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연대공동행동문제에서도 1,300만 노동자계급이 그 선두자로 나설 때만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만일 우리 노동운동조직들이 이같은 자기역사적 사명감과 전민중적 기대를 망각하고 일각에서 울려나오는 ≪민족대단결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느니, ≪**노동자계급은 북의** 민족대단결노선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느니 하는 그릇된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면 통일애국세력의 분열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반통일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오늘 이 땅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고 분열의 비극을 가시기 위한 통일문제와 노동자계급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투쟁은 별개의 상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관되어 있다. 식민지 이 땅에서는 민족적 모순부터 해결되어야 계급적 모순도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민족대단결은 양자의 실현을 다 같이 담보하고 있는 근본초석이며 천하지대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손잡고 연대해야 하며 여기에서 통일운동의 주력인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야 한다.

실천적으로 현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노동자계급은 당국의 대미의존정책과 반민중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하지만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연대를 실현하고 그들을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에로 견인해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당국의 관변단체일지라도 우리 노동자계급은 그의 보수적인 경향성만 볼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실천운동에 동참하려는 긍정적 측면부터 보고 그와의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통하여 그 내부에서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지 못하도록 견제하면서 민족자주적인 입장에로 확고히 돌려세워야 한다.

우리의 통일운동조직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손잡고 8.15통일공동행사에 모두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8.15통일공동행사장이 곧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통일애국세력의 대화합장으로, 미제와 이회창패당을 비롯한 내외반통일세력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는 역사의 심판장으로, 6.15공동선언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정국전환의 돌파구로 되게 해야 한다.

뭉칠수록 커지고 커질수록 강해지는 것이 단결의 위력이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친 통일애국세력의 위력은 필승불패이다.

온 민족의 절대적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나선 우리 민족, 민중의 통일성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8.15통일공동투쟁에 총궐기하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오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2001)년 8월 8일
서울

한민전 중앙위 ≪당면투쟁구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기치아래 자주통일의 길로 가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다.

온 겨레가 이 성스러운 대행진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은 그 흐름을 되돌려세우려고 광기를 부리고 있다.

6.15공동선언실행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동족과의 대결만을 선동하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냉전시대원점으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다.

민족, 민중에게 화밖에 가져다줄것이 없는 이 우환단지가 감히 차기대권을 꿈꾸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회창을 그냥 두어두면 꿈에도 소원인 자주통일을 앞당길수 없고 민족공멸의 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된다.

각계민중은 조국통일의 원수이고 국민의 공적인 이회창을 매장하고 제거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을 과감히 벌여야 한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시국의 요청과 국민의 의지를 담아 당면투쟁구호를 발표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적 이회창제거투쟁의 포문을 열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 결사반대하는 통일의 적 이회창을 매장하자!
반북대결고취하며 북침전쟁 꾀하는 이회창을 때려잡자!
주적론, 상호주의 웬말이냐. 통일의 훼방꾼 이회창은 자폭하라!
이회창 그냥두면 남북화해, 민족공조 안된다. 민족불화의 씨 이회창을 들어내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추종하는 이회창을 제거하자!
국가보안법 고집하는 파쇼폭군 이회창을 처단하자!
청렴결백 간판들고 부정비리 일삼는 이회창을 심판하자!
이회창이 집권하면 동족상잔 다시온다. 대통령병자 이회창을 반대배격하자!
각계민중은 민족민중의 우환단지 이회창반대투쟁에 떨쳐나서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8월 13일
서울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7월 9일 ~ 10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1년간 남과 북의 관계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하는 등 조국통일운동에서 많은 긍정적 발전이 있어서 겨레를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세에 역행해서 한편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 또한 악랄하게, 끈질기게 자행되고 있어서 통일의 앞길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통일세력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밝힌 조국통일이정표를 따라 온 겨레는 자주통일대행진을 줄기차게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민족자주통일대행진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는 길에서 매우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자면 그것을 가로막아 나서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민족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어떤 것들인지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윤정원 :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장애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되는 장애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이라고 말할수 있죠. 아시다시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봐도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죠.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외세때문이고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다름아닌 외세의 지배와 간섭때문입니다.

사회자 : 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인 외세란 구체적으로 미국을 말하는 건데요. 미국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분열의 원흉이고 민족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제2차대전후 세계제패야망에 들뜬 미국은 한반도를 아시아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서둘러 3.8도선 이남지역을 군사적으로 강점했어요. 미국의 부당한 한국강점과 식민지통치로 인해서 8.15광복후 전국적 판도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이 실현되지 못하게 됐고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양분되고 민족분열의 수난과 비극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대한식민지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장애로 되고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 실례가 없어도 잘 아시라고 봅니다. 미국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랜 세월 반북대결전쟁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남북사이의 군사정치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끊임없이 격화시켜왔어요.

사회자 : 미국의 반북대결전쟁정책과 반통일책동은 역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로 높아가던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정세를 대결과 전쟁국면에로 몰아갔습니다. 지난날 미국에 의해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해왔고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됐음은 내외의 주지의 사실이죠. 특히 올해초에 집권한 부시미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대행진을 가로막기 위해 날뛰고 있지 않습니다.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부시행정부는 집권첫날부터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을 떠들면서 힘에 의한 대북강경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날로 그 도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계개선방향으로 나가던 조미관계가 일시에 냉각, 역전됐구요, 한반도에는 또다시 대결과 긴장격화와의 신냉전기류가 흐르고 새전쟁의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무분별한 반북강경압살정책과 새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해서 모처럼 마련되었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가 파괴되고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는 또다시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시는 대북정책에서 변화라도 있는 것처럼 북미협상제안을 발표했는데 협상을 통해 이북을 무장해제시켜 압살하려는 목적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전제조건적이며 독재적인 대북협상제안에 경각심을 높이고 반미투쟁의 열풍을 더욱 높여서 민족자주통일의 기본장애인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사회자 :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외세는 미국만이 아니라 일본반동들도 속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죠. 일본의 역대 반동들은 물론 현지배층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새전쟁도발책동에 합세해서 한반도에 대한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어요. 일본반동들은 일제의 과거죄행을 백지화하고 군국주의망령을 되살리려는 범죄적인 기도밑에 역사왜곡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고 미국의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적극 가담해 나서는가 하면 일본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열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띠고 있는 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반북적대시정책과 한반도재침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장애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일본반동들을 반대해 투쟁하는 건 민족자주통일의 장애를 제거하는 일환으로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사회자 :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건 외세만이 아니라 민족내부에 있는 사대매국적인 극우반통일세력들도 있는데요. 이 땅의 사대매국노, 민족반역자들도 하루빨리 제거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파멸뿐

윤정원 : 네, 앞에서도 얘기 됐습니다만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있지도 않는 북의 위협을 걸고들면서 반북강경고립압살책동을 날로 노골화하고 제반 **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과 군부호전분자들은 미국과의 이른바 연합방위태세확립이요, 굳건한 동맹관계요, 한미일 공조요 뭐요하면서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에 적극 가담해 나서고 있어요.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조국을 통일할걸 공포한 민족자주평화통일선언인 6.15남북공동선언정신을 난폭하게 유린위반하고 동족인 이북을 반대하는 이런 배신자, 반통일역적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없습니다. 민족자주를 부정하고 외세와 야합해 동족인 이북을 압살하려는 반민족반통일세력에 의해 조국통일의 길에 장애가 겹쌓이고 우리 민족이 당하는 민족적 치욕과 불행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고보면 한미일공조를 운운하고 미군의 장기주둔을 애걸하면서 반북대결에 미쳐 날뛰는 자들은 예외없이 민족자주통일에 장애를 조성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배신자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자들은 정부와 정당은 물론 정치인들이나 군부와 사법경찰계, 언론계 등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줌도 못되는 세력이지만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회창과 그의 한나라당패거리들이 그런 배신자, 범죄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죠. 맞아요.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악랄하게 헐뜯고 그 이행을 각방으로 방해하는 배신자, 반통일분자들의 전형이라 할 수가 있죠. 현시기 6.15공동선언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고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판결하는 척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을 위시한 한나라당의 우익보수분자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있게 된다는 것을 공포한 지난해 4.8합의서가 발표되자 선거용 전략이라느니, 북에 가봐야 얻을것이 없다느니 하면서 시비를 했고,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실현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것을 북의 전략에 동조한 것이고 이른바 평화와 완화의 핵심요건이 빠졌다느니 뭐니 하면서 악의에 찬 비방중상했어요. 그리고 온 겨레는 물론 세계의 적극적인 지지환영속에서 공동선언이 착실히 이행되자 그것이 상호주의원칙에 위배되고 일방적인 퍼주기식이라는 등 악담을 늘어놨어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압살정책에 따라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남북관계가 침체상태에 이르자 쾌재를 부르면서 그야말로 못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극우반통일분자들이야말로 민족도 모르고 통일도 반대하는 사대매국노들이고 민족반역자들인 동시에 극악한 반통일분자들이라는 것, 이것을 똑독히 보여주죠. 그들은 결국은 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어서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이 열릴수록 더욱 단발마적인 발악을 할겁니다. 그러므로 이같은 사대매국역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자들을 하루빨리 제거하는게 상책이라고 할수 있죠.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이 땅의 호전적인 군부계층에서 연발하고 있는 이른바 주적론도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장애로 되는 제거대상이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여부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이북을 제1주적으로 공공연히 선포하고 대북강경압살에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사대매국적인 군부호전광들은 미국에 아부하면서 이북을 주되는 적으로 규정한 주적개념을 절대로 변경시킬수 없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역설하고 있죠. 그들은 이북을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세력으로 매도하는 폭언도 서슴지 않고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명백하다시피 남북간의 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세를 긴장시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열어나가는 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라고 할수 있는데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이로운 일은 못할망정 거기에 의도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는 군부호전분자들의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고 지체없이 철회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거죠.

사회자 : 그렇죠.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현시기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는 또한 국가보안법이라고 보는데요, 이와관련해서도 얘기 좀 해주시죠.

윤정원 : 내외가 일치하게 공인하듯이 국보법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하는 장애물로써 세상에 둘도 없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동족인 이북민중을 적으로 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국보법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에서 관건적 지역인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하려는 군부파쇼정권에선 없어서는 안될 제도적 장치였어요. 그런데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어 민족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어서 통일애국에 칼질을 하고 있는건 정말 통탄할 일이고 한국의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절대다수국민은 국보법의 개정이 아니라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물론 심지어 미국내에서까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바로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또하나의 장애물이 다름아닌 국보법이죠. 국보법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위해서 백해무익한 것으로써 하루빨리 폐지해야 하는 겁니다.

사회자 : 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민족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또 오늘날 이 땅에서 무모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쟁불장난소동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미국과 호전적인 군부당국은 올해 들어와서만도 무모한 북침전쟁훈련을 연이어 벌였는데요. 군부당국은 올해 1월과 4월, 5월에 걸쳐서 수차례의 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였거든요. 지난 4월에는 극히 반북도발적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했고 얼마전에는 한미연합특공훈련이라는 것까지 벌였습니다. 군부당국은 지난 5월에 부산과 울산앞바다에서 함대기동훈련을 벌였고 공군사령부도 올해 산하 비행단과 포부대의 비상동원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전쟁연습들은 어느 것이나를 막론하고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실전연습으로써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죄악이 아닐수 없는 겁니다.

사회자 :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된걸 종합해보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철저히 짓부숴 버리지 않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개가 짖어도 행렬은 나가기 마련이죠. 반통일역적들이 아무리 훼방을 해도 겨레의 숙원인 통일은 기필코 이룩되고야 말겁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파멸 뿐

미국이 나가야 통일이 된다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7월 22일



오늘날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겨레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제사회의 최대의 관심사로 되어 있다고 할겁니다. 조국통일을 이루자면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신뢰와 화해, 협력의 관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도 방대한 최첨단무기를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 이북을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등 온당치 못한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북을 계속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조건에서 한반도정세의 완화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은 통일의 앞길에 놓인 주되는 걸림돌, 통일의 암이라고 할겁니다. 미군이 이 땅에서 나가야 무력축감도 하게 되고 한반도의 정세도 완화되고 나아가서 통일도 이루게 될것입니다. 네, 이철씨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온 겨레의 조국통일열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 해외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대행진을 더욱 거세차게 벌이고 있는데요. 6.15공동선언이 밝힌 이정표를 따라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주한미군을 식민지 이 땅에서 철수시켜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주한미군은 나라와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입니다. 사실상 8.15광복후 미군이 3.8도선 이남을 강점하지 않았다면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민족은 이미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의 한국강점으로 한반도에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해방자의 탈을 쓰고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한 것은 우리 민중의 요청이나 그 어떤 국제적 협약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괴수로 등장한 미국은 한반도를 세계제패야망실현의 교두보로 삼고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구실로 이 땅을 불법강점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장본인일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이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군은 부당한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민의에 의해 세워졌던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민중의 자주통일운동을 가차없이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만들면서 한반도 전지역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미군의 침략성과 야수성은 6.25전쟁시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치밀한 사전준비와 계획밑에 6.25북침전쟁을 도발한 미군은 한반도의 도시와 농촌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수천수만의 무고한 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양민학살만행들도 미군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6.25전쟁시기 미군양민학살과 관련한 국제전범재판에서 미군이 300만명 이상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했다고 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군의 이 엄청난 범죄가 어느 개별적인 미군사병이나 어느 한 부대에 의해 저질러진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미제침략군의 살인적 체질에 따라 계획되고 감행된 필연적 만행이라는 데 있으며, 그렇게 엄중한 죄악을 저지르고서도 수십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죄한마디 없이 뻔뻔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이 혈맹이나 우방이 아니라 가장 포악한 침략국이고 주한미군 역시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라 가장 흉악하고 야만적인 침략군, 희세의 살인마들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군의 침략성과 야수성은 6.25전쟁이후에도 계속 드러났는데요. 미군은 전후에도 살인과 약탈, 강간과 강도 등 천인공노할 야수적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주한미군이 감행한 범죄행위가 이미 공개된 것만도 무려 27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니 그로인해 우리 민중이 당한 불행과 고통은 *****것입니다. 미군살인귀들이야말로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주한미군은 또한 이 땅에서 새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전쟁광신자들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 땅을 1천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된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들어 놓고 북침전쟁도발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시미행정부의 새전쟁도발책동은 극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북의 미사일문제, 상용무력문제 등을 걸고 강경대응을 떠들면서 요격미사일이 장비된 이지스함 두척과 소형무인조정정찰기를 비롯한 최신예전쟁장비들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량배치하려 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 미군은 연합전시증원연습과 같은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이로말미암아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한반도정세는 긴장과 대결국면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제반사실은 반세기이상이나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중이 온갖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셔질수 없으며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명분조차없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입니다. 각계민중은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민족자주통일의 여명을 반드시 안아와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파멸뿐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배격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7월 25일



지금 미국의 파렴치한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각계 민중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시간엔 먼저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배격하자 이런 제목으로 이철씨 말씀드립니다.

청년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호우가 계속되는 날씨지만 여름방학의 나날을 즐겁게, 그리고 뜻있게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최근 우리의 깊은 우려를 야기시키는 문제의 하나는 부시공화당정권이 이북을 걸고 한국에 미국제무기구매압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얼토당토않는 북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한다면서 한국에 저들의 무기를 대량구매할 것을 강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무기강매책동이 강행되면 우리 민족에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질수 있고 6.15공동선언이행의 중단과 전쟁의 참화로 이어질수 있는 가공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기강매책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미국의 이 무지막지한 강박을 좌시할수 없습니다. 파렴치한 이 기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겁니다. 통일만이 민족의 살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칠천만 겨레가 통일의 이정표로 가슴 뜨겁게 받아안은 6.15공동선언을 헌신짝처럼 여기며 우리 민족을 전쟁에로 몰아가는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우리는 기어코 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청년학생들이 앞정서야 할줄 아는데요. 우선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의 본질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설득력있게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본심은 한국에 거대한 양의 미국제무기를 판매해서 저들의 군산복합체에 이득을 안겨주고 남북대결에로 부추기면서 한반도에 긴장을 격화시켜 6.15공동선언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과할수 없는 것은 굴욕적인 한국의 대미추종인데요.

지난 2월과 3월 미국에서 한미외무장관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미국측은 여기서 이북의 상용무력문제를 떠들면서 회담의 의제로 이북의 압력을 가장 *****습니다.

최근 미군부측은 한미간연합작전시 국군이 미국제 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작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제무기를 더많이 구매해야한다고 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국당국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기간에 추진할 1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을 미국제무기를 도입하는데 돌리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군사업체들은 폭리를 얻게 되지만 우리 민족은 6.15공동선언이행의 정지와 민족전쟁참화의 위험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계와 언론계를 비롯해서 각계에서는 이와같은 미국과 한국의 책동에 대해서 한국을 미국무기중독증에 걸린 식민지, 한국은 미국무기상인들의 천국이라고 개탄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군사평론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무기들인 에프15 전투기, 아파치공격헬기 , 패트리어트미사일 등이 성능이 낙후하고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도 맞지않는 것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당국은 한마디 대꾸도 못한채 미국의 강압적인 무기구매압력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와같은 대미추종정책은 통일문제를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초석을 이루는 자주의 원칙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의 본질, 그 위험성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학생들과 국민들이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투쟁을 변하는 정세와 대상의 수준에 걸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위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일운동과 사회봉사활동, 그리고 농활 등의 사업과 함께 미국의 무기강매책동반대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을 현정세는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지조건에 걸맞게 학생들이 조직하는 투쟁뿐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투쟁에도 동참할수 있을 것입니다.

청춘을 빛내이고 애국의 길에서 살고 희망을 꽃피우는 것이 우리 청년학생들이잖아요. 하여 여러분은 학업의 휴식기는 있어도 투쟁의 휴식기는 없다는 신념이 있기에 이 무더운 7월의 방학기간에도 애국의 한길에 몸과 마음을 다바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저지배격하는 애국의 투쟁에도 우리 청년학생이 앞장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파멸뿐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자



희대의 반통일분자 김영삼역도가 전민족적 단죄투쟁으로 정치적 불구가 된 반면 대통령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조건에서 극악한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가 반통일세력의 수급역적으로 나서고 있다.

역대 군사깡패들과 김영삼역도의 졸개가 되어 못된 역적질만 배워온 이회창역도는 지금 고조되고 있는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기세를 꺾어보려고 온갖 반민족반통일망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정세는 감격적인 평양상봉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끼리 대단결하여 평화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전민족적 합의가 통일대하를 이루며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격동적인 국면이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 김영삼역적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은 미제국주의의 사주아래 한나라패당을 정치거점으로, ≪조선일보≫모략지를 선전거점으로 전쟁광기를 발산하며 연일 반통일행각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와 이회창패거리들과 같은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으로 인하여 현하 정세는 자주냐 예속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첨예하고도 엄중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회창역도는 먼저 미제호전광들의 정치나팔수, 미독점자본의 현지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차기 대통령자리를 구걸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특급주구로서 김영삼역도를 찜쪄먹을 친미사대역적이다.

부시정권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북강경책을 높이 찬양하고 대북호전망발을 연방 지껄여대는가 하면 미제의 경제신탁통치를 열렬히 옹호하며 노동운동탄압을 악질적으로 선동하는 등 상전의 환심을 얻어 차기 대권을 움켜쥐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천하의 매국역적이 바로 이회창역도이다.

또한 수급 반통일분자 이회창역도는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거나 연방제를 반대하며 ≪흡수통일≫을 주장하는가 하면 ≪상호주의론≫니 ≪퍼주기론≫이니 ≪시기상조론≫이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전민족적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대세를 역전시키려 감히 망동하고 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일제 ≪치안유지법≫ 아래 친일검사보로 호의호식하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희대의 매국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한사코 반대하며 수구보수세력의 첨병노릇을 하고 있는 놈도 바로 매국파쇼분자 이회창역도이다.

박정희군사깡패의 사법시녀가 되어 정의로운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인간백정도 이회창역도이며, 반민족반통일매문지 ≪조선일보≫를 ≪대쪽신문≫으로 찬양하는 정치모리배도 이회창역도이며, 언론학살의 장본인이면서도 ≪조선일보≫에 대한 정당한 세무비리조사에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황당한 궤변론자 역시 이회창역도이다.

김영삼역도의 충견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한편 끝내 경제신탁통치를 야기함으로써 이 땅을 천만노동자실업과 기하급수적 농가부채, 살인적인 가정파괴, 윤리파탄의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이회창역도야말로 국민심판대에 올려 세워 즉각 처단해야 마땅한 일급 범죄자이다.

이회창역도는 지금도 현정권으로 하여금 친미예속적이며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화하라고 충동질하며 이 땅을 민족반역의 동토대로, 민중말살의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키려 악랄하게 획책하고 있다.

대통령자리에 환장하여 전 민족을 핵전쟁의 불구름속으로 몰아가는 것도, 전 민중을 민생파탄의 절벽으로 내모는 것도, 이 땅을 미제국주의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며 영구분열을 획책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회창역도야 말로 가장 악질적인 민족반역자, 희대의 파쇼광, 특급 반통일분자임에 틀림없다.

천심이나 다름없다는 민심은 이회창역도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본질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으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파멸뿐



며 단호하고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하고 있다.

이회창역도는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국민대중의 정의의 응징투쟁으로 인하여 고양이 앞의 생쥐 같은 초라한 몰골로 꽁무니를 뺀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어느 대학, 어느 지역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이다.

이회창역도의 반동적 궤변들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언론과 지식인들이 날을 따라 늘어가는 가운데 심지어 한나라당내에서조차 이회창역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며 분당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역대 파쑈독재자들의 하수인으로서 사대매국과 분열책동에 광분하며 민중생활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면서도 감히 반통일역적의 대표로 나서며 대통령자리를 넘보는 이회창역도와 같은 매국역적은 하루빨리 정치무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미제국주의와 주한미군에 기생하고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김영삼역도에 기생하며, 반통일세력과 반공반북의식에 기생하고 ≪조선일보≫매문지와 지역감정에 기생하는 ≪인간회충≫ 이회창역도가 갈 곳이란 감옥이 아니면 무덤이다.

대권을 위해서라면 ≪총풍사건≫, ≪세풍사건≫도 서슴지 않으며 대가리에 기름이나 처바르는 ≪지하철쇼≫로 여론조작이나 하는가 하면 군대면제 아들놈에게 최고급외제차를 선물하고 일왕생일에 몰래 참석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인간추물 이회창역도는 당장 이 땅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우리 민중은 반이회창구호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대중투쟁으로 역적 중의 역적, 추물 중의 추물인 이회창역도를 반드시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 국민심판대에 올려세우고 말 것이다.

반이회창은 애국이요, 친이회창은 매국이며, 반이회창은 통일이요, 친이회창은 분열이다.

해방 직후 친일역적들을 단죄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던 ≪반민특위≫의 역사적 맥을 계승한 우리 ≪반단특위≫는 미제국주의의 특급주구로, 국내 반통일세력의 최악질분자로 나서고 있는 극악한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를 단죄하는 투쟁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히 전개할 것이다.

대세와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며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이회창역도가 정치무대에서 제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는 반드시 정의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될 것이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 미사일방어체계 찬양하는 친미주구 이회창역도를 처단하자!

경제신탁통치, 민생파탄의 일급주범 이회창역도에게 감옥이 아니면 무덤을!

국가보안법개폐 반대하는 반민주반통일분자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자!

≪민족일보≫사장 사형시킨 박정희파쇼광의 사법시녀 이회창역도를 교수대로!

≪총풍≫사건, ≪세풍≫사건 웬말이냐, 부정비리 범죄자 이회창역도를 철창으로!

반통일모략지 ≪조선일보≫와 한통속이다, 정치모리배 이회창역도를 단죄하자!

동포보고 ≪주적≫운운하는 전쟁미치광이 이회창역도를 이 땅에서 축출하자!

≪상호주의론≫과 ≪퍼주기론≫, ≪시기상조론≫은 망발이다, 반통일궤변론자 이회창역도를 매장하자!

≪연방제≫만이 살길이다, ≪흡수통일≫ 획책하는 반통일역적 이회창역도를 척결하자!

6.15선언실현 방해하는 반통일세력의 수급역적 이회창역도를 끝장내자!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파멸 뿐

반통일역적 단죄를 위한 특별위원회(반단특위)
2001년 8월 15일 서울

반통일역적 이회창에게 철퇴를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8월 23일 / 통일운동가 김진수



며칠전 평양에서는 8.15광복절을 계기로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에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가까운 앞날에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 겨레의 통일의지를 만방에 과시한 의의깊은 축전이었다. 특히 그것은 평양에서 새로 건립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것으로 해서 더욱 뜻이 깊었다.

이번 축전에는 이북형제들과 해외동포들뿐아니라 이남에서 간 220여개 단체의 300여명 대표들이 참가했고 그들은 내외의 아낌없는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회창패당은 2001년민족통일대축전과 방북인사들에 대해 별의별 험담을 다하고 있어 우리 민중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통일대축전자체를 달가와하지 않던 이회창은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른 통일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한나라당내의 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남북대결의식을 고취했다. 방북인사들의 축전참가를 북의 연방제통일방안정치선전장의 들러리로 내세웠다고 중상했는가 하면 방북인사들의 활동을 대북구걸외교로 모독했다. 심지어 축전개폐막행사에 참가한 사람들과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생가 방명록에 자기의 소박한 생각을 적은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회창패당의 이같은 망언은 단순히 남북사이의 합의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7천만겨레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회창이 괴수로 있는 이른바 ≪바른 통일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봐도 그렇다. 이회창은 빠른 통일이 아니라 소위 ≪바른 통일≫을 주장한다. 모임의 간판을 ≪바른 통일≫로 규정한 의미도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이회창이 주장하는 ≪바른 통일≫이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바른 통일≫이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은 선임군부독재자들이 염불처럼 외우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구호이다. 그 가증스러운 반통일구호로 인해서 남북사이에는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불신과 대결의 골만 더욱 깊어갔다.

그런데 이회창패당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외치고 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북의 체제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떠들고 있다. 결국 이회창은 북의 사회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남쪽의 식민지파쇼통치체제를 북에까지 연장하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바른 통일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는 바로 이런** 반통일분자들의 집합소이다.

이런 인간 쓰레기들에게서 어떻게 올바른 소리가 나올수 있겠는가. 이회창패당이 방북인사들을 가리켜 무슨 ≪들러리≫요, ≪대북구걸외교≫**요 하며 모독과 비방중상을 일삼은 것은 민족반역아들의 이성을 잃은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수 없는 것은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사람들과 만경대방명록에 글을 남긴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낡은 시대의 반민족, 반통일파쇼악법이다. 반세기이상의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보법은 이미 자기의 존재가치를 상실한지 오래다. 특히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의 변화된 남북관계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자체에 판결을 내렸다. 국민각계에서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이 급격히 확산고조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회창은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고사하고 개정마저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남한사회를 통째로 북에 갖다바치는 통일전선전략의 이용물이 될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회창은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남북대결과 파쇼독재의 만능의 폭압수단으로 이용하려하고 있다. 하기에 이회창패당은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인사들을 이 반통일파쇼악법에 걸어 처형하라고 그처럼 핏대를 돋구면서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패당의 이같은 책동은 8.15광복절을 계기로 더욱 높아지는 국민의 6.15공동선언실천의지와 민족자주통일열기를 거세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해 갈수록 좁아지는 저들의 입지를 만회해보려는 어리석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북을 자극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며 극단한 파쇼폭압을 부채질해 대권욕을 이루어보려는 것이 이회창의 속셈이다.

민족분단사에는 남북대결책동으로 악명을 떨친자들이 적지 않지만 이회창과 같이 야당총재의 간판을 쓰고 남북대결과 파쇼폭압책동에 그처럼 광분한 반통일역적은 없었다.

민족, 민중에게 백해무익한 반통일역적 이회창에게는 철퇴를 안겨야 할 것이다.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파멸 뿐

평양축전참가 남측대표들을 비방하는 ≪한나라당≫ 규탄

조평통 대변인 성명



≪평양 8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조선의 ≪한나라당≫의 우익보수세력들이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에 대해 악의에 찬 비방을 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온 겨레의 뜨거운 축복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은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해 나가려는 지향과 의지를 내외에 힘 있게 과시한 뜻 깊은 민족적대회합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족분단이후 처음으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인사들 3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성대하게 진행한 이번 평양통일대축전은 그 성과로 하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큰 걸음을 내디딘 의의 있는 축전으로 내외의 절대적인 지지와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일부에서는 이번 축전의 력사적의의를 심히 외곡하고 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을 그 무슨 ≪죄인≫으로 몰면서 당치 않은 ≪돌출행위≫란것을 꾸며 가지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배치되게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 지고 있다.

당초부터 이번 축전에 남측대표들이 참가하는것을 두고 그 누구의 ≪선전공세≫에 ≪리용≫당하는것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중상모독해 오던 ≪한나라당≫의 극우보수파들은 평양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의 과반수가 ≪친북파≫로 ≪추정≫된다느니 축전에 참가하는것 자체가 ≪리적행위≫라느니 하고 떠들어 대면서 반통일소동을 벌렸다.

그들의 이 악의에 찬 행패는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려는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용납될수 없는 반통일적범죄행위이다.

지금 온 겨레는 이번 통일대축전에 참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크게 기여하고 북녘동포들의 열광적이며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돌아 간 남측축전대표들을 범죄시하면서 박해하고 있는데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에 벌린 남측대표들의 활동으로 말하면 통일애국으로 일관된 장거로서 그것이 온 민족의 아낌 없는 찬양과 환영을 받고 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우익세력들이 ≪친북≫이요, ≪돌출성≫이요 하고 악의에 차서 걸고 들면서 그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운운하고 있는것은 달아 오른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북남관계를 6.15공동선언이전 대결의 상태로 몰아 가려는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고의적인 행동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한 개폐막행사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명백히 한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북측의 행사로써 남측대표들은 다만 참관인으로 와서 보았을뿐이다.

지난해 10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55돐경축행사에 남조선의 여러 정당, 각계인사들이 참관인으로 참가하였던 전례를 놓고 보아도 이번 축전 개폐막식을 남측대표들이 참관한것은 조금도 문제될것이 없다.

만일 ≪한나라당≫이 떠드는대로 ≪참관≫조차 문제로 된다면 도대체 사상과 제도가 다른 북남사이에 공동행사는 물론 서로 래왕할수도 없다는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번에 그들이 평양축전의 의의를 외곡하고 남측대표들을 범죄자로 몰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고 있는것은 이를 계기로 6.15북남공동선언을 날려 보내고 조선반도정세를 다시 북남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며 그 무슨 내부적인 정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추악한 정치적야망을 실현해 보려는데 그 진의도가 있다.

만일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둔다면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단합의 기운은 사라지고 북남관계는 다시 대결시대로 되돌아 가게 될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한나라당≫패들안에서 올해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들에 대해 악의에 찬 비방을 하는것은 스스로 통일문제에 관여할 명분을 부정하는것으로 되고 그들자체가 북남관계를 론의할 대상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것으로 되며 나아가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는것으로 될뿐이다.

국토가 량단된 우리 나라 실정에서 어느 정당이건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외면한다면 그 존재자체가 무의미하다.

지금 온 민족은 자주, 단결, 통일에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보수우익세력들은 저들의 분별 없는 망동으로 하여 빚어 지게 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하며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바로 처신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우익보수세력들은 앞을 내다보면서 나라와 민족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반통일세력들이 벌리고 있는 소동이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전적으로 배치되는것으로서 통일애국운동에 나선 각계층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통일애국인사들의 활동을 범죄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모든 남측 대표들과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련대련합하여 소수 반통일세력의 분렬주의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대축전의 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주체주의자들의 맹약

1. 우리는 조국통일운동승리의 비결이며 동력인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풍모의 위대성을 이남 민중 속에 광범히 선전하여 6.15공동선언 이후 고조되고 있는 흠모의 대하가 더욱 높이 굽이치도록 한다.

2.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민족대단결경륜을 이남민중 속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깊이 침투시킴으로써 각계 민중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자각적으로 총궐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사상적 바탕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는 한민전의 불패성을 널리 선전하여 주체사상학습열풍이 휘몰아치고 주체사상학습소조가 수많이 건설되도록 한다.

4. 우리는 통일연대를 강화하고 여타 통일단체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범민련과 범청학련을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각급 대중조직과 전선조직이 남북간의 하층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사업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민족통일전선운동이 거족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5. 우리는 한총련과 한청을 통일적 학생운동조직, 청년운동조직으로 전화발전시키는 한편 전국연합, 민주노동당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통일전선의 주체세력인 민족민주전선을 비약적으로 장성발전시키도록 한다.

6. 우리는 학생운동대오와 민족민주전선, 지역통일전선내 분파주의를 청산하는 사상운동을 운동대오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7. 우리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주한미군철수투쟁에 호응하며 일상적 반미대중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반미자주화투쟁을 하루속히 범국민반미항전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8. 우리는 6.15공동선언과 전면배치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민중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결실을 이룩하는 한편 내외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철저히 진압하도록 한다.

9. 우리는 모든 청년주체주의자들을 열혈의 김혁, 신념의 차광수, 혁명가 김책으로 육성하며 청년주체주의자대오를 대대적으로 건설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강위력한 지도핵심대오를 건설하도록 한다.

10. 우리는 6.15공동선언이 실현된 낮은 단계 연방제에 머물지 않고 통일변혁운동을 계속 전진시켜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건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광장에 높이 모시는 감격의 그날을 앞당길 것이며 21세기 통일강성대국건설도 진두에서 개척해 나아갈 것이다.

한민전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6월 15일
서울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을 처단하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성명(대변인 보도 2호)

오늘 한국에서 이회창이 자주민주통일 대세에 역행하는 최대원흉이라는 사실이 낱낱이 폭로되는 한편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하루빨리 제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날을 따라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조국반도의 정세는 민족자주, 평화지향, 민족단합의 기치아래 전민족이 일심단결하며 자주민주통일의 한길로 전진하여 왔다.

그런데 천하역적 김영삼의 뒤를 이어 반통일수괴로 등장한 이회창은 자신의 추악한 매국파쇼적 본색을 드러내며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회창이야말로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방해하는 희대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분자로서 6.15공동선언실현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우환단지, 악질종양이다.

이회창은 우선 이 땅을 미제국주의의 영구식민지로, 우리 민중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희대의 사대매국노이며 핵전쟁으로 민족공멸도 서슴지 않을 가장 악질적인 전쟁미치광이이다.

이회창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는가 하면 온 세계가 반대배격하는 미 부시정권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북강경정책을 적극 찬양하며 결국 조국반도의 정세를 완화와 평화가 아니라 긴장과 전쟁으로 충동질하고 있다.

이회창은 과거 전쟁미치광이 김영삼의 최측근 졸개시절부터 미제의 조종을 받으며 조국반도의 정세를 전쟁직전으로까지 몰고 갔던 극악한 호전분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미국독점자본의 경제신탁통치로 전락시키며 4천만 민중을 인간생지옥에 몰아넣은 악질적인 친미사대역적이다.

핏줄은 못 속인다고 일제시기 수많은 애국자들을 처형시킨 친일검사보의 아들, 이회창은 일본총리의 야스구스신사참배와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우리 민중의 정의로운 투쟁을 ≪한일관계발전에 저해를 준다≫고 매도하는 후안무치한 친일매국노이다.

이회창은 또한 이 땅을 민주주의의 불모지, 민중말살의 동토대로 만들려고 획책하는 악질파쇼분자이다.

이회창은 이미 25살의 나이에 박정희군사깡패의 일급심복이 되어 역사상 최대 언론학살극인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처형사건의 판사노릇을 한 놈으로서 이후에도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를 사형시킨 희대의 파쇼교형리이다.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위헌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켜야 한다는 내외의 한결같은 여론에 ≪국가보안법개정불가론≫으로 맞서는 파쇼광도, 경제신탁통치 하의 벼랑끝에서 사활적인 생존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을 모독하며 노동운동탄압을 부추기는 반동정치배도, 반동모략지 ≪조선일보≫를 ≪대쪽신문≫으로 비호하는 황당한 궤변론자도 바로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특히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조국통일대세를 거스르며 온갖 망동을 자행하고 있는 수괴급 반통일분자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보고 ≪결실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며 텔레비전을 끄고 골방에서 손자와 화투를 쳤던 인간말종 이회창은 사사건건 놀부심보로 6.15공동선언실현을 훼방하며 온갖 망언, 망동을 저질러 왔다.

이회창은 남북교류협력에 장사꾼논리인 ≪상호주의론≫을 들이대는가 하면 미국무기상인에게 올해 80억달러나 퍼주었던 놈이면서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2대 값도 안되는 통일투자를 ≪퍼주기론≫으로 비방하는 궤변과 모략의 능수이다.

≪주한미군철수불가론≫과 ≪주적론≫, ≪자유민주주의체제통일론≫으로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며 제2의 6.25전쟁을 획책하는 반북호전분자도 바로 이회창이다.

결국 이회창이야말로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전쟁미치광이, 대권을 선사받는 댓가로 민족을 미일외세의 노예로 만들려하는 천하매국노, 이 땅을 민주주의의 암흑세계로 회귀시키려고 발광하는 파쇼분자, 온갖 망발과 협잡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사기꾼으로서 당장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할 역적 중의 역적이 아닐 수 없다.

이미 국민들속에서는 권력욕에 환장하여 조국반도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고가는 이회창을 처단하지 않는다면 민족공멸의 우환을 당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나라당내에서조차 이회창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정계퇴진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60여개 단체가 모인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이회창퇴진운동을 선언하는 마당에 민주노총과 한총련을 비롯한 변혁적인 대중단체들이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을 퇴진시키는 투쟁에 분기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절박하다.

반이회창투쟁은 대중투쟁의 선행공정인 대국민홍보활동, 반이회창선전전을 시작으로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동분쇄투쟁, 반조선일보투쟁과 밀접히 결부지어 이회창이 정계에서 축출되는 그 날까지 완강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기간 자주민주통일의 적으로서 오만가지 악행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오늘 부시정권의 특등사냥개, 반통일세력의 수괴질에 광분하는 이회창이 대중의 뭇매를 맞으며 처형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부시정권의 조종아래 반통일수괴로 나서며 자주민주통일대세에 역행하는 천하역적 이회창에 대한 정치적 처단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강력히 진행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의 적, 이회창은 반드시 정의와 민중의 이름으로 처단되고 말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5일
서울

조선일보는 이회창패당의 기관지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3호)

최근 조선일보 사주가 천문학적 탈세비리로 구속수감되었다. 사실 그 비리라는 것은 조선일보가 저질러온 매국행각, 부정행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이 기회에 조선일보의 모든 죄행이 낱낱이 폭로단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패당만은 조선일보를 ≪대쪽신문≫으로 찬양하고 있다. 심지어 세무비리조사를 두고 ≪언론자유유린≫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일보는 일제시기 친일로, 해방이후에는 친미로 성장한 매판신문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공반북으로 조국반도를 전쟁국면까지 충동질한 반통일모략지이다. 또한 역대 파쇼독재자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탄압에 앞장선 파쇼매문지이기도 하다.

이회창은 부시정권의 특급주구가 되어 반북대결에 광분하고 있는 민족반역자이다. 이 놈은 지금 ≪주한미군철수불가론≫과 ≪주적론≫, ≪자유민주주의체제통일론≫으로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론≫과 ≪퍼주기론≫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훼방하며 이북을 중상모독하고 있다. 과거 판사시절 ≪민족일보≫사장을 처형시키고 모자라 지금 ≪국가보안법개정불가론≫을 외치는 악질 파쇼광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이회창은 그 본질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하기에 조선일보가 이회창패당의 기관지로, 이회창패당이 조선일보의 정치부대로 결탁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배후조종자가 대북강경책동에 광분하는 부시정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대중정권은 이회창패당과 조선일보를 그대로 놔두어서는 6.15공동선언실현도, 심지어 정권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부시정권의 배후조종하에 이회창패당과 조선일보는 6.15공동선언파탄을 집요하게 획책할 것이며 이는 결국 김대중정권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회창패당과 그 기관지인 조선일보의 목적은 6.15공동선언파탄과 정권창출이므로 현정권과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현정권의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실현과 반이회창, 반조선일보 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는 애국적 민주세력과 공조하며 함께 투쟁하는 길뿐이다.

현정권은 이번 사주구속을 계기로 조선일보의 지난 매국행위, 모략행위를 남김없이 폭로단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국적 민주세력과 적극 공조하며 조선일보해체운동, 민주화운동을 동요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5일
서울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5호)

부시정부는 여전히 대북적대시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조미합의문들이 휴지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조미관계는 갈수록 긴장되고 있다.

부시정부가 조선의 ≪미사일위협≫을 떠드는 것은 완전히 무근거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시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구축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다. 부시정부는 레이건의 별세계전쟁계획을 부활시키며 대결과 군비경쟁의 신냉전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정부가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은 산군복합체의 배후조종과 세계패권야욕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 확증하다시피 민중의 희생 위에 추진되는 반동적인 정책의 후과는 공황과 파국일 수밖에 없다. 자주성의 시대에 역행하는 패권정책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일 뿐이다. 이미 미국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미국외교는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더욱이 미국은 조미합의문대로 2003년까지 조선에 경수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선은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며 평화적 핵동력개발을 중단한 결과 수백억달러의 에너지손실, 경제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경수로건설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다. 200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조건에서 경수로건설자체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미합의문이 파기되면 그 세계적 범위의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쟁과 파멸이냐 아니면 협력과 보상이냐 하는 선임정권의 딜레마에 또다시 봉착하고 있다. 조미전쟁의 파멸적 결과는 미국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이다.

유일한 출로는 미국이 조선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접수하며 해당한 경제손실을 보상하는 길뿐이다. 미국은 조미합의문에 밝혀진 대로 대북봉쇄조치를 해제하고 조미외교를 수립하는 한편 주한미군철수와 비핵지대화를 규정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지금처럼 대북적대시정책으로 허세를 부리며 시간을 늦출수록 더 많이 잃게 될 것이다.

현재 부시정부는 ≪대북정책조정≫을 위한 시간을 달라며 조선에 애원하는 한편 이남의 반통일세력을 부추기는 오그랑수를 쓰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며 현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자주민족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다. 우리 민족은 분단역사에서 모처럼 마련된 통일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부시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이회창패당 따위의 반통일책동은 산산히 격파분쇄될 것이다.

부시정부는 파국과 고립을 재촉하는 신냉전전략, 미사일방어체계정책을 하루빨리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당장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조미합의문을 성근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통일분자들을 충동질하는 온갖 불순한 책동들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부시정부는 현명히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8일
서울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

주체사상총서 제 5권 조국통일론(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과업)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그의 전민족적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박한 과업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7권, p.280)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와 한결같은 숙망을 실현하는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계급, 계층에게만 관계되는 사업이 아니며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는 거족적 사업으로서 오직 전체 조선인민이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우선 전국적 판도에서 통일세력의 조직화를 실현하여 그 위력을 백방으로 확대강화할 수 있게 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 북남의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정치적 연합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하나의 조직된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단합되어야만 역량관계를 통일위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으며 통일도상의 모든 장애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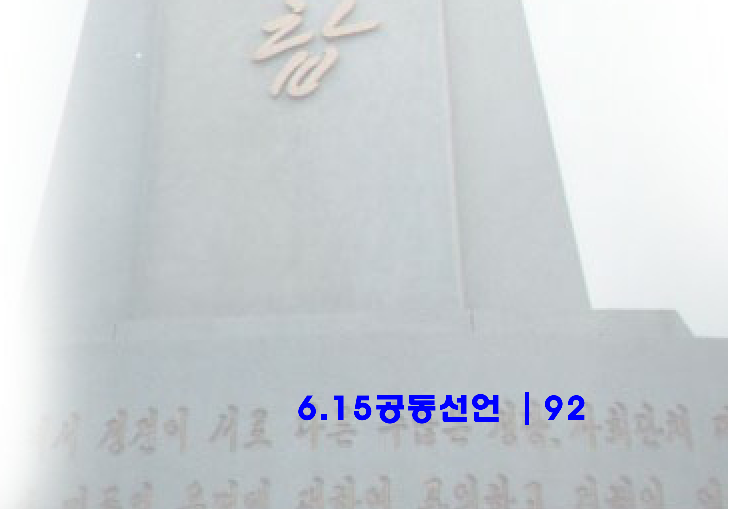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또한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과 민족분열의 고착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영구분열이냐 아니면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난국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서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는 담보는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한다.

북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대중은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에 굳게 결속될 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분산성과 비조직성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의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나가며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과 통일을 지지하는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통일전선론

통혁당(통일혁명당의 80년대 중반 문헌)

3)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이 가지는 특징

통일전선 노선과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해서는 조선혁명의 구성부분인 남조선혁명에서의 통일전선이 가지는 특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통일전선운동에서 옳게 구현하여야 한다.

조선혁명에서 통일전선운동은 하나의 목적, 조국통일과 혁명이 전국적 완성을 위하여 복무하면서도 남북조선의 각이한 역사적 조건과 혁명발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북에서의 통일전선,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 남북통일전선으로 구별된다.

이북에서의 통일전선은 이북에서의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사회주의를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이북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모든 역량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우며 그들을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구국투쟁에로 동원하는 혁명의 추동력이다.

남북통일전선은 국토와 민족의 분열을 끝장내고 조국의 통일과 완전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남북의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주체적인 역량에 의거하여 외래침략세력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정치적 공간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은 남북통일전선과의 대비 속에서 명백히 표현된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그 성격과 목적에서 남북통일전선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남북통일전선은 미제에 의하여 분열된 나라와 민족의 재통일을 위한 투쟁, 반제민족해방투쟁에서 전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남북합작, 남북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이다. 거기에는 남북통일전선의 성격과 목적이 전면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다.

남북통일전선과는 달리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하나의 사회혁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통일전선이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정권을 쥐지 못한 남조선혁명 조직들이 혁명의 주력군을 튼튼히 꾸리는 데 기초하여 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 군중과 정치세력들을 묶어세움으로써 남조선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통일전선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묶어세워 미·일침략세력과 그와 결탁하고 있는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의 성격을 띠게 된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그 대상에서도 남북통일전선과 구별된다.

남북통일전선의 대상범위는 정세와 조건에 따라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은 말할것도 없고 남조선 집권층을 포함한 지배계급의 정당, 단체까지도 망라될 수 있다.

이것은 남조선혁명의 견지에서 볼 때 혁명의 대상까지도 남북합작을 위한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인 것만큼 남조선집권층을 포함한 지배계급, 정당, 단체와의 통일전선은 제기될 수도 없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혁명의 동력인 계급계층 다시 말하여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 군중, 중간세력, 애국적 민주역량과만 진행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그 단결의 기준과 원칙에서도 남북통일전선과는 다른점을 가진다.

남북통일전선의 대상을 규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외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과거 여하를 묻지 않고 남조선의 모든 정당, 정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같이 손잡고 나갈 데 대한 방침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남북통일전선과는 달리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만일 남북단합의 원칙을 가지고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을 한다면 우경투항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통일전선운동에서 우경투항주의는 통일전선사업에 대한 노동계급과 그 당의 영도를 거부하며 적아를 똑똑히 가려내지 못하고 혁명적 입장을 떠나 혁명의 원쑤들을 ≪동맹자≫로,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과 무원칙한 연합을 실현하며 계급투쟁을 포기하는 길로 나간다.

그러므로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대상을 언제나 계급적 견지에서 평가하고 당의 계급노선에 철저히 서서 원쑤와 벗을 엄격히 가려내야 한다. 계급적 분석에 기초하여 투쟁대상과 단결해야 할 대상을 옳게 규정하여야만 원쑤를 고립시키고 군중을 최대한으로 쟁취할 수 있다.

그렇다 하여 지배계급 출신으로서 반제민족적 입장에 서서 싸우려는 개별적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원칙하게 경원하고 배척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적 양심을 가진 개별적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미구국투쟁의 실천 속에서 각성·단련시키면서 손잡고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지하당의 통일전선운동으로서 이북에서 이미 정권을 잡은 노동당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진행하는 통일전선과도 구별된다.

그러므로 지하당조직들은 남조선에서의 통일전선이 가지는 이상과 같은 특성을 똑바로 파악하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전략전술적 원칙들과 요구들을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통일전선운동을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형성·발전시켜야 한다.

. . .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조 · 미 관계의 경색국면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원문은 ≪정세분석란≫에) 중에서 / 한호석 / 2001. 3. 20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적 목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전략적 목표로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올해 들어 전국연합이 제시한 것이 처음이었다. 주한미군 철거와 국가보안법 철폐는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목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자주화와 민주화의 전략적 요구에 복무하는 전술적 요구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은 민족자주위업에 복무하는 투쟁이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은 민중민주위업에 복무하는 투쟁이다. 이 두 갈래의 투쟁은 자주화와 민주화의 최종적, 통합적 완성단계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오늘 민족민주운동이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을 벌이는 목적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벌이는 목적은 한결같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철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승리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요구가 실현되면 그것은 곧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남(한국)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우리 나라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강국이 될 것이며,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는 통일강국이 될 것이다. 이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이 전개해오고 있는 민중의 민족자주화운동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모든 투쟁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완전히 일치한다.

민족통일전선의 형성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는 지금 당면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주한미군 철거와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두 가지 전술적 요구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많은 힘을 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조 · 미 관계의 경색국면에서 민족민주운동은 주한미군 철거투쟁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더 많은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부시정권은 동아시아 10만 병력 유지전략을 자기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려 하고 있고 머지 않아 군사전략이 변경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정권이 주한미군을 철수해 가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은 북(조선)과 부시정권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의 주한미군 철거투쟁은 그 협상에서 북(조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는 보조역량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체제가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하고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러므로 당면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더 힘써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남(한국)의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소멸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가보안법과 6.15공동선언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투쟁이다. 국가보안법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는 투쟁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법을 개정하려는 김대중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승리하려면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 · 전술을 세우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가장 위력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민족통일전선전략이다. 이 전략이 실천적 운동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 그것을 민족대단결운동이라고도 부른다. 그 전략과 그 운동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과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공동의 적을 반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전략과 운동이다.

2000년 6월에 이루어졌던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 채택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과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공동의 적인 반통일세력, 민족분열세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한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평양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의 정부당국 사이에서 상층통일전선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은 아직 전선의 공고성을 보

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층통일전선이 공고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원인은, 상층통일전선이 평양회담이라는 한 차례의 정치협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원인은, 김대중정권의 권력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정권 내부에도 화해 · 협력정책을 반대하거나 그 정책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 내부에 화해 · 협력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조국통일사업을 금압하는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셋째 원인은, 지금 부시정권이 조 · 미 관계에서 조성한 경색국면 때문에 상층통일전선의 추진일정에 일단 제동이 걸렸으며 반통일세력은 그러한 상황을 틈타고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도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무엇을 위해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할까? 오늘 민족민주운동 앞에는 이미 형성된 상층통일전선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그와 더불어 하층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과업이 주어졌다. 민족민주운동이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려 할 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체제다. 그러므로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은 곧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일치된다.

그렇다면 아직 공고하지 못한 상층통일전선을 공고하게 하는 방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올해 민족민주운동이 하층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통일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이루어낸 상층통일전선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과업은 6.15공동선언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해 가는 투쟁에 의하여 그 성패가 좌우된다.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6.15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각계층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 넣고 그 선언을 실현하는 길에 각계층 대중 자신이 나서게 하는 조직 · 정치사업에 달라붙어야 한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은 민족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며 민족대단결운동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과 공조하여 공동의 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고 그 세력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타격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 투쟁의 승리는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에게는 물론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에게도 공동의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민주운동이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과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하여 공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정권이 정권 재창출의 야망에 사로잡혀 화해 ·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민족민주운동이 화해 · 협력 추구세력과 공조하는 것은 결국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김대중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화해 · 협력정책을 추진하건 아니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건 상관없이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화해 · 협력정책을 추진하는 한, 민족민주운동은 공동의 적을 타도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과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김대중정권이 6.15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화해 · 협력정책을 파기한다면 민족민주운동은 그 정권과 공조할 수 없고 또 공조해서도 안 된다. 그 때에는 상호대립성만이 남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성격을 거론하면서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민주운동이 어찌 그러한 정권의 화해 · 협력정책과 공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물론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쟁취하는 과제를 중심에 두고 본다면 민족민주운동과 김대중정권은 도저히 공조할 수 없는 대립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제를 중심에 두고 본다면 민족민주운동은 김대중정권의 화해 · 협력정책과 공조할 수 있고 또 공조해야 한다. 대립적 측면만을 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민족통일전선전략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원래 민족통일전선전략이란 차이와 대립성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전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지금 민족민주운동은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며 행동해야 한다. 상층통일전선이 아직 공고하지 못하고, 하층 통일전선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현재의 조건에서 민족민주운동이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과 공조하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의 승리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민족민주운동이 상층통일전선을 공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도가 떠오르게 된다.

첫째 방도는 민족민주운동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고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 · 정치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의 개최는 6.15공동선언의 실현과정을 더욱 심화 · 발전시키고 지난해에 형성된 상층통일전선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을 개최하게 되면 그것은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합 · 연방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국가연합 방안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통일방안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사이좋은 이웃나라로 살아가자는 국가공존방안이므로 그 방안 자체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배치된다. 그렇지만 국가연합 방안은 남북 사이의 화해 · 협력을 실현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실현하는 과정 안에 얼마든지 포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열리는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은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 협력방안을 포괄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상층통일전선)에서 합의 · 확정된 연방제 통일방안을 남(한국)의 각계층 대중이 즉각적으로 지지 · 찬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이 강제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통일이므로, 남(한국)의 각계층 대중이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하고 그것을 지지 · 찬동해야 합의에 의한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남(한국)의 집권세력들은 한결같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화통일 방안≫이라고 왜곡하면서 그 자체에 대한 논의와 의사표시마저 금압해왔으므로 남(한국) 대중의 의식구조에서 그러한 부정적 분위기가 가셔지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민족민주운동은 남(한국)의 각계층 대중 속에 들어가서 연방제 통일이 ≪적화통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 협력방안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통일방안이라는 것, 그리고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이룩하는 유일무이한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교양 · 선전하는 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전국연합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고 환영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그를 위하여 대중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 협력정책은 비록 부시정권의 경색국면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 개최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고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당면과업에 대하여 민족민주운동과 김대중정권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민주운동이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김대중정권과 공조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면, 그것은 연방제 통일과 화해 · 협력을 반대하는 공동의 적인 반통일세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땅을 밟는 역사적인 그 날, 그를 환영하는 민족의 환호성은 세상을 뒤덮을 것이며, 그가 김대중대통령과 만나 최고당국자 회담을 개최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합의를 민족 앞에 내놓는 그 순간 삼천리 강산은 민족의 통일열기 속에 잠길 것이다.

둘째 방도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는 것이다.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싸고 완전 철폐세력, 부분 개정세력, 유지 · 보존세력 사이에서 날카로운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완전 철폐세력인 민족민주운동의 당면과업은 부분 개정세력과 공조하여 유지 · 보존세력을 고립 · 타격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참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지난해 평양회담에서 이루어진 상층통일전선은 완전 철폐세력과 부분 개정세력이 정치적 화해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국가보안법 체제를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하층 통일전선은 남(한국)에서 완전 철폐세력이 부분 개정세력과 공조하여 국가보안법을 유지 · 보존하려는 세력을 고립 · 타격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남(한국)의 232개 단체가 망라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적극적인 투쟁이 기대된다.

셋째 방도는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에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각이한 사회단체들과 정치세력들을 연대의 틀로 묶어내고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다. 지금 남측과 해외동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기구의 결성은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열쇠다. 3월 15일 서울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결성된 것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얼마 전 전국연합이 북과 해외의 동포들에게 공식 제안했던 민족대토론회를 개최하는 사업은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10일과 11일 남측의 노동계급을 망라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북측의 노동계급을 망라하고 있는 사회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대표자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 회의≫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올해 하층 통일전선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쾌거였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조선)반도 전체의 농민계급을 망라하고 있는 남측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대표자들이 남북농민 통일대토론회와 통일단오명절놀이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합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층 통일전선이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세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948년 4월에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국토분할과 민족분열을 항구화 · 고착화하려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의 책동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투쟁에서 하층 통일전선의 승리를 이룩한 위대한 역사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 때 이승만 정권은 소 · 미 양군 철수와 민족대단결을 반대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상층통일전선이 형성될 수 없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최고당국자 회담은 화해와 협력, 그리고 자주와 통일로 나아가는 상층통일전선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올해 2001년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남북 최고당국자 회담의 성사를 통하여 상층통일전선의 승리를 더 한 층 공고하게 만들고, 1948년에 이룩했던 하층 통일전선의 역사적 의의를 계승 · 발전시킴으로써 반통일세력을 파멸로 몰아넣고 재생의 여지가 없게 소멸하여 상층통일전선과 하층 통일전선의 동시적 승리,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야 할 시기다. 이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가장 힘있는 주체는 민족민주운동밖에 없다.

민족통일기구와 낮은 단계 연방제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대표집필자 최성원)≫ 발췌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을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민족자주성의 완전 실현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연방제 통일 실현이다. 3대 강령 가운데서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은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으로 실현될 것이다. 남측에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것은 곧 민족자주위업이 실현되는 것이며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자주적 민주정부는 북측 정부와 힘을 합쳐 연방제 통일을 완성하는 주체의 한쪽이기도 하다. 물론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도 연방제 통일은 낮은 단계에서 실현되겠지만, 자주적 민주정부는 연방제 통일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민주전선의 전략목표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 실현이다. 민족민주전선의 당면정세 속에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은 미군 철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그리고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이 3대 과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을 반국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관점에서 인식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민족통일전선은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하는 것이므로 그 중심은 북측의 정치역량이 된다.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구축은 북측의 정치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남측과 해외의 다양한 세력들이 결집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에 북측의 정치역량은 평양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김대중정권을 포괄하는 민족통일전선이 실현가능한 것임을 입증하였으며, 지금 그러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민족통일전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수립될 ≪민족통일기구≫는 바로 이 민족통일전선이 남북(북남) 정부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 그리고 남과 북(북과 남), 해외의 각이한 정치세력, 사회운동세력의 정치적 의사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지위와 권능을 가진 정치기구로 조직화된 실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민족통일전선의 목표는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여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한호석)≫ 발췌

그렇다면 6.15 공동선언이 제시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방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는 방략이다. 이것은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두 방안의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공통성을 실체화한다는 말은 조국통일과업을 담당 · 추진하는 정치적 주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북(조선)은 그 정치적 주체를 ≪민족통일기구≫라고 부른다. 북(조선)은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지 약 넉 달 뒤인 2000년 10월 6일에 처음으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조선)의 견해에 따르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공통성을 실체화하는 것이 곧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족통일기구란 무엇인가? 민족통일기구는 통일국가의 지위와 권능을 아직 갖지 못한, 그러나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담당 · 추진하는 남북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라고 볼 수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두 정부당국만 참여하는 공동기구인지 아니면 정부당국, 정당,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공동기구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북

(조선)의 통일론에 비추어보면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라고 예상된다. 그렇지만 조국통일과업을 담당·추진하는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제국주의세력과 친미예속세력의 반대와 저항이 만만치 않은 현실조건에서 그러한 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처음부터 전민족적인 공동기구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숙된 단계에 가서 차츰 정당, 사회단체도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의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과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은 당분간 각각 분리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에는 정당, 사회단체들이 조국통일 공동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되면 그 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두 정부가 종전대로 행사하게 하면서, 그 밖에 다른 권능을 하나로 통합해 가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아직 통합하지 못한 조건에서 두 정부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과도적 공동기구이므로 국가연합제 방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 기구를 수립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제시했던 ≪남북연합≫을 수립하는 방안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이전에 내놓았던 3단계 통일론에 나오는 ≪공화국연합≫을 수립하는 방안, 곧 모든 형태의 국가연합방안과 모순되지 않는다.

민족통일기구가 남북 정부당국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공동기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그 지위, 역할, 권능의 문제에 관해서 남과 북의 정부당국은 좁히기 힘든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 공동기구의 지위에 관련하여 남(한국) 정부는 남과 북의 정부 밑에 두고 상호협력 하는 공동기구로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남과 북의 정부 위에 두는 공동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두 정부 산하의 공동기구냐 아니면 두 정부 상위의 공동기구냐 하는 데 따라서 그 권능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게 된다. 그 공동기구의 임무와 역할에 관해서도 남(한국) 정부는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기구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북(조선)은 조국통일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서울회담에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자는 북(조선)의 비공식 제안에 대해서 남(한국) 정부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지금 북(조선)이 남북 정부당국의 협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과업은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과업이다. 남(한국)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 최고 지도자의 회담이 열리기만 하면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집권 말기에 들어서고 있는 남(한국)의 현 정권은 남북 정부당국의 정치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는 데서 무기력증을 노출하고 있다. 민족통일기구가 수립된다고 해도 아마 차기 정권에 가서야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는 당면과업을 생각할 때, 차기 정권을 세우는 2002년의 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하더라도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은 남북 정부가 종전처럼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되므로 조국통일은 아직 실현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는 문제는 한·미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므로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해결하기 힘들다. 민족통일기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조국통일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그 정부는 정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통합하여 마침내 연방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